

복된 기억의
파이지이 스바토고레츠 장로
말씀

제5권
정열과 미덕

목차:

서문	6
제1장. 정욕.	9
제1장. 정욕과의 투쟁	9
자신의 정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10
정욕에 대한 통찰	13
교만 — 정욕의 버팀목	14
정욕은 “어릴” 때라면 쉽게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15
정욕에서 벗어나는 법	16
정욕에 굴복하는 것보다 영웅적으로 죽는 편이 낫다	17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도록 심어야 합니다	18
1부. 자기애 — 정욕의 어머니	19
제1장. 자기애와 그 결과	19
모든 정욕은 자기애에서 비롯된다	19
맛없는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20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파괴한다	21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버리든 말든!	22
자만심이라는 고통	23
이기심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 간다	24
제2장. 이기심이라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25
수행의 목표: 낡은 사람을 벗어던지기	25
편안함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27
당신은 누구를 위해 자신의 ‘나’를 아끼고 있습니까? —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28
자기 부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29
2부. 교만 — 악의 뿌리	31
제1장. 자만심 — 정욕의 총사령부	31

우리가 교만을 느끼지 않을 때	31
교만은 어디에나 스며듭니다	32
교만한 생각	33
제2장. 교만은 다양한 형태를 띤다	34
숨겨진 교만	34
이기심 — 교만의 말썽꾸러기 아들	35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36
자만심	37
자랑	38
사람의 호감을 구하는 것	39
칭찬이라는 사탕	41
허영	42
제3장. 교만의 결과	43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44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어떤 일도 망치게 됩니다	44
교만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비상이 아니라 추락이 찾아온다	46
교만은 사람을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47
제4장. 교만을 타격하자	48
싸워야 하지만, 올바르게 싸워야 한다	48
네 자만심을 꺾어주는 건 네 형제야	49
영적 인격의 분열	50
높은 지위와 겸손한 마음가짐	51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네 것으로 삼지 마라	52
제3부. 정죄 — 가장 큰 불의	54
제1장.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54
정죄는 불의로 가득 차 있다	54
우리가 어떻게 정죄에 이르게 되는가	56
정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57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58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대하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도 관대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59
제2장. 정죄와의 투쟁	60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본다면, 남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60
우리가 타인을 옹호한다면,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	61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63
4부. 이기심과 교만의 자식들 질투 — 분노 — 슬픔	64
제1장. 질투의 독	65
질투는 주요 정욕 중 하나이다	65
질투는 여자의 강한 사랑을 망가뜨립니다	66
질투는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	66
자신의 재능을 물어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능을 시기하는 사람이다	67
좋은 질투	69

제2장. 분노 — 하나님의 평화의 적.....	71
분노를 정욕을 향한 무기로 삼자	71
왜 우리는 화를 내는 걸까	72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	73
“마음을 다잡고 당황하지 않았습시다”	73
겸손과 침묵으로 우리는 분노를 이깁니다	74
제3장. 영혼을 해치는 슬픔.....	75
기쁨은 그리스도에게서, 슬픔은 마귀에게서 온다.....	75
이기심은 언제나 슬픔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77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슬프다.....	78
탕갈라슈카는 우리가 슬퍼하기를 원한다	79
슬픔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힘을 고갈시킵니다.....	80
영적 용기로 나약함을 몰아내라	80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 낙담의 해독제	81
제2장. 미덕.....	83
미덕을 기르는 일.....	83
“덕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84
모든 미덕은 가꾸어 나가야 한다	85
타인의 미덕은 우리와 타인 모두를 향기로운 향기로 채워줍니다	86
미덕을 실천하는 성인들의 본보기	87
미덕에서 불순물을 제거합시다	88
교만은 미덕을 흠치는 자	89
영적 아름다움.....	90
제1부. 한 가지 미덕이 있으니, 바로 겸손이다	91
제1장. “하나님께서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91
겸손한 사람에게는 모든 미덕이 있다	91
겸손한 자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니.....	93
단 한 번의 겸손한 생각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킵니다	94
제2장. 겸손을 얻기 위한 수고	95
겸손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95
마음의 겸손, 그것이 전부입니다	97
말뿐이 아닌 실천적인 겸손	97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을 구할 때, 모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99
“모든 일에서 자신을 낮추라”	101
“모든 피조물보다 낮음”	102
제3장. 겸손 — 영적 삶의 위대한 힘.....	103
겸손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설 자리가 없다.....	103
영적 성장은 큰 겸손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105
겸손한 이들은 자신의 영적 부를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간직합니다	106
2부. 영적인 사랑.....	107

제1장.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107
하나님의 사랑의 “강렬한 불꽃”	107
사랑의 올바른 분배	109
천국으로의 승천	109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께 바칩시다	110
하나님의 사랑의 불	111
신성한 에로스	112
거룩한 광기	113
신성한 황홀경	114
제2장. 이웃에 대한 사랑	115
사랑과 겸손은 자매 같은 두 미덕이다	115
소중한 참된 사랑	115
우리의 사랑에서 ‘나’를 지워내기	117
모든 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118
마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120
이성과 마음의 협력	121
“결핍에서...”	122
사랑의 불길 속에 낡은 계산법을 던져버리십시오	123
사랑과 연민	125
사랑이 알려줍니다	126
사랑은 거리를 없애줍니다	127
제3장.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	129
타락 전후 인간의 동물과의 관계	129
동물들은 사람의 사랑을 느낍니다	129
동물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130
동물들에게서 본보기를 따르자	132
올레트 — 부지런한 새	133
제3부. 고귀함과 사랑	135
제1장. 고귀함 — 하나님의 위대하심	135
고귀함이란 무엇인가	135
영적 고귀함은 곧 영적 정의입니다.	135
고귀함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137
인간은 너그러운 고귀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138
사람은 고귀함을 얻거나, 비참함에 빠져버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139
제2장. 사랑 — 큰 감사의 사랑	141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고귀한 영혼들입니다	14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수련을 기뻐하십니다	142
자애의 적은 이기심이다	143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세련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144
제4부. 사랑과 겸손의 자녀들	146
제1장. 단순함과 순결	146

단순함 — 겸손의 첫 번째 열매	146
단순함과 건방짐은 다른 것입니다	147
아이들처럼 되십시오	147
소박한 사람은 언제나 선한 생각을 품는다	148
순수함이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149
거룩한 단순함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151
제2장.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152
오늘날 모든 악은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152
믿음이 흔들릴 때	153
불신과 믿음이 부족함	154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56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노라”	157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158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지니고 있다	159
제3장. 구원을 주는 인내	160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160
다른 사람을 참아내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161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인내 위에 세우셨습니다	162
우리는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겨울을 견뎌냅니다	163
제4장. 영적 기쁨	164
성모님께서 세상에 기쁨을 가져오셨습니다	164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165
영적인 기쁨은 영적인 행위의 결과로 찾아옵니다	166
신성한 기쁨은 네가 자신을 내어줄 때 찾아온다	167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68
영적인 고통은 곧 영적인 기쁨이다	169
제5장. 사유 — 미덕의 화관	170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와 같은 분별력이 나타납니다	170
모든 미덕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172
사랑 속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173
이론에는 한계도 규칙도 없다	174
선한 불안	175
선한 불안 — “선한 업적”에 대한 선한 염려	175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문제를 가슴 깊이 새겨 봅시다	176
“지혜로운 자에게 죄를 주면, 그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177
선한 불안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178

서문

1968년 우리가 공동 생활을 시작할 무렵, 고(故) 파이시이 장로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미덕이 있으니, 바로 겸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여기에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하지만 겸손을 지닌 사람에게 사랑이 없겠느냐?” 장로님께서 겸손과 사랑을 “자매 같은 미덕”이라 부르셨던 이 두 가지는 영적 삶의 기초입니다. 이는 이 미덕들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들이며, 그로부터 다른 모든 미덕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저 겸손과 사랑을 가꾸기만 하라,”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덕들이 자라나기만 하면, 교만과 악의는 고갈될 것이며, 정욕의 최후가 찾아올 것이다.”

니코디모스 카산드리아 대주교 각하의 축복으로 출간되는 본 제5권에는 정욕과 미덕에 관한 장로님의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체계적인 교리를 구성하지 않으며, 모든 정욕과 모든 미덕을 아우르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들은 정욕을 분별하고 치유하는 법, 그리고 미덕을 실천하는 법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스승님께서 주신 답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들은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미덕을 쌓는 일에 선한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목회적 지도 방식—적절한 비유와 재치 넘치는 유머—로 잘 알려진 파이시이 장로는 영적인 온기로 영혼을 따뜻하게 해 주며, 그 온기의 작용으로 영혼 속에 회개의 꽃이 피어나고, 결국 미덕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낡은 사람을 용기 있게 직시하고, 그 “추악한 가면”을 미워하며 벗어던지도록 독려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비추어진 장로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욕의 속박에 맞서 더욱 열정적으로 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임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로 파이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악덕이 아니라 힘을 주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는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은혜로 그분과 닮아갑니다. 만약 “옛 사람의 욕망”에 따라 그 힘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라고 파이시이 장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덕을 기르고 영혼의 건강을 얻습니다.”

헤론다는 자신의 정욕에 휘둘리는 사람 안에서는 신성한 은총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장로님께 어떤 정욕에 빠지고 있다고 말하면, 그는 보통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쫓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혹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물으면,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해 주었다. 때로는 겸손을 통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사랑과 내면의 고귀함을 통해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으며, 때로는 희생과 이타심을 통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셨고, 또 때로는 자신의 ‘나’를 버리는 데 중점을 두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욕에서 해방된 새로운 사람의 특성입니다. “내가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말할 때,” 스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정욕을 버리고, 낡은 사람을 벗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불성실한 세입자인 우리의 낡은 사람이 그 거처를 떠나면, 마음속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사람, 즉 새 언약의 사람이 자리 잡을 것이다.”

이 책은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장은 정욕에, 두 번째 장은 미덕에 대해 다룬다.

제1장의 첫 번째 부분은 ‘정욕의 어머니’인 자기애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는 모든 정욕—육체적인 것들(식탐, 쾌락 추구 등)과 영적인 것들(교만, 시기 등)—이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만심, 즉 장로가 “정욕의 총사령부”라고 불렀던 것에 대해 다룹니다. “겸손이라는 단 하나의 미덕이 있듯이” 자만심이라는 단 하나의 정욕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만심은 “우리를 낙원에서 쫓아내어 이 땅으로 내몰았고, 이제는 이 땅에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교만에서 비롯되고 “불의로 가득 찬” 비난에 대해 다룹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특히 혐오하시는 비난이라는 정욕으로 변질시킵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시기, 분노, 낙담이라는 정욕에 대해 다룬다. 이들도 영혼의 힘을 왜곡한 것이며, 그 힘을 잘못 사용한 결과이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갈망의 힘을 우리는 시기심과 악의로 변질시키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내재된, 악과 용감하게 싸우는 데 사용해야 할 분노의 힘을 이웃을 향해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픔과 낙담의 정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기뻐할 기회를 빼앗고 영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장로는 이 슬픔을 회개에서 비롯되어 영혼을 달콤한 위로로 채우는 ‘하나님을 향한 슬픔’과 구별합니다.

미덕에 관한 제2장은 “하늘로 이끄는” 겸손에 대한 고찰로 시작된다. 겸손이 없으면 우리의 미덕은 “오염된다.” 인내 속에는 불평과 위선이 깃들 수 있고, 순박함은 건방짐과 교활함으로 타락할 수 있으며, 기쁨은 영적인 환희가 아니라 세속적인 쾌락이 될 수 있다. “겸손의 길을 찾은 이들은,” 장로가 말하길, “영적 삶에서 빠르고, 꾸준히, 그리고 수고 없이 번창

한다.” 그리고 한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짧고, 확실하며, 쉬운 길은 바로 겸손이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이웃, 그리고 모든 피조물 사이에 올바르게 분배되어야 하는 사랑에 대해 다룹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떼어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영혼을 신성한 에로스, 거룩한 광기, 그리고 신성한 황홀경으로 이끕니다. 진정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소중한 영적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에서 ‘나’를 제거하는” 사람, 즉 사랑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가 지닌 것이다.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영적인 사람이 지닌 “보편적” 사랑의 넘침이다.

세 번째 부분은 영적 고귀함과 사랑심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는 파이지스 장로의 가르침에서 두 가지 주요 축을 이룬다. “영적 고귀함 안에는,” 장로가 말하길, “모든 것이 있다: 사랑심, 겸손과 소박함, 이타심, 정직함... 그리고 가장 큰 기쁨과 영적 환희.” 파이시이 장로는 절제의 중요성을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영적 고귀함과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그 어떤 육체적 수행보다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고귀함과 관대함,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영적 수고—절제, 절 등— 그가 말했듯이 “땃밭의 허수아바”에 불과하며, 이는 “까마귀는 쫓아낼 수 있지만 악마는 쫓아낼 수 없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단순함, 즉 “겸손의 첫 열매”에 대해,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 대해, “가장 얇은 매듭도 풀어주고 신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인내에 대해, 그리고 “내면의 질서가 잡힌 후에” 찾아오는 영적 기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혼에 날개를 달아준다.” 마지막으로, 파이시이 장로는 “미덕의 면류관”인 분별력에 대해 말한다. 분별력은 “단순히 미덕이 아니라,” 영적 성취를 향한 한 걸음이 아니라, 성취의 열매이자 수호자이며, “영혼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비틀거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끄는 키”이며, 악마에게서 비롯된 극단을 피하며 미덕의 왕도를 굳건히 걷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는 “선한 불안”에 대한 장로의 말씀이 실려 있다. 그가 말하길, “선한 업적에 대한 선한 불안”이라고 했다. “선한 불안은,” 장로 파이시이가 말하길, “활기와 열망입니다. 그것은 영혼에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으며,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위로를 가져다줍니다. 그것은 긴장이 아니며 불안도 아닌, 위업을 향한 열정입니다.”

이 영적인 열정이 우리 모두 안에서 타오르기를, 낡은 사람을 벗어던지고 겸손을 입는 위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2006년 9월 26일,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인 신학자 요한의 대축일

성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인 신학자 요한 수도원의 원장 필로페아 수녀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모든 자매들이

— 헤론다, 작별 인사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무엇을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저희가 스승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마디만 해 주세요.

— 글썄요, 그렇게까지 부탁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미덕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니, 여기에 사랑도 덧붙이겠습니다. 하지만 겸손을 지닌 사람에게 사랑이 없겠습니까?

제1장.

정욕.

“정욕과의 투쟁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 계명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달콤한 고행이다”

제1장.

정욕과의 투쟁.

— 헤론다, 선지자 다윗이 “주권적인 영으로 나를 굳건하게 하소서”¹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 다윗은 백성을 다스려야 했기에 하나님께 지도력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통치하는 영’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 헤론다,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¹ (시편 50:14)

— 제 생각에 정욕이란 영혼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악덕이 아니라 힘을 주십니다². 하지만 우리가 이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탄갈라슈카³가 찾아와 스스로 그 힘을 조종하기 시작하고, 그 힘은 정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악을 향해 이끈다면, 그 힘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에 용기가 있다는 뜻이며, 이는 영적 삶에 유익합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에게는 용기도 없으므로, 자신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힘을 영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좋은 도로를 달리는 고급 자동차와 같다. 기어를 높이면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다. 반면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마치 험한 길을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다가 자꾸만 구덩이에 빠지는 차와 같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을 알고,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기심을 마귀를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헛소리를 늘어놓는 성향은 기도에 힘쓰며 거룩하게 다듬어야 한다. 헛소리를 하며 죄를 짓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거룩해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는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자신의 정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 헤론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영적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취하겠는가”라고 말합니다.⁴.

— 사람들이 정욕을 타고났다고 말하며, 그것으로 자신을 정당화할 때야말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 그런데 헤론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요?

² 여기서 파이시이 장로는 우리 신앙의 진리를 간결한 말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은 악의 원인도, 창조자도 아니시다”(성 요한 레스비츠의 말씀 26, 155). 따라서 성 니코덤 스바고레츠가 말하듯이, 그분은 정욕을 “인간의 본성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본성에 반하여 그것들이 들어온 것”이다 (Νέα Κλίμαξ. Βόλος, 1956. Σ. 152). 성부들이 가르치시듯, 정욕은 육체의 능력이나 영혼의 힘을 “본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발생한다. 만약 이러한 “본성에 반하는” 사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길어지면, 그것은 악한 습관이 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편집자 주*.

³ 이것이 바로 파이시이 장로가 마귀를 부르는 방식이다. — *번역자 주*.

⁴ 루키아노스. 《죽은 자들의 왕국에서의 대화》. 제2대화

— 내 말을 잘 들어보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막론하고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결점을 없애고 자신 안에 있는 좋은 점을 발전시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쁜 기질은 영적 완성을 위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비록 조금이라도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그가 영적 법칙이 작용하는 영역, 기적이 일어나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그의 모든 선천적인 결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리 좋은 기질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삶에서 열정적으로 수련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나쁜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약해진 자신의 연약한 날개로 땅에서 벗어나 높이 날아오르려고 애쓰는 영혼을 특히 사랑하시고 도우십니다. 저는 약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자신을 짓누르던 것에서 해방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여기십니다. 결국 무엇이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이끌까요? 바로 우리가 옛 사람을 이기기 위해 기울이는 수고입니다.

— 헤론다, 세레는 나쁜 유전적 소인을 없애주지 않습니까?

— 세레를 통해 사람은 그리스도를 입게 되고, 원죄에서 해방되며, 신성한 은총이 그에게 내려오지만, 나쁜 유전적 소인은 남아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레를 통해 그것들까지 지워주실 수 없으신 것일까요? 가능하시지만, 사람이 수고하며 싸워 이기고,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얻도록 그 성향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 헤론다, 제가 어떤 정육에 사로잡힐 때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품으로 태어났으니...’

— 이것만 빼면 다 있었네. 어쩌면 모든 악덕은 부모가 물려준 것이고, 조상들의 악덕이 네게 드러난 반면, 모든 재능과 미덕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할 건가? 어쩌면 신을 탓할 건가? 만약 누군가가 “내 성격이 원래 이래, 태어날 때부터 나쁜 성향을 지녔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고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이 모든 것에 대해 내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결국 그 사람은 부모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습니다.

— 헤론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본질에 결함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신 안에 자리 잡은 결점을 없애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지 않으셨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 말인가? 왜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빠져나갈 틈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마음을 달래며, 자신에게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건 유전적인 것이고, 저건 성격의 특성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태도는 영적인 용기를 앗아갑니다.

— 네, 게론다, 하지만...

— 또 “하지만”이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사람이에요? 미꾸라지처럼 교활하군요. 항상 무슨 변명이라도 지어내려고만 하네요.

—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 고의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게 순식간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면, 왜 변명이 매우 나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 그렇게 작은 머릿속에 지혜가 가득한데도 이해하지 못하다니!

나는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편하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옹호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자신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성격에 고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지울 수 없는 생각을 품고 있어 절망에 빠지곤 한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이에게는 영적 완성을 향한 장애물로 자기합리화를 세우고, 다른 이들은 과도한 감수성을 이용해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정욕을 끊어내려면, 사람은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만약 그가 예를 들어 “나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에는 주어졌다”라고 말하며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투쟁 없이는 성취도 없습니다. 성부들의 저술에서, 일부 수행자들이 처음에는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중에 어떤 수준의 영적 완성에 이르렀는지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매우 덕이 높은 많은 이들을 능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바 모세 무리인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행하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 나쁜 유전적 소질을 가진 사람이 미덕을 얻기 위해 투쟁할 때, 부모로부터 미덕을 물려받아 그것을 얻기 위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이다. 보라,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빛을 물려받아 쉬지 않

고 일하며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모은 사람을,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그저 지켜낸 사람보다 더 존경한다.

정욕에 대한 통찰

— 헤론다, 저를 정욕이 괴롭힙니다.

— 당신 안에 정욕이 깃들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 가끔은 느껴요.

— 그건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정욕에 시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그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 하지만 제가 자꾸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이 여전히 속상합니다.

—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에 기뻐하세요. 그 실수들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 테니까요. 당신 안에는 교만이 있으니까요. “오, 주님,”이라고 말하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면,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는 자신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환상에서 해방시켜 준다. 나는 내 약점이 드러나거나 정욕이 표면으로 드러날 때 기뻐합니다. 만약 정욕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는 성스러움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정작 정욕의 씨앗은 내 마음속에 은밀히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너도 마찬가지로,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게 되면 당연히 속상하겠지만, 기뻐할 이유도 있다. 네 약점이 드러났으니, 이제 그 약점을 없애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 헤론다, 정욕이 한동안 드러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없다는 뜻인가요?

— 네 안에 정욕이 살아 있다면,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정욕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네 방 근처 어딘가에 뱀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문을 나설 때마다 뱀이 기어 나와 너를 물지 않도록 매번 주위를 살피게 될 것이다. 근처 어딘가에 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뱀이 기어 나올 때를 노려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면 두렵지 않지만,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뱀이 갑자기 달려들어 물어버린다면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스스로를 잘 살피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은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정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것과 싸울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 정욕을 뿌리 뽑도록 도와주십니다.

— 헤론다, 어쩌면 저는 그저 영적 수련에 힘쓰고,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마도 제 회개는 저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 아닐까요?

— 네, 영적 수련에 힘쓰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되,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의사는 먼저 환자의 발열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후에야 열을 내리기 위해 어떤 약을 처방할지 결정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개선을 위한 투쟁으로 이끌어 주는 선한 불안감이 생겨나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저런 결점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노력하며 내 상태를 분석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는 이런 결점이 있었다. 그중 어떤 것은 없었을까? 나는 지금 투쟁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런 다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제가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헤론다, 사람이 자신의 정욕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 사람이 예민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정욕을 당장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절망에 빠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이런 욕망이 있느냐? — 마귀가 그에게 말합니다. — 왜 이런저런 일을 했느냐?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정신병원에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만 — 정욕의 버팀목

— 사람이 수년 동안 수련을 쌓아도 아무런 진전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만약 우리가 수행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해져 스스로를 해치지 않도록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 영적 삶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연약하고 위로가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탕과 초콜릿을 주십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조금씩 그분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데,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 안에 겸손이 싹트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꾸준하고 평온하며 좋은 영적 상태이다. 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 사이에 있다. 조금 앞으로 나아갔다가, 곧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거두시니 너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다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며 정신을 차리게 된다. 만약 네가 나에게 “더 나아갈수록 더 나아진다”고 말했다면, 나는 겁에 질렸을 것이다. 그것은 네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네가 스스로를 볼 때 점점 더 나빠진다고 말하니, 나는 기뻐한다. 네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발전입니다.

— 헤론다, 제가 정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요?

— 우리 하느님이 바알이신가요?⁵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분의 도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 그 책임은 하느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교만이 그분의 도움을 물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자만심의 빌미가 될 위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교만이나 교만으로 치우칠 소지가 있다면,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정욕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어떤 정욕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간구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 즉시 우리 정욕 뒤에 또 다른 더 큰 정욕, 즉 교만이 숨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욕, 예를 들어 과식, 헛소리, 분노 등을 그대로 두시며, 이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잦은 실수로 인해 자신의 정욕을 미워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영적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정욕은 “어릴” 때라면 쉽게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 헤론다, 제게 정욕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 네, 당신 안에는 정욕이 많지만, 나이는 아직 어리고, 수고하여 자신의 정원에서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백합, 히아신스, 장미를 심은 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용기도 있습니다. 네가 젊을 때, 네 안의 정욕은 마치 어린 새싹처럼 쉽게 뿌리 뽑을 수 있다. 잡초와 가시도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는 땅에서 쉽게 뽑히지만, 힘이 세지고 거칠어지면 뽑아내기가 힘들어진다. 썩기풀도 첫 잎을 틔울 때는 바질처럼 만지면 부드럽다. 새싹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손에 잡을 수 있다. 그러니 젊을 때 자신의 정욕을 뿌리 뽑으려 노력하라. 만약 그대로 자라게 둔다면, 나중에는 온갖 욕망이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 그때는 그것들을 떨쳐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⁵ 참조: 열왕기하 18:26

젊은 시절에 자신의 정욕을 뿌리 뽑지 않는 사람들은 늙어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정욕이 그들과 함께 늙어가며, 고치기 힘든 습관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좋아하게 되고,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며, 의지가 약해져서 정욕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젊은 시절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 에너지를 정욕을 뿌리 뽑는 데 쏟는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정욕에서 벗어나는 법

— 헤론다, 왜 저는 과식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받나요?

— 그건 네게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가장 취약한 보루를 공격하고, 잘 방어된 다른 보루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만약 내가 이 보루를 점령할 수 있다면,” 그가 말하듯이, “그 다음에는 하나씩 다른 보루들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약점은 단단히 보강해야 한다.

— 제 욕망을 마주하면 완전히 당황해 버립니다.

—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마라. 가장 큰 욕망부터 시작하여, 과감하게 하나씩 정복해 나가라. 처음에는 굳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가장 거칠고 눈에 띄는 것들부터 단호히 뿌리 뽑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욕의 굵은 뿌리가 마르기 시작하면, 그와 함께 더 가느다란 뿌리들도 마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큰 정욕을 뿌리 뽑으면, 그와 함께 다른 작은 정욕들도 함께 뿌리 뽑게 되는 것입니다.

— 왜 그럴까요, 게론다? 저는 끊임없이 정욕과 진지하게 싸우기로 결심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합니까? 정욕은 미덕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슬을 이룹니다. 한 가지 정욕이 다른 정욕을 뒤따르고, 한 가지 미덕은 다른 미덕과 기차의 객차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네가 한동안 한 가지 정욕과 싸우며, 그 정욕과 반대되는 미덕을 마음속에 가꾸어 나간다면, 결국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복된 정욕과 함께 다른 정욕들도 떨쳐버리게 될 것이며, 그 정욕들과 반대되는 미덕들이 네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질투를 한다고 치자. 만약 네가 질투와 싸우고, 자신 안에서 사랑과 친절을 가꾸어 나간다면, 질투를 이겨냄으로써 동시에 분노, 비난, 악의, 슬픔에서도 해방될 것이다.

— 헤론다, 정욕이나 나쁜 습관은 단번에 잘라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없애는 것이 좋을까요?

— 가능하다면 단번에 끊어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자라날 테니까요. 이 문제에서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개울을 건널 때, 특히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빨리 반대편 기슭으로 뛰어넘으려 합니다. 빨리 뛰어넘으면 얼어 죽을

틈이 없습니다. 말을 묶을 때, 한 번의 날카로운 동작으로 고삐를 끊어버리듯이, 유혹에 직면했을 때도 고삐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 헤론다, 아바 이사악 시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정(無情)이란 정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⁶. 무정한 사람도 정욕에 당황할 수 있습니까?

—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에게 무엇을 던져도, 그 모든 것은 수행자의 마음속에 타오른 신성한 불길 속에서 타버립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멈추지 않지만, 사람이 원수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은 정화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된다. 그의 마음은 용광로, “타지 않는 덩불”⁷로 변하며, 그 후 무엇이든 마음에 들어 오더라도 모두 타버린다.

정욕에 굴복하는 것보다 영웅적으로 죽는 편이 낫다

— 게론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으로도 우리가 정욕과 싸우도록 움직일 수 있습니까?

—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의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부지런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내적 수련에 도움이 됩니까?

— 네,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의지하며 죽음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심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들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고 있는가?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죽음과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결국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죽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나를 당신 곁으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정욕이 죽으려면, 우리는 죽음과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생각하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께 열심을 보여야 합니다. 정욕과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계명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달콤한 순교입니다. 정욕에 패배하여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보다 영웅적으로 죽는 편이 낫습니다.

— 게론다, 싸우는 게 힘듭니다.

⁶ 인용 출처: 『아바 이사악 시린의 수행자적 말씀』. 모스크바, 1993. 210쪽.

⁷ 출애굽기 3:2-3 참조

— 손가락에 박힌 가시조차 빼내는 것도 아픈데, 자기 안에서 정욕을 뽑아내는 것은 훨씬 더 아픈 일입니다! 또한, 사람이 어떤 정욕을 끊어내려고 노력할 때, 유혹은 그 길에 장애물을 놓으며, 그 사람은 마치 귀신 들린 자가 꾸지람을 들을 때처럼 고통받습니다. 그 순간 악마와의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 귀신 들린 자는 해방됩니다.

자신을 정화하는 일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것처럼,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무 줄기가 한 번의 동작으로 잘려나가지 않는 것처럼, 욕망도 단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톱으로 오랫동안 깎아내야만 줄기 전체를 완전히 관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나무를 가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통나무를 판자로 잘라내야 하고, 그다음 장인이 오랜 시간 동안 그 판자들을 다듬어 필요한 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 만약 내가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 그러면 너는 그루터기로 남게 될 것이고, 너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도록 심어야 합니다

— 헤론다, 저는 매일 “내일부터 기도하고 고치겠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고치려고 노력하겠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고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도움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당신을 돌보아 주십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하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린 아이가 작은 손으로 큰 돌을 움직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 사람 중, 달려가서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작은 노력을 보시고, 당신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고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여, 제 안에는 이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것들로부터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그것들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면, 사람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돕고자 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마법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얻으려 애씁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도 어떤 미덕을 얻거나 심지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트로파리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

황무지를 비옥하게 가꾸셨나이다”⁸.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고 땅을 부드럽게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밭을 경작해야 합니다. 땅은 준비되었지만, 쟁기를 밭에 대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같지 않으면 어떻게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행에서는 이자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어떻게 거기서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부.

자기애 — 정욕의 어머니

“자기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으며,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내면적으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제1장.

자기애와 그 결과

모든 정욕은 자기애에서 비롯된다

— 헤론다, 자기애란 무엇입니까?

— 자기애란 낡은 사람의 번덕을 따르는 것, 즉 낡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식, 이기심, 고집, 시기심 등은 모두 그 기원을 자기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애 때문에 자신에게 편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다른 누구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건강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식사와 수면을 스킨라적인 정확성으로 챙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요구합니다. 무언가에서 조금이라도 제약을 받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즉시 화를 내며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내가 한 번 보여 주마.”라고 외칩니다. 참으로, 자기애는 무서운 것입니다!

⁸ 성인의 트로파리 중, 8음조

— 헤론다,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위해 하루 종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⁹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희생할 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든 그 안에는 인간의 ‘나’, 즉 자기애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마음에 드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걸 원해, 저걸 원해”라고 요구하거나 “왜 나를 위해 이걸 해주지 않았니, 왜 나에게 저걸 주지 않았니?”라고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 그들의 소망 속에 ‘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평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소망 속에 ‘나’가 있다면, 그곳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가 없고 오직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것, 즉 그리스도만이 있다면, 그것은 곧 모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나’를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 헤론다, 우리에게 ‘나’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면,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제가 견디지 못할까 봐요.

— 아, 참으로 비참한 일로구나! 이는 마치 “내가 내 정욕을 버린다면, 내게 무엇이 남겠는가?”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내가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내 정욕을 버리고 낡은 사람을 벗어던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정을 잘 아는 성인이 ““내 ‘나’를 버릴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건 좀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철퇴를 들고 이 벽을 부숴라”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붓 말고는 손에 아무것도 잡아본 적이 없다면, “못 하겠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낡은 사람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겸손이 필요합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자기애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먹고 쉬고 싶어 하는 욕망이기도 하다. 올바른 관점에서 보면, 몸에는 꼭 필요한 것만 주어야 한다. 욕망과 필요는 별개의 문제다. 하나는 육체의 쾌락을 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수적인 것에 대한 필요하다. 가령, 내 앞에 두 접시가 놓여 있는데, 두 접시의 음식은 비타민 함량이 똑같지만, 한쪽은 다른 쪽보다 더 맛있다고 가정해 보자. 더 맛있는 음식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자기애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병으로 인해 식욕 부진

⁹ 시편 43:23

에 시달리고 있어서 식욕을 돋우기 위해 더 맛있는 음식을 선택한다면, 이는 분별 있는 판단이 될 것이다.

아바 마카리우스가 말하듯, 이 “사악한 세리”¹⁰ 인 육체는 신체가 무엇에 익숙해졌는지에 따라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람의 위가 작다면 금식하기도 더 쉬우나, 그렇지 않다면 위를 무언가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위라는 노예가 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뚱뚱한 사람을 보자. 그 사람의 배 속은 온통 창고나 다름없어서, 배를 채우려면 적어도 송아지 반 마리는 먹어야 하고, 그 후에도 물 두 양동이를 더 마셔야 한다!

— 예전에는, 게론다, 사람들이 체력이 더 좋았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더 단련했나요?

— 물론, 육체적으로도 조금 더 튼튼했지만, 스스로를 더 많이 단련시켰습니다. 하지-게오르기 장로는 자신의 수도사들에게 매일 약간의 꿀과 견과류를 주곤 했습니다¹¹. 그런데 그들은 모두 열다섯 살 정도의 어린 나이, 즉 활발한 성장기였음에도 영적으로는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속적인 논리를 따릅니다.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금식하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춰 주어야 하며,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은 늘 고기 요리를 요구하지만, 그로 인해 얻는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먹지 않는 것을 기뻐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양식을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맛있는 것보다 맛없는 것을 택한다면, 그 맛없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파괴한다

— 헤론다, 오늘 한 노인이 성당 계단을 힘겹게 오르려 했지만, 많은 사람이 지나갔음에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 “제사장도... 그를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다.”¹² 그들이 옳다... 그들은 모른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복음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뭐라고 말하겠는가? 우리 자신은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파괴하므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의 정신대로 살지 않는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셨다면, 하늘에 계셨을 것이며,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 구원을 위해 고통받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¹⁰ 팔라디오스, 엘레노폴리스 주교. 『라우사이키 역사』. 『네프티코이 및 아스케티코이 필로칼리아』. 제6권. 테살로니키, 1996. 124쪽

¹¹ 하지-게오르기 장로의 수도 공동체에서는 끊임없이 금식을 지켰다(참조: 게론트 파이시오스 아기오레이토스. 『오 게론 하지-게오르기』. 테살로니키, 2005). — 편집자 주.

¹² 누가복음 10:31-32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자기애는 있지만, 희생의 정신은 없습니다. 오늘날 “나만 힘들지 않으면 된다”는 정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최근¹³ 병원에서 저는 이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누워 있는 환자를 일으켜 다른 병실로 옮겨야 했는데, 간호사는 그것이 자신의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못 하겠어요. 허리가 아파요.”라고 그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비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와 함께 그 환자를 들어 옮겨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임신부 간호사는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서둘러 도움을 주러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스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볼 때 저는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정말 기쁩니다! 가슴이 벅차옵니다. 그런 사람과는 친근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버리든 말든!

— 헤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기다리지 않고 줄을 서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 네,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을 꼭 만나야 해요. 아토스 산에 갔었는데 거기서 당신을 찾지 못해 여기까지 왔어요.” “좋아,”라고 제가 말했죠.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안 보이니? 이제 모두를 내버려 두고 너만 챙겨야겠니?” “네, 신부님,”이라고 그가 말하더군요. 상상이나 가세요? 사람들이 계단에 뿔뿔이 서 있어서 사과 하나 떨어질 틈도 없는데 — 환자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문제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헛소리나 늘어놓는 거였죠. 중요한 건 자기뿐이고, 나머지는 다 망해버려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어요!

가끔 사람들이 와서 말하곤 해요. “신부님, 오늘은 저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제발 빼주세요.” 참으로 터무니없는 요구죠! 그건 마치 “이 기차에는 나만 탈 테니, 다른 사람은 객차에 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기차는 어차피 달리는 건데, 다른 사람들도 함께 타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 게론다, 그리스도의 “누구든지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¹⁴

—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좋은 의미에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¹³ 1987년에 파이시오스 장로께서는 탈장을 수술받으셨다. - 편집자 주.

¹⁴ 마태복음 16:25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¹⁵ 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삶의 모든 기초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자신을 잊고, 타인에게 마음을 돌리며, 그의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지 방법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고 기쁘게 해줄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 헤론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내야 그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겹질 속에만 갇혀 있다면,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입장에 서는 법이 아니라, 타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법만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성찬식에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합니다. 그들 각자는 “할 일이 있어서 서둘러야 해”라고만 생각할 뿐, “내가 성체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또는 “혹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급한 건 아닐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성체를 받고는 아무렇지 않게 떠납니다. 하지만 설령 당신에게 성체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당신 대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에게 성체 한 조각, 진주 한 알만 남아 있는데, 임종을 앞둔 병자가 성체를 받아야 한다면, 네가 성체를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받는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기쁨으로 채워 주신다.

자만심이라는 고통

— 헤론다, 저에게 한 자매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보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제약하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타인에게만 요구를 할 뿐, 자신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삶의 논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점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생애 휴식을 취하거나 편리함과 안락함을 누리러 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화하고 다른 삶을 준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생각해 주고, 우리를 섬겨 주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즉, 항상 우리

¹⁵ 고린도전서 10:24

에게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난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한 사람이 말하고, “난 다르게 하고 싶어,”라고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은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을 생각할 때 비로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1941년 점령 기간 동안, 우리는 마을을 약탈하고 불태우며 살해하던 독일군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코니차에서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독일군이 코니차에 진입한 그날, 제 두 형은 아침 일찍 산에서 내려와 평야의 텃밭에서 옥수수 흙을 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말했다. “엄마, 제가 아래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알려올게요.” 어머니는 나를 보내주지 않으셨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아이들은 어차피 죽었으니, 이 아이라도 보내지 마. 안 그러면 이 아이까지 잃게 될 거야.”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설마 그럴 리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군화를 신고 텃밭이 있는 아래로 달려갔다. 서두르다 보니 신발 끈을 제대로 묶지 못했고, 얼마 전 물을 뿌린 밭을 가로질러 달릴 때 신발이 밭에서 벗겨져 진흙에 꽂혀 버렸다. 나는 신발을 버리고 맨발로 강가를 따라 달렸는데, 그곳은 엉덩퀴로 가득했다. 여름 더위 속에서 한 시간 가량 가시 돋친 풀밭을 달렸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다. 텃밭에 있는 형제들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독일군이 왔다, 숨어야 해.” 그때 우리는 무장한 독일군 병사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계속 흙을 풀고 있어,”라고 형제들에게 말하며, “나는 밭을 가꾸는 척하며 옥수수를 숨아낼게.” 독일군들은 그냥 지나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내 발이 가시 때문에 온통 상처투성이가 된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 질주에는 기쁨이 있었다! 자기희생의 기쁨. 내가 어떻게 형제들을 버릴 수 있었겠는가? 만약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땐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을 것이다. 설령 양심이 없었다 해도, 어쨌든 나중에 자만심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기심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 간다

— 헤론다, 왜 저는 항상 평온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건가요?

— 너는 네 ‘나’로부터 해방되지 못했고, 여전히 낡은 사람의 포로다. 네 ‘나’를 죽이도록 노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자기애가 깃든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으니, 내면적으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을 거북이처럼 하고, 거북이처럼 움직인다. 거북이가 자유롭게 머리를 내밀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시간을 등껍질 속에 숨어 지낸다.

— 이론적으로는 제가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 실제로는 힘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낡은 사람이 억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지런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낡은 사람을 억누르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 영적 삶의 온전한 구조를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

— 헤론다, 지옥은 어떤 모습인가요?

— 내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어느 날, 한 평범한 사람이 신께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그 사람은 “가자, 지옥을 보여줄게.”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그는 어느 방에 들어섰다. 방 한가운데에는 식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음식으로 가득 찬 냄비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배가 고팠다. 그들은 긴 숟가락으로 냄비에서 음식을 퍼내었지만,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덜거리고, 어떤 이들은 소리치고, 또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다. “가자, 이제 천국을 보여 주마.” 그러자 그는 다른 방에 있게 되었는데, 그곳에도 똑같은 식탁과 냄비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긴 숟가락을 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모두 배부르고 즐거워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가 냄비에서 음식을 퍼내어 자신의 숟가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네가 이 생에서 어떻게 천국을 느낄 수 있는지 알겠느냐?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신성한 위로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기뻐한다. 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고통받으며, 지상의 낙원을 지상의 지옥으로 바꿔 버린다. 네 안에 사랑과 선함이 있다면, 너는 천사이며,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너는 낙원을 함께 지니고 다닌다. 반면 네 안에 정욕과 악의가 깃들어 있다면, 그것은 네 안에 악마가 있다는 뜻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너는 지옥을 함께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생에서 천국이나 지옥을 느끼기 시작한다.

제2장.

이기심이라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수행의 목표: 낡은 사람을 벗어던지기

— 헤론다, 어떻게 하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 육체의 힘은 한계가 있어서, 모든 일에서 자기 부인을 실천하고 자기 희생으로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상한 마음이라. 상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리라.”¹⁶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는 자기애를 극복할 수 없다. 하

¹⁶ 시편 50:19

나눔께서는 네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니, 네게는 충분한 육체적 힘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애는 겸손함으로, 모욕과 불의를 참아냄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랑과 자비를 위해 약간의 육체적 노동을 더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오는지 아십니까?

— 헤론다, 육체적 노동과 수련, 그리고 정욕을 끊어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 육체적 노동은 몸을 영에 복종시킵니다. 금식도, 기도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 행하는 그 어떤 고행도, 그것이 내면의 정욕과의 투쟁을 동반할 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 시기, 분노와 같은 내면의 정욕을 뿌리 뽑지 않고, 단지 무분별하게 육체를 괴롭힐 뿐이라면, 그는 교만으로 자신의 정욕을 키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정욕은 우리에게 육체의 비만보다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육체의 비만은 양성 종양이지만, 마음의 정욕은 악성 종양입니다. 저는 육체적 수련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수련의 본질을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본질은 바로 낡은 사람을 벗어던지는 데 있습니다.

— 헤론다, 절제에서 어떻게 수련해야 합니까?

— 다음과 같이 수련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체에 필요한 것, 즉 수면과 음식 등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은 정욕, 이기심, 시기심 등 자신의 정신적 욕망을 끊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음식과 수면에서 절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육체적 수련은 정당화될 것입니다.

— 헤론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기심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사람은 스스로를 관찰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상인은 때로는 적게, 때로는 많이 달아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얼마나 놓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이 젊을 때는 더 엄격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무리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상태에 적응해야 합니다.

— 가끔 제 힘이 고갈되었다고 느낄 때면 두려움이 밀려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혹시 이건 이기심 때문일까요?

— 기력이 고갈되었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병 때문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병 때문이 아니라면, 어쩌면 수면 부족 때문일 수도 있으니, 음식을 더 많이

먹거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둘 다 아니라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일어나서 일에 매진하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 헤론다, 일할 때 지나치게 무리해야 할까요? 혹시 제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 아니야, 어리석은 아이야! 스스로를 잘 살피고, 네게 더 이상 힘이 남아 있지 않은 순간이 오기 전에 멈춰야 해.

—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 인생에서 성부들이 말씀하신 “피를 바치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¹⁷

— 네가 무슨 피를 바칠 수 있겠니? 너 자신도 피가 필요한데... 모든 주의를 영혼의 정욕에 집중해라.

편안함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 헤론다, 제가 ‘이 정도만 일할 수 있고 이것이 제 능력의 한계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말인가요?

—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나태해지고,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일을 통해 슬픔을 떨쳐내고¹⁸, 영적으로도 스스로를 돕는 것입니다.

목표는 사람이 안락함보다 불편함과 어려움을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아폰 산에서 어떤 장로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쁨을 느끼는지 여러분이 알기만 한다면! 내 거처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산 꼭대기의 가파른 비탈에 살던 한 장로의 자기 희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그 불쌍한 분은 아래쪽에 사는 장로님을 찾아가야 할 때면 네 발로 기어 내려가곤 했습니다. 수도원 측에서는 그를 돌보기가 더 편하도록 수도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자 모두들 “저분은 미혹에 빠졌구나”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장로님이 독방에서 혼자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와서 왜 수도원으로 가고 싶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예전에 그들의 거처에는 성당이 없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스승님께 성당을 지어 달라고 간청했고, 마침내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좋아, 지어 보자. 하지만 넌 이 곳을 떠날 수 없을 거야. 성당에는 수호천사가 있을 테니, 그 천사를 혼자 남겨둘 수는 없으니까.” 그는 절대 방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은 성당을 지었다. 결국 장로가 살던 방이 무너져 내렸고, 그는 성당에서 살게 되었다. 그곳에서 스타시디아에 앉아 잠을 잤다. 참으로 대단한 자기 희생이다! 나는 그에게 옷 몇 벌을 가

¹⁷ 아바 룽긴. 인용 출처: 『성인과 복된 교부들의 수행에 관한 기억할 만한 이야기들』: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3. 100쪽.

¹⁸ 원문: 고평이. — *번역자* 주.

저다주었는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병도 앓고 있었는데, 끊임 없이 복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아는 의사를 그에게 보냈다. 그 의사는 동료와 함께 갔지만, 그들은 이미 죽은 노인을 발견했다. 그는 담요에 몸을 감싼 채 스타시디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주님께로 떠나갔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삶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감동을 가져다줍니다. 신성한 기쁨은 육체의 고통에서 태어납니다. 성부들은 피를 흘리고 성령을 영접하셨습니다. 땀과 수고를 통해 은혜를 얻으셨습니다. 자신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을 되찾으셨습니다.

시나이 산의 성스러운 수행자들의 생애를 담은 시냇사리를 읽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시나이 산에는 5천 명의 수행자가 살았는데, 아토스 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었을까요! 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성화되었는지! 그리고 신앙을 지키던 이들과 순교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어려움 하나만 닥쳐도 불평합니다. 우리는 수고 없이 거룩함을 얻고자 한다. 자기 희생은 드문 일이다. 심지어 우리 수도사들조차도 선한 것은 수고를 통해 얻어지는 것¹⁹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변명하고 양형 감경 사유를 찾는다. 여기서 악이 비롯된다. 마귀는 모든 사람이 변명을 찾도록 돕고, 세월은 흘러간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육신을 지나치게 돌볼 필요도 없습니다. 병들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안락함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자신의 ‘나’를 아끼고 있습니까? —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 헤론다, 제가 금방 지치는 것은 단지 제 육체의 약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네, 만약 당신 안에 신성한 불꽃이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신성한 불을 얻을 수 있나요?

—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 저로서는 그렇게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 적어도, 네 자신을 생각하고 돌보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돌보려고 노력해 봐. 그러면 서서히, 좋은 의미에서 네 자신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생

¹⁹ 『위대한 천사상』의 기도문에는 “선한 일은 수고를 통해 얻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편자 주: 인용 출처: 『미트로폴리타 페트르 모길라의 예배서』. 키예프, 1996. 932쪽.

각하게 될 거야. 그때야말로 하나님도 너를 생각하시고, 사람들도 너를 생각하게 될 거야. 다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생각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

—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건가요?

— 물론이지! 네 ‘나’를 버려라. 버리면 너는 비상할 것이다. 그게 너에게 왜 필요한가, 누구를 위해 간직하고 있는가? 너 자신을 위해서인가? 네 자신에게 남겨두는 사랑의 일부는, 타인에게 가져야 할 온전하고 무한한 사랑에서 빼앗는 것이다.

— 헤론다, 어떻게 하면 제 ‘나’를 버릴 수 있을까요?

— 가능한 한, 네가 하는 일에서 ‘나’를 배제하고, 네 마음속에 타인을 모시라. 네가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것을 타인에게 내어주어라.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내어주고 또 내어주어라. 더 많이 내어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하게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깊이 사랑하실 것이며, 너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자만과 이기심으로 채워지기를 요구하는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영혼에 필요한 모든 양분을 공급하고, 육신을 신성한 변화로 바꾸며, 사람을 비물질적인 빛으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내가 말하는 바를 하루빨리 깨닫고, 자기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겠노라.

— 헤론다, 혹시 제가 자기애와 싸우더라도 제 행동에는 여전히 제 ‘나’가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모든 것은 당신이 어떻게 수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럽고 역겨운 것은 사람이 버리지만, 먼저 그것이 정말로 더럽고 역겨운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혐오감을 느끼지 못하면 버릴 수 없습니다. 낡은 사람을 버리려면 그에게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 마비된 다리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 게론다, 성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단련했는지 생각하면 양심이 찢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 사람이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분별력 있게 수련하며 자신의 능력 한계를 넘어설 때, 그때 그에게 초자연적인 신성한 힘이 내려옵니다.

— 헤론다, 아바 바르소노피가 “주님께서 당신에게 육체적 안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²⁰

— 그분은 이를 통해 스스로를 위한 안락이나 편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부정이 필요하며, 그 뒤를 이어 풍성한 신성한 은총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정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의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희생의 정신이 있을 때, 그는 신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자기 희생과 이웃을 위한 기도의 정도에 따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나는 스타브로니키타 수도원에서 티호노 신부님의 거처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곳에 정착할 준비를 하며 정리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²¹ 가는 길에 한 남자가 나를 멈춰 세웠다. 등 뒤에는 무거운 자루가 매여 있었고, 게다가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나는 서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미 어둠이 내린 후였는데도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내 방을 어떻게 찾지? 밤이고, 진흙투성이에, 길도 험하고, 횃불도 없는데.”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끊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에게 어디서 밤을 보낼 생각인지 물었다. 그는 옆 방에서 자겠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자정까지 서 있었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내 길을 갔지만, 방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에 발을 딛자마자 미끄러져 덩불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신발은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자루는 나뭇가지에 걸렸으며, 수도복은 목까지 올라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차라리 여기 머무는 게 낫겠다. 저녁 기도, 자정 기도,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어쩌면 날이 밝아 셀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 불쌍한 사람은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주여, 주의 크신 자비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구절까지 읽자마자, 뜻밖에도 마치 탐조등 빛처럼 강렬한 빛이 계곡 전체를 비추었다! 나는 부츠를 찾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오솔길이 환하게 비춰져 있었다. 나는 수도실에 도착해 자물쇠 열쇠까지 찾았는데, 그 열쇠는 너무 작고 멀리 숨겨져 있어서 대낮에도 찾기 어려웠을 정도였다. 성당에 들어가 그곳의 모든 등불을 켜다. 그러자 빛은 사라졌다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²⁰ 성 바르소노피우스와 요한의 수행 지침. 인용 출처: 『선행의 사랑』. 제2권.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2. 569 쪽.

²¹ 이는 1968년의 일이었다. - 편집자 주

2부.

교만 — 악의 뿌리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왜냐하면 교만은 나쁜 전도체이자, 하나님의 은총을 통과시키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절연체이기 때문이다”

제1장.

자만심 — 정욕의 총사령부

— 헤론다, 저는 시기심도 많고, 원한을 잘 품으며, 남을 비난하고, 화를 내곤 합니다...

— 질투, 비난, 분노, 원한 등은 모두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교만은 말하자면 모든 정욕의 총사령부입니다. 교만을 무너뜨리면 모든 정욕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마음에는 겸손과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교만에 집중하고, 그 방향으로 전선을 펼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갈라놓는 교만의 요새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원수가 한 나라를 점령하려 할 때, 수도에 주공격을 가합니다. 수도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면, 그 나라 전체를 점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헤론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와 닮았습니까?

— 이 성벽 너머에 있는 자, 곧 마귀와 닮았습니다... 비록 마귀를 이기는 것은 교만한 자를 이기는 것보다 쉽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겸손해지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교만한 자는, 설령 그 앞에서 겸손해지며 용서를 구한다 해도, 도저히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고 있어!”

겸손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내실이 더 풍요롭다. 교만한 자에게는 내실이 없다. 그는 미성숙한 이삭처럼 곧게 서 있지만, 성숙한 이삭은 고개를 숙인다. 교만으로 어두워진 사람은 내면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초조하고 시끄럽다. 그의 모든 행위는 마치 풍선과 같다. 마귀가 먼저 부풀려 놓았다가, 나중에 찢어서 풍선이 쿵 하고 터져 버린다.

교만은 부끄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사들을 악마로 변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낙원에서 쫓아내어 땅으로 내쫓았고, 이제는 땅에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느끼지 않을 때

— 헤론다, 저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자랑스러워할 때 자만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당신 안에는 전반적으로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종종 사물을 위장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교만 때문에 행동하고 있을 때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만심으로 행동할 때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자만심을 전부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 일부는 느낄 수 있으며, 이기적인 만족감이나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느낀다면 이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 만약 사람이 자신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 그때 영적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겸손해집니다. 다시 교만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계속됩니다: 교만 — 겸손, 교만 — 겸손. 이러한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영적 법칙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원하지도 않고, 스스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채 겸손해집니다. 이는 정체된 상태이며, 그 사람에게 단지 자신 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매에게 “이 성화가 정말 잘 나왔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녀가 자만한다면, 다음 번에 다른 성화를 그려야 할 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 성화화는 더 잘 그려서 장로님께서 다시 나를 칭찬해 주시게 해야지.” 그러다 보면, 성화 대신에 그녀에게서 나온 것은 캐리커처일 뿐입니다. 제가 그것을 고쳐 주면, 그녀는 다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따라 하면, 그분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캐리커처가 되어 버립니다.

— 헤론다, 혹시 그녀 스스로는 자신의 성화가 아주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녀 스스로는 그 엉터리 그림을 걸작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와서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말할 거예요. “이제 어때요, 게론다? 성화가 잘 나왔나요?” 제가 그 작품이 엉터리라고 설명해 주면 그때야 비로소 이해할 겁니다.

— 만약 이해하지 못하면요?

—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만심이 굳어져 버린 것이니, 그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 헤론다, 만약 제 이성으로는 교만을 느끼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감각하다면요?

— 그것부터 시작하면, 서서히 치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의사는 먼저 진단을 내리고, 그 후에야 치료에 착수하듯이 말이죠.

교만은 어디에나 스며듭니다

— 헤론다, 수도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때 사소한 어려움이 생기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로부터 유익을 느끼거든요. 혹시 이것에도 교만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 사람이 부주의하면,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기차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선로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양쪽에서 모두 유혹합니다. 어떤 이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건 마치 “여기나 저기서 어디로 넘어질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넘어질 수 있고, 저기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넘어질 수 있으며, 계단에서도, 의자에서도, 벤치에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가 필요한데, 자만심은 어디에나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 헤론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나요?

— 때로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에피루스의 스토미온 수도원²²에 살 때, 그곳에서 한 노목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결국 다른 목자가 그를 자신의 오두막에 머물게 해 주었는데, 그곳은 그가 염소들을 위해 나뭇가지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목동은 나뭇가지에 불이 붙지 않도록 그 노인이 불을 피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 노인은 추운 오두막에서 살았고, 구석에 놓인 두 장의 널빤지 위에 낡은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잤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를 찾아갔다. 그는 상태가 매우 나빴다. 나는 한 가난한 여성에게 그를 씻겨 주는 대가로 얼마를 원하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안 받아요, 비누만 주세요,”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또 다른 날, 나는 그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갔다. 식사를 마친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접시를 뒤집어 놓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신부님, 제 머리가 이거 참 대단하죠! “이건 개나 고양ی들이 핥지 못하게 접시를 뒤집어 놓은 거야.” 개나 고양이가 핥지 못하게 접시를 뒤집어 놓는 것을 그는 대단한 성취로 여겼습니다. 마치 우주로 날아간 것처럼 말이죠. 참으로 교만하군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자랑스러워했죠!

교만한 생각

— 헤론다, 우리에게 교만한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교만을 볼 때 비웃듯이, 우리도 교만한 생각들을 비웃어야 합니다.

— 그럼 겸손한 사람에게도 교만한 생각이 떠오르나요?

— 들지만, 그는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비웃습니다.

— 헤론다, 어디선가 교만한 생각은 음란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즉시 떨쳐내야 한다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²² 파이지이 장로는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코니체에 있는 스토미온 수도원에서 수행했다. - 편집자 주

— 부적절한 생각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지만, 교만의 생각을 알아차리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 중에 마음에 부정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어서 여기서 나가라.” 하지만 교회에서 ‘시편을 잘 읽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쫓아내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만의 생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그 순간에 겸손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준비하였으니 당황하지 아니하리라,”²³ —라고 선지자 다윗이 말합니다. 교만의 생각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오래된 속임수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다른 속임수를 쓰십시오. 교만을 앞지르기 위해 끊임없이 겸손한 생각을 가꾸어 나가십시오.

오직 겸손한 생각만이 겸손을 가져다주며,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교만이 사라진다. 한 설교자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아주 훌륭한 설교를 준비했다고 한다. 강단에 올라 설교를 시작했는데, 말솜씨가 정말 훌륭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그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울음을 터뜨리며 수치심에 휩싸여 강단에서 내려왔다. 그 후 그는 오랫동안 설교를 할 수 없었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 일은 네 교만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네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간 것이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강단에 올라갈 때가 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약 내가 말을 더듬게 된다면, 그것은 내 영적 유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조롱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만약 갑자기 다시 울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네가 감동해서 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유혹받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신의 일로 돌아가 겸손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언제나 모욕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2장.

교만은 다양한 형태를 띤다

숨겨진 교만

— 헤론다, 제 안에 숨겨진 교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²³ 시편 118:60

— 그것은 내면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은 내면의 교만과 어떻게 다른가요?

—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은 눈에 띄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을 가진 사람은 옷차림이나 걸음걸이, 말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몇 마디만 건네면, 어느새 고쳐지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숨겨진 교만은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깊숙이 숨어 있어 주변 사람들은 볼 수 없으며, 오직 경험 많은 사람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숨겨진 교만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주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교만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탕갈라슈카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 만약 사람이 숨겨진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느끼나요?

— 자신을 관찰한다면 느낄 수 있습니다.

— 제 생각에는 숨겨진 교만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서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을 달래고 있을 뿐입니다.

— 헤론다, 제가 숨겨진 교만을 알아차리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 네가 열성적으로 수련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네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네가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속삭인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그렇다면, 네 안에 교만이 있지만 네가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네가 느끼는 만족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숨겨진 교만이 사라지려면, 너는 이 거짓을 혐오하고 네 안에서 쫓아내야 한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을 가진 자들을 혐오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고쳐지도록 돕는다. 반면 내면에 숨겨진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그 자만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혐오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그것 또한 너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숨겨진 자만심이 밖으로 드러나 명백해지고, 그 후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기심 — 교만의 말썽꾸러기 아들

— 교만과 이기심은 서로 다른 정욕인가요?

— 교만, 이기심, 허영심은 모두 같은 정욕이지만, 그 뉘앙스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사탄적인 수준의 교만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이기심은 교만의 말썽꾸러기 아들이다. 이기주의자는 항상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의 압력에 굽히지 않다가 결국 부러지는 나무들처럼, 이기주의자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마를 부딪쳐 다친다. 이기심은 큰 악이다! 비록 이기주의자는 평안을 찾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리우스가 그렇다.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니?” “알아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에 따를 수는 없어요.” 아리우스의 이기주의는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 과연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자신의 이단에 끌어들인 것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일까?

— 그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인정하면,” 그가 말하길, “내 지지자들의 존경을 잃게 될 거야.” 그리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옳음을 설득하려고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기심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 헤론다, 이기주의자는 교만한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요?

— 이기주의자에게는 고집과 완고함이 있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어느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성화를 참배할 때는 차례대로 다가가는 데, 모두가 누가 누구 뒤를 따르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자매에게 이기심이 있어서 다른 자매가 그녀를 앞지르면, 그 자매는 화가 나서 성화를 참배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나를 앞질렀으니, —라고 말하며, — 나는 아예 경배하러 가지 않겠어.” 하지만 그녀에게 교만이 있다면, 그녀도 기분이 상하겠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예의인 양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세요! 당신도 가세요, 당신도!”

— 헤론다, 제 존엄성이 훼손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네 이기심이 상처를 입었을 때, 서둘러 그를 도와주려 하지 마라. 내버려 두어라, 저절로 죽게 내버려 두어라. 이기심이 죽으면, 영혼은 부활할 것이다.

— 그럼 이기심은 어떻게 죽나요?

— 자신의 ‘나’를 묻어야 한다. 썩어서 거름으로 변하게 하여, 그 위에서 겸손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라.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 게론다, 왜 저는 자만심에 쉽게 빠지게 되나요?

— 자만심에 쉽게 빠진다면, 그것은 네가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네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자신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여도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는 고혈압 환자처럼 사소한 일에도 교만해지는 것이다

— 헤론다, 제 마음이 또 식어버렸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 네 머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서, 거만함이라는 바람이 휩쓸고 다니기 때문이야. 내가 마개를 씌우고 조여도, 네가 그것을 뜯어내 버리거든. 이제 우리는 더 큰 마개를 씌우고 더 단단히 조여야 해. 이 결점이 없었다면 네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을 수 있었을지 아느냐? 우리가 주의를 잃을 때, 악마가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와 오만함의 날카로운 끝으로 우리의 머리를 찌르고, 풍선처럼 부풀려서 하늘로 날려 보낸다.

— 자신을 높이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 그렇습니다. 자신을 높이 여기는 사람은 교만의 안개 속에 갇혀 있어 영적인 건강도, 통찰력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사를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거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생각이 올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릿속의 나사 하나라도 살짝만 돌리시면, 우리는 즉시 헛소리를 지껄이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 벗어난 상태이며, 그런 사람은 미치광이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구름 위를 맴돌며 연료를 헛되이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만심

— 헤론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하는 자들의 수고는 헛되리라”²⁴는 무슨 뜻입니까?

— 이 말씀은 인간의 자만심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대수계식을 거행할 때 수계자에게 “이 모든 것을... 건뎌내겠다고 약속하십니까?”라고 묻자, 그는 “네,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다면.”이라고 대답합니다.²⁵ “네, 제가 혼자서 모든 것을 건뎌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제가 직접 할 것입니다, 제 힘으로 이러저러하게 해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설령 이마를 찢어지도록 부딪혀도 아무 것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²⁴ 시편 126:1

²⁵ 위대한 천사의 형상 예배 순서. 출처: 미트로폴리타 페트르 모길라의 예배서. 키예프, 1996. 937쪽.

— 헤론다, 제가 자매님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저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 그건 네가 자만심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파리가 아니라 허공을 잡고 있는 거야! 손을 들어 올리고는 파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잡았다!”라고 소리치지만, 주먹 안은 텅 비어 있어. 다른 손을 들어 올리지. “파리를 잡았다!”라고 소리치지만, 주먹 안은 또 텅 비어 있다. 먼저 주먹 안에 무언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잡았다**”라고 말해야 한다.

— 자매들은 제가 제 의견을 고집하기 때문에 저와 지내는 게 힘들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해요.

— 왜 그런지 알아? 네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지 않고, 네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야. 당신은 마치 남편이 ‘문어를 요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문어에게 측수가 하나 부족했던 그 주부 같아요. “자, 다 됐어? 문어 다 익었어?”라고 남편이 묻습니다. “무슨 문어? 일곱 측수 문어!”라고 아내가 대답합니다. “일곱 측수 문어가 아니라 문어야!” — “문어가 아니라 일곱 다리 문어!” 결국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집 센 아내에게 화가 나서 그녀를 우물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는 손가락으로 계속 일곱, 일곱, 일곱을 가리켰다! 그러니, 생각나는 대로 말하되,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는 마라.

— 하지만 저는 함께 일하는 자매들의 의견보다 제 의견이 더 옳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 당신의 자만심 때문에 사물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모든 일에 지나치게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주의와 자만심 때문에 결국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자신감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게는 네 것인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네가 하는 좋은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어리석은 짓은 네 자신의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당연히 자신을 믿지 않게 되고 자만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자랑

— 헤론다, 교만이 깃든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선행을 항상 자랑합니까?

— 공개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 안에는 숨겨진 자만심이 도사리고 있어! 며칠 전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왔는데, 온통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더니 자꾸만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말입니다”라고 끼워 넣더군. 계속 이야기만 늘어놓고.... “이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혹시 여기 네 영광도 조금은 섞여 있는 건 아닐까?” “아뇨, — 그가 대답하길, —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고민하는 바를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러 온 것이었지만, 사실 그는 온통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신이 행한 선행을 남에게 알리고 그 일을 자랑스러워하면 항상 손해를 보게 된다. 헛수고만 할 뿐, 심지어 비난까지 받게 된다. 사제가 되려고 준비하던 한 사람이, 서품식 40일 전에 외딴 수도원으로 은둔했다. 38일이 지난 후 그는 수도원을 나와 세상으로 나가야 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이틀을 더 머물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썼다. 그래야 서품식 전에 수도원에서 40일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나이 산에서 40일을 머물렀던 것처럼 말이다!²⁶ 그 후 그는 모두에게 “나는 성직 서품 전에 40일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은총이 임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20일이나 15일, 아니면 아예 하루도 머물지 않았더라면, 40일을 머물렀다고 자랑할 빌미를 만들지 않았을 테니, 오히려 더 많은 은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 헤론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되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말합니다.²⁷ 그런 자랑에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아니요. 어떻게 거기에 교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이 아니라 찬양이며,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큰 영광이자 은혜로 여긴다면, 거기에는 어떤 교만도 없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하고 경건한 부모를 주신 것을 특별한 축복으로 여기고 기뻐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세속적인 자랑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호감을 구하는 것

— 헤론다, 저는 종종 불만과 서운함을 느낍니다.

— 무슨 원망이 있나요?

— 글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존중을 보이지 않는 걸까?”

— 사람이 겸손과 사랑으로 무언가를 했는데도 이해를 얻지 못하면, 당연히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옳지는 않지만 말입니다(적어도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경할

²⁶ 출애굽기 34:28 참조.

²⁷ 고린도전서 1:31. 또한 로마서 5:11; 빌립보서 3:3을 참조하십시오.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인에게 인정을 요구할 때는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이는 이기심, 자기 옳음에 대한 확신, 남의 눈치를 보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가능한 한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한 아첨이나 허영심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람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세에서는 낙원의 복을 주십니다.

— 헤론다, 혹시 순수한 열정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섞일 수도 있습니까?

— 모든 것을 더럽히려는 마귀는 사람에게 아첨을 통해 사랑심 일부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건전한 야망, 즉 사랑심이 있지만, 스스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사람에게 아첨하는 태도에 물들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하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멍 난 양동이로 물을 퍼 올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남의 눈치를 보며 행하는 어떤 일도 헛된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는 즉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눈은 영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며, 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저는 제 행동 중에서 어디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고, 어디가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 순수한 것은 한눈에 보입니다. 사람이 신에 대한 사랑에 이끌릴 때는 내면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즉 내면에서 평온과 고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남의 눈치를 보는 마음은 영혼에 불안과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 헤론다, 제 마음속에서는 제 마음이 온전히 하느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 네, 그 마음의 일부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행실 하나하나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끼어들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만 수고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탕갈라슈를 위해 떼어내는 것 없이 받을 수 있고, 내면의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깨닫는 즉시 그것을 단호히 잘라내라. 만약 이러한 “선한 행실”²⁸을 실천한다면, 인간의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속적인 충동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유혹을 받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 헤론다, 제 영적 삶이 정체되어 있어 속상합니다. 매일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²⁸ 디모데전서 6:12

—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정욕을 떨쳐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영적 삶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니?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수녀들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인가? 가령,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교회에 오려고 노력한다고 치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옳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가장 먼저 와서 자매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영적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보다는 하나님께 호감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싶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²⁹

— 헤론다, 저는 항상 사람들의 눈에 실족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 맑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이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당신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호감을 얻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지에 대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는 더 높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남의 눈치를 보는 무거운 족쇄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될 때, 내면으로는 가장 달콤하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칭찬이라는 사탕

— 헤론다, 제가 칭찬을 들었는데...

— 그래서 뭐? 우리가 뭘 신경 써야 하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기가 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동기가 되실까요? 당신은 진지한 사람인데, 그렇게 경솔하게 굴지 마세요. 나도 종종, 심지어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곤 하는데, 그들의 칭찬을 들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나는 속으로 웃으며 그들의 칭찬을 멀리 내팽개친다. 너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말을 듣기만 하면 즉시 멀리 내팽개쳐 버려라. 그건 썩은 것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단지 내일이나 모레 헛소리하는 자들이 우리를 비웃을 뿐인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 기뻐하는 사람은 악령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²⁹ 참조: 갈라디아서 1:10

사람이 타락했다면, 즉 교만에 감염되었거나 교만에 빠지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세속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몸에 관한 것이든 영혼에 관한 것이든) 어떤 칭찬도 해롭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남을 함부로 칭찬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 그에게 해만 끼칠 뿐이며, 그는 파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마약과 같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게 된 사람은 첫 설교가 끝난 후, 설교가 잘 되었는지, 청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그를 격려하기 위해 “설교를 잘했어.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자만심에 빠지기 쉬운 설교자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만 의견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네, 설교가 좋았어요”라고 말하면 그는 기뻐할 것입니다. “보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하네”라고 생각하며 거만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설교가 별로였어요,”라고 하면 그는 괴로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탄갈라슈카가 칭찬이라는 사탕 한 알로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기 위해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칭찬을 듣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칭찬받을 때 기뻐하고 만족감을 느끼지만, 지적을 받거나 어떤 일을 잘하지 못했다고 들을 때 실망하고 기운이 꺾인다면, 이것이 세속적인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동요도 세속적인 것이며 그 기쁨도 세속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당신이 “이건 네가 잘 못 했어”라고 말하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그 자신의 실수를 깨닫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을 그다지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니 다음 번에는 잘 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일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그런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온통 엉터리 짓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헤론다, 칭찬받을 때나 꾸지람을 들을 때나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세상의 명성을 미워하게 된다면, 칭찬이든 비난이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허영

— 헤론다, 왜 제 마음속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 그것은 허영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높이 보이려고 애쓸 때,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허영심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텅 빈 곳이 아니라 새롭게 된 사람의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종종 미덕을 얻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자만심을 부추길 무언가 — 사회적 인정, 특권 등 — 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영혼에는 공허함, 즉 허영의 공허함이 생겨납니다. 충만함도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허영심이 커질수록, 영혼 속의 공허함은 더욱 커지고, 그들은 그만큼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 헤론다, 제가 제 일에서 느끼는 무거움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 겸손함으로 수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으로 수련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실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허영심이 동반된 영적 열망이 있을 때, 그때 영혼에 무거움이 생깁니다. 다른 정욕들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영적 상승을 그다지 크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갈라슈카가 우리를 허영으로 유혹할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좁고 위험한 오솔길을 따라가도록 강요하면, 바로 그때 우리는 영혼에 무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탄갈라슈카의 힘이 작용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영적 삶은 세속적인 삶과는 다릅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성공하려면 좋은 광고를 하고, 소위 말하는 전단지 배포하며, 사람들이 당신을 알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삶에서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람이 세속적인 명성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 헤론다, 허영심 어린 생각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습니까?

— 세속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것들에 기뻐하십시오. 오직 세속적인 것과는 정반대의 열망을 가질 때만 영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기뻐하십시오. 명예로운 자리를 원한다면, 벤치에 앉으십시오. 칭찬을 원한다면 — 비하당하는 것을 사랑하라. 그리하여 비하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영광을 원한다면 — 불명예를 추구하라.³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때, 비로소 네가 행복함을 깨닫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의 모든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네 안에 품게 될 것이다.

제3장. 교만의 결과

³⁰ 불명예: 명예와 영광의 상실. — 편집자 주.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 헤론다, 제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원인을 찾았나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저는 당신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도우셨던 것이죠. 어쩌면 그 때문에 교만에 빠졌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서 그분의 은총을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닐까요?

— 네, 헤론다, 아마 그럴 거예요.

—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룬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거두시어, 우리의 소망과 노력은 우리 자신의 것이지만 힘과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눈이 즉시 뜨이고, 우리는 겸손해지며, 자신의 타락을 뉘우치며 울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신성한 은총이 즉시 떠나버리나요?

— 당연하지! 네가 생각하기에, 천사였던 루시퍼가 악마로 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나?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사람에게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즉시 떠나간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겸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마귀가 와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악령들의 외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내면에는 영적인 어둠이 형성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므로, — 하나님이 금하시기를 — 큰 타락을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나쁜 전도체이자 절연체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어떤 일도 망치게 됩니다

— 헤론다, 저는 정말 부주의해서 남에게 해만 끼칩니다.

— 당신 안에 숨겨진 교만이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그에 따라 영적인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³¹ 무언가를 망치고 나서야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자만하는 자는 모두 낮아질 것이다.”³²

— 헤론다, 저는 다림질하는 게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남의 사제복을 태워버렸거든요.

— 십자가를 굿고 계속 다림질하세요.

— 혹시 그게 유혹이었을까요?

— 우리가 초래하는 해는 드물게 악마의 시기에서 비롯됩니다. 대개 그 원인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어떤 일도 실패하게 됩니다. 보아하니 당신도 교만한 생각을 품은 것 같군요.

— 그럼 왜 제복이 타버렸을 뿐,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 그 사제복은 남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네가 저지른 일을 알게 되어 네가 망신을 당했고, 그로 인해 겸손해졌습니다. 만약 네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네가 망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드러나 조롱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 헤론다, 사람이 무언가를 했는데, 그로 인해 유익 대신 해가 생긴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거나 선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 헤론다, 사람이 부주의로 인해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까?

—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해가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부에게 ‘나보다 접시를 더 잘 씻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식기 선반을 뒤집어엮어 모든 것을 깨뜨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유리 제품 가게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내가 선반에서 와인잔 상자를 얼마나 능숙하게 꺼내는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꺼내던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모든 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면, 가령 운전자가 길에서 불쌍한 노인을 보고 차에 태워 그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준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그 순간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다들 나한테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³¹ 파이지이 장로는 종종 영적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아폰의 장로 하지-게오르기』라는 책에 상세히 기록했다. — 편집자 주. 또한 참조: 파이지이 스바토고레츠 장로. 『말씀』. 제4권. 『가족 생활』. 모스크바, 2006. 273쪽. — 번역자 주.

³² 누가복음 14:11

말할 거야!”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버릴 것이고, 그는 전봇대에 부딪히거나 인도로 돌진하거나, 심지어 누군가를 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비상이 아니라 추락이 찾아온다

— 게론다, 제 열은 이미 내렸습니다.

— 좋아요, 열이 없어져서 정말 기쁩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영적 삶에서도 그 열기가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원인이 되는 교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교만이라는 것은 영적 열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심한 열병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강할수록 영적 열도 높아지는데, 이는 몸과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도 영향을 미쳐 열을 일으킵니다.

교만은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머리처럼,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듯이, 교만도 사람의 피를 모두 빨아들입니다. 교만은 영혼을 위해 마련된 모든 영적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영적 질식을 일으킵니다.

— 게론다, 제가 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 아마도 마음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속삭이기 시작하는 것 같군요. 그래서 나중에 추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비상이 아니라 추락이 일어납니다.

— 게론다, 제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항상 교만이 저를 괴롭힙니다.

— 모든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 선한 행동 속에도 마귀가 스며들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선언한다면, 그는 자신의 의도에 마귀를 끌어들이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조용히 선한 일을 행한다면, 마귀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 게론다, 스스로 영적 수련을 올바르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신비롭게,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해야 합니다. 영적 수련은 미묘한 일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은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영적 삶은 “과학 중의 과학”³³ 라고 성부들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냉철함이 필요한지요! 영적 삶에서의 상승은 난간 없는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면서 발밑을 살피지 않고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나 높이 올라왔

³³ 성 이시키오스, 예루살렘의 장로. 테오둘에게 보낸 절제와 기도에 관한 유익한 말씀. 『자비』 제2권에서 인용. 성 삼위 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2. 183쪽.

구나!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발을 헛디뎠다.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 그런데 왜 이 계단에는 난간이 없나요?

—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 게론다, 자만심이 사람의 영적 가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나태함, 무관심, 냉담함, 무심함의 상태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맛보면 교만해지기 시작하여, 자신의 행실로 인해 이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라! 보라, 내가 내 공로로 무엇을 얻었는지!”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자만심이 죽을 때까지, 좋은 의미에서 스스로를 절망하고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³⁴

교만은 사람을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 게론다, 왜 우리는 무명 속에서 살고 일하는 것이 그토록 달콤하고 쉬운데도, 항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의 선한 행실이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하며, 그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반면 교만한 사람은 얼마나 혐오스러운가!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그를 혐오하신다. 어린 아이들은 친구 중 누군가가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를 비웃기 시작한다. 반면 온화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아이들이 길에서 코를 치켜들고 걷는 사람을 보면, 곧바로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인지 눈치채고 뒤를 쫓아가 놀린다. 코니체에 살던 한 사람이 기억난다. 그는 끔찍한 빈곤 속에 살았음에도 매일 정장, 넥타이, 모자를 차려 입고 광장을 거만하게 거닐곤 했다. 아이들은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뒤를 따라가며 그의 걸음걸이를 흉내 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죠! 어른들은 자랑스러운 사람을 얼마나 더 잘 감지하는지 모릅니다! 모욕하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혐오감을 느낍니다.

³⁴ 요한복음 15:5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은 결국 조롱거리가 된다. 내가 시나이에서 살던 시절,³⁵ 사바라는 이름의 한 사제가 그곳에 왔던 일이 기억난다. 그는 다소 허영심이 많고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베두인족들이 무거운 물건을 수도원으로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끌 때,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 “사우아-사우아”라고 외쳤는데, 이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사바신부님은 그들의 외침을 듣고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사바’라고 외치다니! 이러니 다들 나를 아는구나!” 그는 베두인족이 “사바, 사바!”라고 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뇌가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법이죠... 사람의 자만심이 조금만 부풀어 있어도, 그는 모든 것을 과장되게 보게 됩니다.

— 사람은 자만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나요?

— 그는 허영의 포로이고, 상상력이 제 몫을 다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수도사가 나에게 말하길, 세속에서 살 때 한 번은 지인에게 비싼 망토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들은 우연히 같은 모임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바로 그 망토를 입고 있었다. 대화 도중 그가 갑자기 말하길, “이 망토가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파리에서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라고 했다. 그는 그 망토를 선물로 받은 사람 바로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 그 사람, 바보인가?

— 자만심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만심은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제4장.

교만을 타격하자

싸워야 하지만, 올바르게 싸워야 한다

— 게론다, 제 마음속에서는 만약 제가 담당 업무를 바꾸고, 성가대를 떠나며, 성화 그리기를 그만두면, 끊임없이 자만하고 유혹에 빠지는 일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설령 네가 노래하고 성화를 그리는 것을 그만둔다 해도, 허영심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물러난 곳에서도 교만이 있을 것이며, 오히려 더 큰 교만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너는 네 이기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순종을 포기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³⁵ 파이지이 장로는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시나이 산에서 수도 생활을 했다. — 편집자 주.

— 헤론다, 무언가를 하면서 자만하는 것보다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 네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가서 하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만약 걸려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나라. 부주의로 인해 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라고 하면 하되, 또 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다음 번에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누군가 “지난번에 넘어졌으니 가지 마라”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가지 마라. 알겠나?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하되, 올바르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일이다. 그것은 마치 부상을 입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고, 옆에서 전투를 지켜보는 것과 같다. 싸워야 하지만, 올바르게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자만심을 꺾어주는 건 네 형제야

— 게론다, 자매들이 저에게 지적을 할 때 저는 속상해합니다.

— 자만심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다. 네 형제가 네게 지적할 권리를 주고, 몇 마디 훈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그가 네 자만심을 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정화된다.

사람은 자신의 오만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우므로, 다른 사람들을 의사처럼 대하고 그들로부터 자신의 병을 치유할 모든 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이웃을 위한 약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의사는 환자를 연민과 사랑으로 대하고, 나쁜 의사는 악의와 증오로 대한다. 그리고 종종 후자가 사람에게 더 낫다. 바로 그런 외과의사의 메스가 더 깊게 파고들기 때문이다.

— 게론다, 저는 어리석어서 종종 왜 저에게 지적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 차라리 이렇게 말해라. “저는 똑똑하지만, 겸손함이 없습니다.” 너는 누군가 네 실수를 지적하면 변명하기 시작하잖아. 네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단지 헛되이 너를 비난할 뿐이라면, 어떻게 네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지적할 때 자신을 변명하는 사람은 겸손을 죽이는 것이다. 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립니다.

— 게론다, 저는 제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제가 오해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뿐인 것 같습니다.

— 네게는 자기 변명으로 드러나는 숨겨진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변명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용서해주세요”라는 말과 진심 어린 회개로 교만은 꺾인다.

— 오늘 한 아이가 아르콘다리크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³⁶ 어머니가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하셨는데, 아이는 “싫어”라고 대답했죠.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안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인격의 분열

— 게론다, 자만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 네 내면을 들여다보고, 너 자신을 알게 된다면, 그곳에서 너무나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되어 스스로가 역겨워질 것이다.

사람이 자기 인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그 안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사탄은 평생 동안(설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귀살의 장수를 허락하신다 해도) 그와 고양이와 쥐 놀이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이 교만한 생각을 심어주고, 때로는 사람이 겸손한 생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때로는 한쪽이 이기고, 때로는 다른 쪽이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한 줄기를 붙어대며 다룰 것입니다.

— 게론다, 저는 모든 자매들, 심지어 젊은 자매들조차도 덕행 면에서 저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봅니다.

—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았으니, 다른 이들이 겸손하게 만들었군요.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열, 아홉, 여덟, 일곱... 하나, 제로!” 제로에 도달하면 로켓이 발사됩니다. 너는 0에 도달했으니, 이제 위로 날아오를 거야. 물리학은 배웠니?

— 네, 헤론다.

— 이제 영적 물리학을 공부하고, 영적 인격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볼 때가 되었어.

— 어떻게요, 헤론다?

— 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깨닫고, 겸허해질 때 — 그때 네 인격의 영적 분열이 일어나고, 영적 에너지가 해방되어 너는 우주로 날아갈 것이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영적 궤도에 오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궤도에 머물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알아도 자기 내면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만약 먼저 자신의 내면 세계, 즉 자신의 인격을 안다면, 그 후에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쉽게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알게 되면, 저절로 그의 인격이 분화되고, 그는 지구의 중력권 밖,

³⁶ 아르콘다릭 — 그리스 수도원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방. — *번역자 주*.

세상의 유혹 밖에서 영적 궤도를 돌기 시작한다. 비록 그는 인간으로서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죄의 유혹이나 세속적인 욕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 사람 안에 교만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인가요?

— 네, 아직 그의 인격에 영적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겸손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 물론이죠! 교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을 알게 되면 교만은 사라질 것입니다. 깨달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겸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함 속에서 자신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 그런데 깨달음은 있지만 겸손함이 없다면요?

— 그러면 호의나 호감 같은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와 겸손한 마음가짐

— 게론다, 제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 조금은 있죠. 적어도 자부심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있어야 합니다...

— 그럼 허용되는 자만심의 정도가 있나요?

— 능력이나 지식 등을 갖춘 사람이 조금만 자만한다면, 그에게는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만이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능력도 지식도 없는 사람은 자만할 권리가 없으며, 그저 겸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만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망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환자에게 페니실린 주사를 놓아 열이 내리면 자만한다. 하지만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발견 후 그는 미국을 방문했다. 사람들은 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그도 박수를 쳤다가, 곧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박수를 치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 박수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자 당황해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은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는데, 주사를 놓는 간호사는 거만하게 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리 대제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지닌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귀중한 자질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상해 주십니다.

때로는 높은 계급을 가진 군인들에게서 어떤 겸손함이 보이는 반면, 평범한 기동대원들에게는 또 어떤 오만함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기동대 상사가 제 방에 찾아왔는데, 참으로 거만하게 굴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경찰이야,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가 전 경비대의 수장이었다 해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반면 부유하고, 지위가 높으며, 재능이 있으면서도 그런 겸손함과 소박함을 지닌 사람들도 있다. 높은 계급을 가진 군인들은 예우를 피하기 위해 군복을 입지 않는다. 기억나는 게, 전쟁에서 많은 훈장을 받은 한 장군이 퍼레이드에 나갈 준비를 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또 이 훈장들을 몸에 달고 다녀야 하다니....” 반면, 훈장이 단 하나의 뱃지뿐인 다른 장군은 훈장을 보여주기 위해 항상 제복을 입곤 했다. 넓은 갈룬까지 달아놓아서, 규정에 따라 갈룬은 정해진 너비여야 했기 때문에 거의 징계를 받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 그러니까, 누군가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건가요?

—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나 드러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네 것으로 삼지 마라

— 게론다, 저는 제게 있다고 생각되는 신체적 능력과 영적 재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랑스러워하느냐? 네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느냐?³⁷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네 것으로 삼지 말고, 네게 없는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내가 낙심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몇 가지 은사를 주셨다. 이제 나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위해 이 은사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나의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너는 네가 가진 모든 은사들을 네 것으로 여기지만, 과연 그것들이 정말로 네 것일까? “네가 받은 것 외에 무엇이 있느냐?”³⁸ 바로 여기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기 위해 머리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그 능력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서 떠나기만 하면, 빗더미에 앉아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어쨌든, 재능은 있지만 겸손함이 없어 도발적인 행동으로 이웃을 모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강제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그의 머릿속 나사를 조금 풀게 만듭니다. 가령, 누군

³⁷ 참조. 열왕기하 19:15; 느헤미야 9:6; 에스더 4:17; 이사야 37:16; 예레미야 39:17.

³⁸ 고린도전서 4:7

가 큰 돌을 옮기려는데 지혜가 부족해 옮기지 못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더 현명한 다른 사람이 다가와 말합니다. “어떻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는 쇠지레를 집어 들어 지렛대로 삼아 쉽게 돌을 움직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 나사를 조금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들은 말문이 막혀서 나중에 한 마디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설교자가 거침없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제동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러한 은사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뒤쳐진 사람을 볼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졌다면, 지금쯤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은사를 발전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 것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것으로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을 해치지 않기 위해 더 큰 은사를 주지 않으실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단순함과 겸손함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은사들도 주십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행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힘드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분께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부가 있지만, 우리를 해치지 않기 위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파리처럼 여기며 오만한 행동으로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면, 그들은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만하게 굴 것이다. 주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고통받는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의 주인이시니, 우리를 뱀이나 전갈, 거북이, 노새, 당나귀로 지으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노새로 지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나쁜 주인에게 팔려가 150킬로그램이나 되는 짐을 싣고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뱀이나 전갈로 지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거북이, 돼지, 개구리, 모기, 파리 등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주어진 재능에 부응하고 있는가? 아니다.” 만약 사람이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비록 사람들에게는 의인으로 보일지라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토록 많은 재능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영적 정점에 도달하여 매일 수천 가지 기적을 행할 때조차도, 그의 마음은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합당한지 살펴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이 생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며, 겸손이 그에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내세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³⁹

제3부.

정죄 — 가장 큰 불의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게 심판하시니, 오직 그분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알지 못한 채 ‘겉모습’으로, 즉 겉으로만 판단하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부당하게 비난한다.”

제1장.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⁴⁰

정죄는 불의로 가득 차 있다

— 게론다, 저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 네 판단력은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은사이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악마가 너로 하여금 정죄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네 판단력이 정화되고 거룩해지기 전까지, 신성

³⁹ 마태복음 25:21

⁴⁰ 마태복음 7:1

한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네 자신의 의견을 믿지 마라. 사람의 판단력이 정화되지 않은 채 남의 일에 참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끊임없이 비난에 빠지게 된다.

— 그런데 판단력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 그것을 정화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선한 의지와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항상 올바르게 판단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판단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 이타심을 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신성한 깨달음이 찾아오고, 당신의 판단이 영적이고 신성한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 네 판단은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신성한 정의에 부합하게 될 것이며,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조화를 이룰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게 심판하시니, 오직 그분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알지 못한 채 “겉모습”으로, 즉 겉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부당하게 비난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심판은 가장 큰 불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⁴¹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사물의 진정한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수년 전 아토스 산의 한 수도원에 경건한 집사가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도원을 떠나 세상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수도원 신부님들은 그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누군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자매들이 아직도 생계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고, 그는 자매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떠났다. 그는 한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수도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 자매들의 생활을 안정시키자마자 그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갔다. 수도원장은 그가 규칙과 순명 등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는지 물었다. 그때 그는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도원장은 주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주교는 즉시 그를 사제로 서품했다. 그 후 그는 멀리 떨어진 한 수도원으로 떠나 엄격하게 수행하며 성덕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도 그를 비난하고 있을지 모른다.⁴²

우리는 비난에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비난할 때, 그에게 얼마나 큰 불의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난을 그 무

⁴¹ 요한복음 7:24

⁴² 이 경우, 이 사람의 행동은 교회의 규범과 교회 질서와 상충되며 옳다고 볼 수 없다. 파이시이 장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무리 옳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공평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예를 들었다. — 편집자 주.

엇보다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지만, 비난은 불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죄에 이르게 되는가

— 게론다, 왜 저는 자주 정죄에 빠지게 됩니까?

—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생겨 한 자매는 무엇을 하고, 다른 자매는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죠. 험담하는 자들이 할 거리를 찾아내고 당신을 정죄로 몰아넣을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제는 눈치채고 정죄하게 되네요...

— 이제 네가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는 건, 네 자신의 단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 게론다, 비난하는 생각은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 자만심, 즉 교만과 자기합리화하려는 성향에서 비롯됩니다.

— 게론다, 비난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가요?

—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 때도 있고, 경멸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타인의 실수에 대해 관대함을 베풀 수 없게 되고, 마음속으로 타인을 비하하고 모욕하게 됩니다. 그러다 ‘탕갈라슈카’가 나타나 그들을 또 다른 실수로 몰아넣고, 당신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그들을 비난한 뒤, 결국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 게론다, 가끔은 함께 일하는 자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서, 저는 그녀를 비난하곤 합니다.

— 그 자매가 지금 몇 명의 ‘탕갈라슈카’와 싸우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어쩌면 그녀에게 50명의 악마가 달려들어 이기려고 애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네가 나중에 “아, 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말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네가 그녀를 비난한 것을 보면, 이번에는 500명의 악마가 몰려와 네 앞에서 그녀를 다시 모욕하여, 네가 그녀를 더 심하게 비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자매님, 그 물건을 거기에 두지 마세요. 제자리는 여기예요.”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날 그 자매는 네가 한 말을 잊어버린 척하며 물건을 예전 자리에 놓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면, 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어제 내가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짓을 하다니! 게다가 다른 일들도 저질렀어!” 이 때 당신은 그녀를 비난하게 되고, “언니, 거기에 그걸 두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 이건 엉망이야. 네 행동이 나를 유혹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악마가 제 몫을 다한 것입니다! 네가 그녀를 비난하게 만들고 그녀와의 관계를 망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네가 자신의 부주의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른 채, 너를 당황

하게 했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슬픔에 빠질 것이다. 보라, 탄갈라슈카가 얼마나 교활하게 활동하는지,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있다.

그러니 누구도 비난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오직 천사였던 자들이 악마가 되어, 회개 하기는커녕 점점 더 교활하고 사악해지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피조물을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탄갈라쉬들만을 비난하십시오. 교활한 자는 사람들에게 기이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혼란을 일으키며,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죄하는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양쪽 모두를 정복합니다. 그러나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나중에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지만, 정죄하는 다른 이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오만해지며, 교활한 자가 넘어진 것처럼 — 교만 때문에 — 넘어집니다.

정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 헤론다, 누군가를 향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이 항상 정죄인 것입니까?

— 그 순간에 그걸 깨닫지 못하나요?

— 가끔은 뒤늦게 깨닫곤 해요.

— 네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깨닫도록 노력하고, 비난했던 자매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비난은 기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비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은 저절로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냉랭함이 스며든다. 그 후 어떻게 기도하겠느냐? 마음은 얼음처럼, 돌처럼 굳어진다.

정죄와 비방은 가장 무서운 죄이며, 그 어떤 죄보다도 강력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멀어지게 합니다. “물이 불을 끄듯이,” 성 요한 사다리꾼이 말하듯이, “정죄는 하나님의 은총을 끄게 됩니다.”⁴³

— 게론다, 저는 아침 예배 중에 잠이 듭니다.

— 혹시 어떤 자매를 비난한 건 아닐까요? 당신은 사물을 겉모습만 보고 남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 후 예배 중에 잠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난하고 사물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잃게 되면, 잠이 오거나 반대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 헤론다, 저는 종종 폭식으로 죄를 짓습니다.

— 지금 당신은 모든 주의를 비난하는 습관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탐식에서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스스로 밀어내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

⁴³ Ἰωάννου του Σινάϊτου. Κλίμαξ. Αθηναι, 1969. Σ.145.

닫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 헤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제가 자매의 어떤 결점을 비난하면, 나중에 제가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건가요?

— 누군가 다른 사람을 어떤 일로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타락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대개 자신도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타락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람이 비난했던 대상의 상태를 그대로 흉내 내도록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 대해 ‘이 사람은 탐욕스럽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비난한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총을 거두시고 당신도 탐욕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재물을 모으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영적 법칙이 작용할 것입니다.

이 점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제 삶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토미온 수도원에 머물던 시절, 제 동창 중 한 명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제 수도원으로 찾아오라는 생각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성경과 성부들의 글에서 회개에 관한 몇 가지 구절을 발췌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녀가 모든 것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수녀원에 자주 오기 시작했고, 성당을 위해 양초와 성유, 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어느 날 코니차에서 온 순례자이자 제 지인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헤론다, 이 여자는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초와 향을 가져오면서, 도시에서는 여전히 장교들과 어울리고 있다.” 그녀가 다음에 수도원에 왔을 때, 나는 성당에서 그녀에게 소리쳤다. “여기서 나가, 네가 주변을 온통 악취로 물들였어!...” 불쌍한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시간이 지나자 나는 강렬한 육체적 유혹을 느꼈다. “이게 뭐지? 나한테는 이런 유혹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하밀로 올라갔다.⁴⁴ “차라리 곱게 잡아먹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높은 곳까지 올라갔지만 유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허리띠에는 작은 도끼가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어 고통으로 인해 유혹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다리를 세 번 내리쳤다. 부츠 안으로 피가 흘러내렸지만, 유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득 내 머릿속에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오, 하나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잠시만 겪었을 뿐인데,

⁴⁴ 가밀라 — 핀도스 산의 봉우리 이름. — 편집자 주

그녀는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제가 그녀를 정죄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곧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기운을 느꼈고, 유혹은 사라졌다. 보라, 정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⁴⁵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대하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도 관대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 헤론다, 오늘 올리브를 따는 동안 몇몇 자매들이 일에 소홀히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 알다시피, 판단과 비난은 그만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비난하실 것이다. 너는 조금 상한 올리브를 좋은 올리브와 함께 넣는 일이 한 번도 없느냐?

— 아니요, 넣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 만약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그렇게 꼼꼼하게 가려내신다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관대하게 대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천국의 어느 구석이라도 두어 주십시오!” 『오테치니크』에 기록된, 게으른 수도사가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명랑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때 장로는 다른 방에서 모인 수도사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여,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게으르게 살았지 않습니까?” 형제는 그에게 대답했다. “제가 게으르게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수도사가 된 이후로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려 노력했기에, 이제 저는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여, 저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적어도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받지’⁴⁶ 라는 당신의 계명은 지켰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복이 있소.” 노승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수고 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말ियो.”⁴⁷

— 헤론다, 어떤 신자들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곧장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방탕함 때문에 지옥에 갈지 모르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정죄 때문에 지옥에 갈지 모릅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그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단정할 수

⁴⁵ 파이시이 장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순교조차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타올라 극한의 금욕적 수행과 고통의 인내로 이끌었다. 이러한 행위의 동기는 육체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성인들의 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참조: 성 마르티니아노의 행전, 2월 13일). 파이시이 장로는 사람의 정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떠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지, 결코 이를 육신의 유혹과 싸우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 편집자 주.

⁴⁶ 마태복음 7:1

⁴⁷ 참조: 《토 메가 게론티콘》(Τὸ Μέγα Γερωντικόν). 제1권. 테살로니키, 1994. 344쪽

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연과 같습니다.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을 빼앗아, 스스로를 신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때 가서야 우리의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

제2장. 정죄와의 투쟁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본다면, 남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 헤론다, 제가 봉사 현장에서 무질서를 보면 마음속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 네 자신의 질서를 잘 지키고, 남의 무질서는 보지 마라. 남에게 엄격하기보다 자신에게 엄격해라. 오늘 넌 뭘 했니?

— 먼지를 닦았어요.

— 다른 사람의 먼지를 닦았니, 아니면 네 자신의 먼지를 닦았니?

— 유감스럽게도 다른 사람들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 봐, 네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자기 계발을 시작하게 될 거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남을 쳐다보는 것을 그만두면, 오직 자신의 단점만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은 눈치채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 좋은 의미에서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게 되고, 오직 자신만을 비난하게 될 거야. 자신의 죄성을 느끼고 자신의 약점을 펼쳐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약점을 보게 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과연 나는 내 약점을 극복한 것일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숨겨진 교만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지켜보며, 내면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별력 있는 자기 책망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바로잡힐 것이다.

— 헤론다, 아바 이사악은 이렇게 썼습니다. “순결을 사랑한다면... 네 마음의 포도원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고, 네 영혼 속의 정욕을 근절하며, 인간의 악을 알지 않으려 노력하라.”⁴⁸ 그가 무슨 뜻으로 말한 것입니까?

—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스스로를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성인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오직 자신의 정욕만을 보았습니다. 자기 비난과 자기

⁴⁸ 인용 출처: 아바 이사악 시린의 수행자적 말씀. 모스크바, 1993. 262쪽

책망 덕분에, 그들의 영혼의 눈에서 장막이 걷히자 맑고 깊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모든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점을 크게, 타인의 결점은 작게 보았는데, 이는 세속적인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 대해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들의 영혼의 눈은 정화되어 예리해졌기에, 자신의 결점인 ‘가지’를 마치 ‘통나무’처럼 보게 되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결점이 통나무처럼 크더라도, 그것을 나뭇가지⁴⁹처럼 보거나 아예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우리에게 남의 죄는 크게 보이지만, 우리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맑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눈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맹인에게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나무처럼 보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⁵⁰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완전히 돌아오자 그는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영적 경지에 이르면, 사람은 모든 것을 맑게 보고, 타인의 모든 결점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옹호한다면,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

— 제게 교만과 비난의 생각이 들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변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타락인가요, 아니면 투쟁인가요, 게론다?

— 투쟁입니다. 사람이 입을 벌리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입 안으로 파리가 날아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파리를 뱉어내겠지만, 애초에 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헤론다, 종종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비난하곤 합니다.

—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형 사유를 보고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선한 모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 게론다, 예배 중에 왜 한 수녀는 성가대에 나오지 않는지, 왜 다른 수녀는 목소리를 낮게 내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끊임없이 비난하게 됩니다.

— 왜 그 자매가 피곤했을 수도 있거나, 어딘가 아파서 잠을 못 자서 노래를 못 부르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아파서 열이 나고, 간신히 발을 끌며 걸어도 순종 임무를

⁴⁹ 마태복음 7:3 참조

⁵⁰ 참조: 마가복음 8:24

수행하러 가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애쓰는 자매들을 알고 있다. 그래야 순종에서 면제 되지 않고, 다른 자매가 그 자리를 대신해 두 사람 몫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네 마음을 움직이지 않느냐?

— 마음이 움직이긴 하지만, 수녀님이 무례하게 행동할 때 항상 그녀를 변호할 수는 없어요.

— 수녀가 자신의 미덕을 숨기기 위해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나요? 저는 자신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험담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수녀가 피곤해서 무례하게 굴었을 수도 있지만, 곧바로 회개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행동에 대해 회개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비천해 보이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높습니다.

— 게론다, 저에게는 어떤 편협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변호해 주지 못하거든요.

— 실수하는 사람을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이토록 많이 주었는데, 어째서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느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 계발을 위한 기회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너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었으나 네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겸손해질 것이다. 동시에 너처럼 그런 기회가 없었던 형제에게 사랑과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도 불량배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가령 어떤 범죄자가 스무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저는 그를 비난하지만, 그의 과거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쩌면 어릴 때부터 도둑질을 하러 보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 수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며 노련한 도둑들에게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20건이 아니라 40건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지만, 참아냈습니다. 반면, 저 같은 경우 타고난 기질과 교육 환경을 고려하면 지금쯤 기적을 행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나? 아니,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설령 내가 20개의 기적을 일으켰다 해도, 사실 40개는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 다시 말해, 나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비난을 떨쳐내고, 굳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린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 게론다, 제가 남을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정말로 항상 네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는 걸까? 아니지. 그럼 이렇게 말해 봐: “나는 항상 옳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자주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틀렸던 적이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누군가를 비난했는데, 알고 보니 헛된 판단이었고 그 사람에게 불공정하게 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 생각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추측에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판단에서 실수했던 사례들을 떠올린다면,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틀리지 않고 의견이 옳았다고 해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양형 감경 사유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나도 젊었을 때면 비난의 말이 항상 입에 붙어 있었다. 나는 꽤 신중하게 살았고 일종의 경건함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비난하곤 했다.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 때, 타인의 결점만 보고 미덕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덕을 갈고닦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게 살기 때문에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난동을 부리는 다른 사람들은 보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제대로 걷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은 잘못된 곳을 쳐다보고...

저에게 한 번 있었던 일을 아시나요? 저는 지인과 함께 코니차에서 도보로 약 9시간 거리에 있는 모노덴드리 수도원의 예배에 갔습니다. 성당에서 지인은 성가대석으로 갔고, 나는 시편가들 뒤의 스타시디에 서서 조용히 따라 불렀다.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꽤 젊은 여성이 성당으로 들어와 내 옆에 서서 나를 유심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나를 쳐다보며 십자성호를 긋고, 또 쳐다보며 십자성호를 긋고... 나는 화가 났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 내가 생각했다. — 왜 자꾸 쳐다보는 거지?” 나는 내 자매들이 길가에서 내 곁을 지나갈 때조차 쳐다보지 않았다. 자매들은 나중에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불평하곤 했다. “아르세니⁵¹ 가 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 “그게 말이 되냐,” 어머니가 나중에 나에게 말했지, “길에서 네 자매들을 만나고도 인사도 안 하다니!”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매든 아니든, 다 쳐다볼 순 없잖아,” 내가 대답했지. “우리 친척이 한가득이잖아.⁵² 나한테 할 일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여동생이 지나가는데도 나는 그녀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미사가 끝나자마자, 그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알고 보니 나는 전쟁에서 전사한 그녀의 아들과 매우 닮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

⁵¹ 장로 파이시의 세속 이름. — 편집자 주.

⁵² 파이시가 장로에게는 일곱 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다. 그 당시 그의 세 명의 언니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 편집자 주.

가 교회에서 나를 쳐다보며 십자 성호를 긋던 것이다. 내가 그녀의 아이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저, 양심도 없이 교회에서 저렇게 쳐다보다니!”라고 비난했었지. 그 일 이후로 나는 마음이 무척 불편했다. “너는,” 내가 스스로에게 말했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아들을 잃었고, 슬픔에 잠겨 있단 말이야!”

또 다른 때는 군대에 있던 내 동생을 비난한 적이 있다. 중대 보급관이 나에게 말했다. “네 동생에게 기름이 든 양동이 두 개를 줬다. 어디 있나?” 나는 동생이 군대 동료들을 우리 집에 데려와 하룻밤 묵게 했던 일이 떠올랐다. “어떻게 기름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나는 생각했다. 앉아서 형에게 날카로운 편지를 썼다... 그런데 형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통은 아래쪽 교회 경비원에게 물어보라!” 알고 보니 형은 코니차 아래쪽 교회에 기름을 보낸 것이었다. “축하한다,”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때는 불쌍한 여자를 비난했고, 이번에는 친형까지 비난했구나. 이제 그만! 다음부터는 아예 판단하지 마라. 넌 비정상적인 사람이라서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그 후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면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마도 이건 좋은 일일 텐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왼쪽에서 오는 생각을 몇 번이나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가 틀렸던 걸.” 제가, 좋은 의미에서, 제 자신을 증오하게 되자 모든 사람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항상 변명을 찾아냈고 오직 저 자신만을 탓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잘 살피지 않는다면, 심판의 날에 자신을 변호할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비난을 끊어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⁵³

그러니: 좋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STOP. 비난하는 생각에 STOP. 아멘.

마음과 영혼이 정화되고 거룩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4부.

이기심과 교만의 자식들

질투 — 분노 — 슬픔

“사람이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다른 모든 이들의 성공을 주실 것이며,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기뻐하는 만큼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의 성공과 기쁨은 엄청날 것이다”

⁵³ 아래의 문장들은 파이시이 장로가 한 수련생에게 전보로 보낸 것이다. — 편집자 주.

제1장. 질투의 독

질투는 주요 정욕 중 하나이다

— 게론다, 저는 한 자매를 부러워합니다.

— 네가 어떤 자매를 부러워하는지 알고 있다... 게다가 그녀도 너를 부러워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너희 둘 다 열심 있는 엘리야를 부러워하게 되어, 그가 너희에게서 질투심을 몰아내고 신성한 열심을 주시기를 기원한다. 아멘.

— 헤론다, 제가 질투심이 들기 시작하면 상황을 논리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 차라리 처음부터 질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질투는 우스운 감정이야. 사람은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조금만 쓰면 돼. 큰 업적이 필요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질투는 마음속의 열정이기 때문이지. 자, 질투가 너를 지배하게 두지 마. 질투는 가장 큰 감정 중 하나니까. 질투가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알아? 악의와 중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리고 중상은 악의보다 훨씬 더 큰 악이야.

— 그럼 질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 그 안에 없는 게 뭐가 있겠어!.. 자만심, 이기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사랑도 없고, 당연히 겸손함도 없지.

— 그렇다면, 게론다, 시기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건가요?

— 물론,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 안에 질투와 사랑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에게 약간의 사랑이 있다 해도, 그 사랑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속에는 그의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사랑과 선함을 망가뜨리고 쓸모없게 만듭니다. 마치 죽은 쥐가 진흙 항아리에 떨어졌을 때 기름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 헤론다, 저는 제 안에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데 어떻게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 만약 제가 자매가 가진 것을 원한다면요?

— 하나님께서 “네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⁵⁴ 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설마, 기본적인 계명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은 지옥으로 변해 버릴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나니...”⁵⁵ — 주님의 형제인 성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러한 정욕들은 지옥에서 영혼들을 괴롭

⁵⁴ 출 20:17

⁵⁵ 야고보서 1:14

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도 우리가 시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곳에서도 평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무모한 욕망을 품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여자의 강한 사랑을 망가뜨립니다

— 게론다, 왜 질투라는 감정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 여성은 본성상 많은 자비와 사랑을 지니고 있는데, 마귀가 그녀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마귀는 그녀에게 독이 든 질투를 심어주고 그녀의 사랑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오염되어 악의로 변하면, 그때 여자는 벌에서 말벌로 변해 잔인함에서 남자를 능가하게 됩니다. 남자에게는 원치 않는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감정적으로 창조하신 여자에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즉... 확실히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죠!

질투와 고집이 섞인 여성의 악의는 악마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여성은 질투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녀는 자신의 강한 사랑이 순수해지도록, 사랑에서 자신의 ‘나’를 제거해야 한다.

— 어떻게 하면 이를 이룰 수 있나요?

— 사소한 마음을 극복하고 영적인 용기, 영적인 고귀함, 그리고 희생정신을 키우면 됩니다. 고귀함은 질투의 해독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귀함을 지닌 사람은 드뭅니다.

질투는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

— 헤론다, 저에게는 대담함이 전혀 없습니다.

— 질투하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질투하면 괴로워하고, 밥도 못 먹고, 시들어 가며 담대함을 잃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영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느낍니다.

— 너에게는 힘이 많지만, 그 힘을 어리석은 질투에 낭비하고 있어. 비록 네 안에 타고난 고귀함이 있지만, 너는 가장 비천한 거지처럼 고통받고 있구나. 질투에 발목이 잡히지 않았다면 영적 삶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을 텐데. 조심해라. 질투는 네가 하느님께 바칠 수 있었던 모든 영적·육체적 힘을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질투를 떨쳐낸다면, 네 기도에도 힘이 솟아날 것이다.

질투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힘을 잃습니다. 왜 사도들이⁵⁶, 그리스도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받았고 이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들만을 산으로 데려가 그들 앞에서 변모하셨기 때문입니다.⁵⁷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수도 있었지만, 모두가 그런 신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분이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한을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하셨다고요? 아닙니다. 다만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큰 수용력을 지녔고, 그의 “배터리”가 더 컸습니다. 시기심이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앗아가 버려, 그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했던 것을 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더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⁵⁸

자신의 재능을 물어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능을 시기하는 사람이다

— 계론다, 시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정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것을 발전시킨다면, 질투하지 않게 될 것이며 마치 낙원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능은 보지 못하고 오직 타인의 재능만 보며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스스로를 소외되고 박탈당한 존재로 여깁니다. 괴로워하며 자신의 삶을 악몽으로 만듭니다. “왜 그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고 나에게는 없는가?”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재능이 있는 법입니다. 카인과 아벨을 기억하십니까? 카인은 자신의 재능을 알아보려 하지 않고, 아벨이 가진 재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형제에 대한 악의를 키웠고, 결국 하나님께도 반역했으며,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⁵⁹ 하지만 어쩌면 그는 아벨보다 더 큰 재능을 가졌을 지도 모릅니다.

—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고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⁵⁶ 마태복음 17:16; 마가복음 9:18; 누가복음 9:40 참조

⁵⁷ 마태복음 17:1; 마가복음 9:2; 누가복음 9:28 참조

⁵⁸ 마태복음 17:17. 마가복음 9:19; 누가복음 9:41 참조

⁵⁹ 창 4:3-8 참조

— 자신의 재능을 묻어두지 않고 발전시킨다면, 그때서야 타인의 재능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한 자매를 지켜보아 왔는데, 그녀는 목소리도 좋고 경건함도 갖추고 있지만 성가대에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묻어두고 노래하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그리 좋지 않은 다른 자매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속이 뒤집힙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좋은 목소리를 주셨지만, 그것을 갈고닦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에게서 부러워하는 그 재능이 자신에게도 있지만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른 재능을 주신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부족함을 주지 않으셨으며, 각자에게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르듯이, 한 사람의 재능도 다른 사람의 재능과 다릅니다. 울타리 아래에서 자라는 야생 완두콩에 주목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뿌리는 하나지만, 각 싹마다 색이 다르고, 하나하나가 서로를 능가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색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새들! 각자 나름의 아름다움과 지저귀미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찾아, 교만하게나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그 재능을 소홀히 여겼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그 재능을 키워 나가기 바랍니다.

— 그런데 저는 저에게는 없는 재능을 가진 몇몇 자매들을 부러워해요.

—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토록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부러워하니? 넌 코니체에 사는 한 제과점 주인의 딸을 떠올리게 하네. 아버지는 매일 그녀에게 작은 조각의 케이크를 주셨는데, 큰 것을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학교에서 큰 옥수수 전병을 먹는 아이들을 보며 그들을 부러워했지. “그 아이들은 큰 조각을 먹는데, 나한테는 아빠가 작은 조각만 주시네,”라고 그녀는 말했지. 다른 아이들이 먹는 옥수수 전병을 부러워했는데, 정작 그녀에게는 케이크로 가득 찬 제과점이 있었던 말이야! 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위대한 은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만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 피조물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며,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드라크마 한 개나 두 개를 주지 않으셨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그

분은 우리에게 무려 백 드라크마를 주셨습니다.⁶⁰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 드라크마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분이 다른 이들에게 주신 한 두 드라크마가 더 마음에 들어서, 우리는 울며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께 서운해합니다.⁶¹

좋은 질투

— 헤론다, 저는 한 자매가 부럽습니다. 그 자매에게 겸손과 소박함, 경건함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 제가 그녀가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녀가 죽기를 바라나요?

— 아니요, 헤론다! 저는 다른 사람의 미덕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마음속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미덕을 갖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좋은 점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그럼 우리가 나눠서, 각자 반씩 가지도록 하자! 걱정하지 마. 네 질투는 좋은 질투야. “큰 은사”를 부러워하는 거잖아...⁶²

— 그러니까, 좋은 질투도 있다는 건가요?

— 그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미덕을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해 기뻐한다면, 그 질투는 좋은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속상해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몰래 기뻐한다면, 그 질투는 나쁜 거야. 가령, 네가 언니를 부러워한다고 치자. 언니는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이다. 만약 언니가 목이 쉬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네가 기뻐한다면, 그것은 네 질투 속에 악과 독이 있다는 뜻이다. 만약 속상해한다면, 그것은 네 질투에 악이 없다는 뜻이며, 단지 너도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을 뿐인 것이다.

—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질투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 그럼 너를 ‘선한 질투를 가진 이’라고 부르자!... 네 질투를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것이 선한 질투가 되도록 노력해라. 성공하는 자매를 위해 기뻐하고, 그녀를 본받으려 노력해라. 그러면 너는 영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미 이 생에서 사람에게 천상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네 안에 머무를 것이다.

— 게론다, 혹시 사람의 선한 질투가 나쁜 질투로 변할 수도 있나요?

— 사람이 스스로를 단련하지 않는다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⁶⁰ 100 드라크마 — 지폐. — 편집자 주

⁶¹ 파이시이 장로가 한 자매에게 보낸 편지에서; 1968년. — 편집자 주.

⁶² 고린도전서 12:31

— 게론다, 저는 자매의 성공을 보며 느끼는 감정을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질투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만약 그 자매가 기적을 행했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또는 “만약 그녀가 유혹에 빠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면, 나는 기뻐할까, 아니면 걱정할까?” 이 질문에 답하면, 네가 품고 있는 질투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자, 말해 봐. 네가 부러워하는 자매가 게을러져서 수도자としての 의무를 아예 다하지 않고, 직접 기도하지도 않은 채 녹음기에 카세트를 넣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네가 속상해할까?

— 네, 속상하겠지만, 그녀가 점점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역시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있잖아, 네가 걷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빨리 달리는 사람을 보고 기뻐해야지, 속상해해서는 안 돼.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자매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도록,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해야 해. 제가 수도원에서 수련생으로 지낼 때,⁶³ 그곳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또 다른 수련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러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는, 위대한 수행자이자 신앙의 수호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매우 경건했습니다. 선배 수도사들은 그가 지나갈 때 존경의 표시로 일어서곤 했습니다. 나는 그 수련자로부터 그전까지 읽었던 모든 책보다 더 큰 유익을 얻었는데, 그가 살아있는 본보기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내 가슴이 아팠다. 마침 그때 그 형제가 내 방에 들어왔고, 나는 그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아직 떠나기도 전에 통증이 이미 사라졌다. 또 다른 날, 귀신 들린 사람이 수도원에 와서 신부님들께 자신을 치유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때 원장님은 그 수련생에게 말했다. “자, 기도해 봐. 이 불쌍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해.” “신부님의 기도를 통해,” 그가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그가 자리를 뜨자마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대담한 믿음을 가졌는지 보라! 그가 얼마나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렀는지 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그 형제가 자신이 딴 성인의 경지에 이르도록, 그리고 내가 그 성인의 경지에 이르도록 기도했다. 너도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다른 이들의 성공을 기뻐하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다른 모든 이들의 성공을 주실 것이며,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기뻐하는 만큼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의 성공과 기쁨은 엄청날 것입니다.

⁶³ 1953년, 에스피그멘 수도원에서. — 편집자 주.

제2장.

분노 — 하나님의 평화의 적

분노를 정욕을 향한 무기로 삼자

— 헤론다, 저는 분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수도사에게 분노가 얼마나 부적절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 분노, 순수한 분노는 영혼의 힘입니다. 본성상 온유한 사람에게 이 성격적 특성이 영적 완성에 도움이 된다면, 성미가 급한 사람에게는 그의 성격 속에 내재된 그 힘으로부터 두 배나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그가 그 분노의 힘을 정욕과 악마를 대적하는 데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가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 힘을 이용할 것입니다. 본성상 온화한 사람이 용기를 기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성미가 급한 사람이 큰 일을 결심하고 자신의 분노를 악을 향해 돌린다면, 그 일은 이미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영적 삶에서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마음 속에 약간의 무모함이 깃든 사람들이다.

— 그렇다면, 게론다, 저는 자매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화를 내야 했겠군요.

—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만, 그 후 수련을 거듭하면 탄갈라슈카에게 화를 내게 되고, 마지막에는 오직 자신의 낡은 사람, 즉 자신의 정욕에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 자매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오직 탄갈라슈카와 자신의 정욕에만 화를 내도록 노력하십시오.

— 헤론다, 제 분노와 고집은 어린아이 같은 정욕인가요?

— 아니요, 애야! 어린 아이가 화를 내며 발을 구르고 “싫어, 안 할 거야!”라고 소리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건 버리고,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천진난만함만 간직해야지,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음까지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도대체 어디까지 가버리는지! 분노에 차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행히도 신께서 사람들의 머리를 튼튼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어떤 사람들은 옷을 찢어대기도 해! 매일 화가 나면 셔츠를 찢어대던 사람이 있었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 옷을 조각조각 찢어 버렸지.

— 그러니까 분노란 악의를 풀어버리는 것입니까?

— 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보다 자신의 낡은 육신에 화풀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화를 내는 걸까

— 제 생각에는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매우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만약 화를 터뜨린다면, 당신 안에 분노의 정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이 피곤하거나, 어딘가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짜증 난 나머지 거친 말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사만 받아도 “제발 좀 내버려 둬!”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 비록 상대방이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라 단지 “안녕하세요”라고만 했을 뿐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피곤하거나 아파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당나귀라도 짐을 너무 많이 싣게 되면 발로 차게 마련이니깐요.

— 내 마음속에 평온이 없을 때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곤 합니다.

— 네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네가 영적으로 쇠약해져 있다는 뜻이며, 네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사람이 아플 때는 때로 말소리조차 지치게 만든다.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에게는 냉철함도, 인내심도, 관용도 없다.

— 게론다, 왜 저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나요?

— 화를 내는 이유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의 분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왼쪽’에서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만약 ‘오른쪽’에서 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에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고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 하지만, 게론다, 항상 바로 저만 잘못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 네 안에 숨겨진 자만심이 있는 것 같구나. 조심해라. 분노에는 자기합리화, 자만, 조금 함, 건방짐이 담겨 있으니까.

— 헤론다, 요즘 사람들은 왜 사소한 일에도 그렇게 쉽게 짜증을 내는 걸까요?

— 요즘은 파리조차도 짜증을 내요! 파리들도 고집이 세고 끈질기죠! 예전에는 파리를 쫓아내면 날아가곤 했는데, 지금은 고집스럽게 붙어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오늘날 어떤 활동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래 차분한 사람조차도 신경질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 왜 지금은 수도원에서 살면서 화를 내지 않는데, 세속에서는 심하게 화를 냈을까요?

— 종종 외적인 이유로 인해 사람은 불만을 느끼고 폭발하곤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짜증은 마치 곁에 낀 먼지처럼,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찾게 되면 사라집니다.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⁶⁴

— 헤론다, 분노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롭고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선지자 모세는 계명이 적힌 돌판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로 그 돌판을 땅에 내던져 부숴버렸습니다.⁶⁵ 호리브 산(⁶⁶)에 올라가 계명을 받아야 했던 모세는, 그곳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호리브 산 정상에서 번개를 보고 천둥 소리를 직접 들었지만, 모세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자신들을 이끌어 줄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겠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줄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론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결국 양보했습니다. 백성들은 일을 시작했다. 용광로를 짓고,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이집트인들이 준 모든 금을 그 안에 던져 넣었으며,⁶⁷ 온통 금으로 된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었다. 그들은 그것을 큰 돌 위에 세우고 술을 마시며 즐기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끌 것이다”라고 백성들은 말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라. 백성이 나를 배반했으니.” 시나이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함성을 들었다. 산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가 말했다. “무슨 일이야?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어!” “이건 전투의 함성이 아니라 즐거움의 소리입니다,” — 모세가 대답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으며 즐기고 있었다! 보라, 그 송아지는 황금이었다!.. 모세는 분노하여 계명이 적힌 돌판을 땅에 내던져 부숴버렸다.

영적인 사람은 화를 내고, 분노하며, 소리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영적인 이유 때문일 뿐이다. 그 안에는 악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 — 선지자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마음을 다잡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⁶⁸

— 게론다, 제가 어떻게 분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⁶⁴ 시편 4:5

⁶⁵ 출애굽기 32:1-24 참조

⁶⁶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시나이 산의 또 다른 이름. — 편집자 주.

⁶⁷ 출애굽기 11:1-3; 12:36-37 참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인들에게서 은과 금 그릇과 옷을 빌려왔다. 그들은 이를 돌려줄 수 없었는데, 곧 이집트인의 만아들이 죽임을 당하자 파라오가 두려워하여 서둘러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쫓아냈기 때문이다. — 편집자 주.

⁶⁸ 시편 118:60

— 중요한 것은 분노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유는 제때 불에서 내리지 않으면 끓어 오르다가 금세 넘쳐버립니다.

—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분노에 이르지 않을 수 있나요?

—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잘 살피고 분노를 억제하여, 그 정욕이 당신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도끼로 베어내려고 해도 끊임없이 새 싹을 틔울 것입니다. 선지자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라. “나는 준비하였으니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수도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느냐? 그는 방에서 나올 때마다 십자 성호를 긋고 말 하곤 했다. “나의 하나님, 저를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소서.” 그는 유혹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치 파수꾼처럼 서 있었던 것이다. 유혹이 어느 쪽에서 올지 지켜보며,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그에게 나쁜 짓을 해도,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응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 게론다, 가끔 유혹에 빠질 때면 저는 스스로에게 “입을 다물어야지”라고 말하지만, 막 상 끝날 무렵에는 참지 못하고 실수해 버립니다.

— ‘터져 버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터져 버린 것은 나중에 어디로 가나요? 타버리나요? 보아하니 당신에게 겸손이 부족한 것 같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까지 갔다가 결국 터져 버리는 것이죠. 조금만 더 겸손해져야 해. 말을 하기 전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예수 기도를 두세 번 읽어보렴. 어떤 여인은 화가 났을 때, 먼저 ‘신경’을 외우고 나서야 입을 열곤 했지. 세속적인 사람들이지만, 보라, 얼마나 열심히 수련하는지!

— 자매 중 한 분의 행동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 자매를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사랑으로 그녀를 변호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꾸준히 좋은 영적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정욕이 당신에게 닥쳤을 때, 당신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머물 곳이 없음을 깨닫고 사라질 것입니다.

겸손과 침묵으로 우리는 분노를 이깁니다

— 게론다, 사람은 어떻게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까?

— 겸손과 침묵으로 우리는 분노를 이깁니다. 왜 우리는 뱀을 지혜롭다고 부를까요? 비록 뱀에게는 독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작은 소음만 들려도 즉시 기어 도망칩니다. 뱀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우리의 분노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말로 너를 건드려도 대답하지 마라. 침묵으로 너는 그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한 번은 내 방에서 디카스라는 고양이가 개구리 새끼를 목 졸라 죽이려 했다. 개구리 새끼는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디카스는 그를 내버려 둔 채 떠났다. 그

개구리 새끼는 침묵과 온유함으로... 고양이를 이겼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디카스는 그를 붙잡아 북처럼 던지고 때렸을 것이다.

— 저와 여동생이 의견이 엇갈려 각자 자기 주장을 고집할 때면,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 저는 짜증이 나곤 합니다.

— 보시다시피, 둘 중 한 명은 마음을 낮추고 양보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두 사람이 긴 판자를 작은 문으로 들여놓으려 한다면, 그중 한 명이 먼저 들어가고 다른 한 명이 그 뒤를 따라야 해: 그렇지 않으면 판자를 들여놓을 수 없지. 각자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 그것은 마치 돌을 돌에 부딪치는 것과 같아 — 불꽃만 튀어오를 뿐이야!.. 파라스(Faras) 주민들은⁶⁹ 누군가 고집을 부릴 때면 “네 염소는 암염소가 되고, 내 염소는 새끼 염소가 되게 하라”고 말하곤 했다.⁷⁰ 그렇게 해서 다툼을 피했던 것이다. 어쨌든, 양보하는 쪽이 결국 이기는 셈이다. 무언가를 희생함으로써 기쁨과 평화를 얻기 때문이다.

— 그런데 겉으로는 올바르게 행동하며 양보하지만, 속으로는 분개하고 있다면요?

— 그것은 그 안에 낡은 사람이 아직 살아 있어서, 그와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 하지만 헤론다, 왜 그는 겉으로는 올바르게 행동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 어떻게 그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평화를 누리려면 내면적으로도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와 불안이 사라지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분노의 안개가 사라지고, 마음의 눈이 맑아지며, 사람은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평화를 이루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⁷¹

제3장.

영혼을 해치는 슬픔

기쁨은 그리스도에게서, 슬픔은 마귀에게서 온다

— 게론다, 요즘 제가 심하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 왜 그리 슬퍼하느냐? 네 배들이 침몰했느냐? 어디로 보냈느냐? 대서양으로? 이 날씨에 배를 향해 보내다니? 몇 척이나 침몰했느냐?

⁶⁹ 파라사 — 카파도키아에 있는 작은 마을로, 파이시이 장로의 고향이다. — 편집자 주.

⁷⁰ 암염소는 새끼를 낳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 편집자 주.

⁷¹ 마태복음 5:9

— 전부, 헤론다, 침몰했어요.

— 훌륭하구나, 그럼 네게 재산이 없으니 훌륭한 수녀가 될 수 있겠구나! 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가? 네게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슬퍼한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슬퍼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다. 설령 네게 아픈 곳이 있다 해도, 그 아픔은 그리스도께서 달래 주시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쓰라린 슬픔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슬픔을 그리스도께 가져가면, 그것은 달콤한 넥타르가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슬픔을 안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쁨은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슬픔은 마귀에게서 온다. 여러분이 알기라도 한다면, 마치 수익을 빼앗긴 식료품점 주인 같은 표정을 지은 수도사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슬픔, 즉 기쁨을 낳는 눈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때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의 침묵과 침착함은 그의 마음속에서 꿀을 흘러나오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면,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싶어집니다.

—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슬픔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괴로워하고 있다고 치자. 만약 그가 그리스도를 슬프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한다면, 마음속에서 달콤한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달콤함과 신성한 위로를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슬픔이다. 반면 사람이 끊임없이 슬픔에 잠겨 있고, 두려움과 절망을 느낀다면, 그 슬픔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슬픔은 영적인 기쁨이며, 마음에 위로를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슬픔은 반드시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 헤론다, 만약 영적인 사람이 어떤 이단자가 자신의 이름을 빌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 때문에 속상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⁷²

— 이러한 슬픔은 정당합니다.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람은 슬퍼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오, 주님, 사람들이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는 평온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둥대며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이름을 빌려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어쨌든, 사람이

⁷² 질문을 한 수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잘못된 견해로 이끌기 위해 파이시아 장로의 이름을 악용했던 사례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 편집자 주.

스스로 잘못된 것이 없고 양심이 맑다면,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를 괴롭힌다 해도 그는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기심은 언제나 슬픔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 게론다, 저는 선생님을 속상하게 했던 제 실수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슬픔에 휩싸입니다.

— 그만해,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그건 너에게 슬픔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더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은 너에게 나쁠 게 없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모든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 그분께서는 성인을 두셨고, 이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수호천사를 주셔서 그분을 보호하게 하셨으며, 이를 위해 영적인 사람들을 세우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 제 실수에 대한 슬픔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게론다. 그래서 수련하는 데 지쳐버렸습니다.

— 그것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기력이 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겸손도, 회개도, 통회도 없고 오직 이기심만 있을 뿐인데, 이기심은 언제나 슬픔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사람에게 회개가 없을 때,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남의 눈치를 보는 태도, 타인의 눈에 실족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때 그 안에는 불안과 쓰라림, 고통이 깃들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람이 타락한 후 심하게 괴로워한다면, 그 원인은 항상 이기심 때문인가요?

—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는 열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질투와 열성 때문에 심하게 괴로워할 때, 그로 인해 큰 위로를 얻게 되는데, 이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북돋아 줍니다.

— 하지만 제가 열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열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반면, 이기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기심이 상처받으면 사람은 빠져서 말을 끊어버리죠... 오늘 저는 두 자매에게 실수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둘 다 속상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성실함 때문에 상심했는데, 자신의 실수로 나를 슬프게 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기심 때문에 상심했다. 첫 번째 사람은 부끄러워서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반면 다른 한 명은 자신의 평판을 망치지 않으려고,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

하지도 않은 채 바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 가치를 떨어뜨렸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평판을 망치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내 실수를 변명해야 할까?” 만약 그녀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면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변명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데, 마귀는 다가와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슬픔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죄책감을 스스로 짊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합시다. 평안을 주는 겸손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슬픔과 두려움, 좌절을 가져오는 이기심을 택할 것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슬프다

— 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는 것일까요?

—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두려움과 괴로움,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건강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새로운 터무니없는 요구를 내세우고, 투덜대며 불평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갈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모든 것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불만을 품고,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며 괴로워합니다. 가령, 그가 태양을 싫어하는데, 바르다리스⁷³)라는 북풍이 불기 시작해 추위를 몰고 온다면... 태양을 싫어했으니, 이제 추위에 떨게 되는 것이다.

— 게론다, 이 말씀으로 무엇을 뜻하시는 건가요?

—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하면, 우리를 웅크리게 만드는 시련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건대,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 끊임없이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 생에서 자신의 빛이라도 일부라도 갚기 위해 하나님께 매를 맞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매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은 내세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단번에 갚아야 할 테니까요.

— 그러니까 불평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⁷³ 바르다리스는 테살로니키 북서쪽, 악시오스 강을 따라 부는 매우 강하고 차가운 바람이다. — 편집자 주

— 습관이 됩니다. 불평 뒤에는 또 다른 불평이, 원망 뒤에는 또 다른 원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원망을 뿌리는 자는 원망을 거두며 두려움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찬양을 뿌리는 자는 영원토록 신성한 기쁨과 축복을 누립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그의 뒤를 바짝 쫓아오니, 그의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선물로 뒤를 쫓아오십니다.

불감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죄하신 큰 죄입니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⁷⁴ — 그분은 감사를 드리러 온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열 명의 나병 환자들에게서 감사를 기대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들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탕갈라슈카는 우리가 슬퍼하기를 원한다

— 게론다, 왜 제 기쁨이 갑자기 슬픔으로 바뀌는 건가요?

— 기쁨에서 슬픔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대개 유혹에서 비롯됩니다. 사악한 탄갈라슈카는 사람과 싸우는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본성적으로 명랑하며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일입니다. 그는 우리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우리가 탄갈라슈카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기쁨이 슬픔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악의보다 낫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저는 가끔 이유도 모른 채 슬픔에 빠지곤 해요.

— 탄갈라슈카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는 슬퍼할 이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슬프게 할 방법을 찾아내죠. 당신에 관해서는, 그가 당신을 실망으로 이끌려고 하며, 점점 더 미묘한 실로 당신을 얽어매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 만약 그가 너를 밧줄로 묶는다면, 이리저리 얽어매는 식이라면, 그래도 슬퍼할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너에게는 가느다란 실이 굵은 밧줄처럼 보이고, 그래서 너는 괴로워하는 거야. 이유 없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하면 탄갈라슈카를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를 슬프게 할 뿐이니깐.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기를 바라나요?

— 아니요, 헤론다, 하지만...

— “하지만” 따위는 없어요! “지옥아, 슬퍼하라!”⁷⁵ “슬퍼하라!”라고 말하세요.

⁷⁴ 누가복음 17:17

⁷⁵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대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전하는 설교.

— “슬퍼하세요!”

슬픔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힘을 고갈시킵니다

— 게론다, 저는 배가 자주 아파서 수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 넌 늘 앉아서 자신의 생각과만 대화를 나누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며 쓸데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니,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 것이다. 그런 고통이 또 한 번 찾아오면 배까지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일을 할 힘이 어디 있겠느냐? 약을 마셔 통증을 없앨 수는 있겠지만, 슬픔을 떨쳐내지 못하면 배가 다시 아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당신에게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물을 올바르게 바라볼수록 당신 안에는 더 큰 평안과 안정이 깃들 것이며, 그만큼 더 건강해져서 약을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든다.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력을 빨아들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영혼을 오염시키고 몸에 혼란을 일으킨다. 몸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공격하여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그 두려움으로 사람을 지치게 한다. 낙담의 독은 체질이 약한 사람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한 사람도 쓰러뜨릴 수 있다. 여기 한 수녀가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도 훌륭하고, 순종에 있어서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수도원 전체를 이끌 수도 있을 텐데, 낙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원동력인데도, 아무 쓸모 없이 가만히 멈춰 서 있습니다.

영적 용기로 나약함을 몰아내라

— 게론다, 제가 수행 중에 어려움이 연이어 닥칠 때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 바로 그런 어려운 순간에야 비로소 인간의 힘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어려움을 당당히 맞서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적 용기를 구하십시오.

— 최근 제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 느끼는 슬픔이 제 영적 힘을 완전히 앗아가고 있습니다.

—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넌 예전에 있던 곳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있어야 할 곳에는 이르지 못했구나. 나는 네가 곧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며, 마치 사자가 거미줄을 찢어 버리듯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적 연약함의 마지막 족쇄를 끊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영적 기개로 연약함을 몰아내라. 나는 기다리며 기도할 것이다. 네 성공을 지켜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게론다, 제가 영적인 의무를 소홀히 할 때면, 저를 슬픔이 감쌉니다.

— 무언가를 소홀히 했다는 슬픔과 성취한 일에 대한 기쁨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기심이 섞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좋은 시작을 하고, 영적 투쟁의 순서를 정한 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더 큰 꾸준함을 얻게 될 것이며, 위장한 적이 일으키는 이러한 기복이 멈출 것이다. 수도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 영적인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힘을 활용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하지만 연약함에 갇혀 버린다면, 너 스스로 끝없이 한탄하게 될 것이며, 그 동안 탄갈라슈카는 손뼉을 치고 있을 것이다.

— 게론다, 제게 힘이 부족한 건가요?

— 추진력과 열정이 필요해!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용기와 담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서는 불쌍한 수녀들이 아니라, 영적인 솔리오키⁷⁶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용기를 가지고 탄갈라슈카와 싸우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 낙담의 해독제

— 게론다, 제 안에 어떤 정욕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 “주님, 가장 큰 것이 사라졌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내가 네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바라보며 “아침 경비부터 밤까지”⁷⁷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되뇌일 것이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풍성한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찬양하십시오. 비록 조금일지라도, 자신의 노력 때문이든 타인의 도움 때문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공하도록 도우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겸손한 마음, 성실함, 그리고 열정이 어우러지면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힘과 신성한 은총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만약 제가 다시 넘어질 것을 안다면요?

—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예전의 실수를 반복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나친 꼼꼼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속삭여 낙담하게 된다면,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⁷⁶ 솔리오키: 에피루스 지역 마을 연합인 솔리의 주민. 솔리오프들과 솔리오프카들은 알리 파샤(1792-1803)와의 투쟁에서 특별한 영웅심을 보여주었다. — 역자 주.

⁷⁷ 시편 129:5

말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이 격려가 허황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라는 위대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은 절망을 뒤엎고, 영혼을 낙담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사람의 영적 힘을 강화하여 그 안에 거룩한 낙관주의를 일깨워 주는 지렛대입니다.

— 게론다,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모든 것을 하느님의 위대한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하느님께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서는 위로받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불평으로 스스로 줄이지 않는다면, 큰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어떻게요, 게론다, 지금 저는 제 안에서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찬양으로 살아갈 때, 그는 모든 것에 기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수도사들을 비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두인족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즐겁습니다.⁷⁸ 그들은 밑에서 돌을 골라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갈아내므로, 그들의 빵은 온통 돌투성이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에는 필요한 미량 원소나 칼슘 등이 부족한 듯하여, 이들의 치아는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보라, 이빨이 단 하나뿐인 베두인도 마치 그 이빨이 진주처럼 빛나는 것처럼 기뻐한다. 다른 사람은 이빨 하나만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는 그 때문에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낀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밤낮으로 끊임없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함을 의미한다.

한 주교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당에서 한 집사가 게르게세 지역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복음서 구절을 읽을 때,⁷⁹ 주교석 뒤에 서 있던 한 평범한 신자가 계속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되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게르게사 지방에 이르셨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신자가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다” —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매우 사나웠다” —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자 양 떼가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다” —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 나중에 주교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 소박한 사람이 옳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말했던 것이 옳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말이 악령들을 바다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여

⁷⁸ 파이시이 장로는 시나이에서 지냈던 시절(1962-1964)에 대해 이야기한다. — 편집자 주.

⁷⁹ 마태복음 8:28-34 참조

러분도 끊임없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반복하십시오. 양 떼가 바다로 뛰어들 때까지...

찬양은 주변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찬양하며 사람은 감사함 속에서 자신을 잊고, 좋은 의미에서 이성을 잃으며, 모든 것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이때 마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제2장. 미덕

“미덕에서 비롯된 영적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은 신성한 은총으로 빛난다. 미덕을 함양함으로써 사람은 신성함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빛을 발하므로 신성한 은총이 그를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미덕을 기르는 일

— 헤론다, 사람은 언제 신성화에 이르게 됩니까?

— 신성한 은총이 그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기쁨이 깃들어 있나요?

— 그 안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큰 사랑, 겸손, 위로, 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느님께서 지니신 그 속성들이 있으므로, 하느님의 은총이 그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 “신들의 신”이란 무슨 뜻입니까?⁸⁰

— 다윗이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⁸¹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신들의 신, 즉 사람들의 신이십니다. 사람은 신성화에 이르러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우리 중 누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⁸⁰ 시편 49:1

⁸¹ 시편 81:6

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분과 닮아가는 정도는 줄어들며, 즉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본질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과 닮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정욕에서 정화되고 미덕을 얻게 되며, 그때 그는 더 이상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신성한 은총이 작용하기 때문에 “닮음”의 상태로 넘어간다.

“덕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⁸²

— 게론다, 저는 제 성인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 저는 당신이 하느님의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 “젊은이가 어떻게 자기 길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⁸³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산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탄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⁸⁴

— 헤론다, 아바 이삭이 ‘그리스도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개혁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⁸⁵

—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회개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덕을 기르고 영혼의 건강을 얻습니다. “덕을 행하는 것,” 아바 이삭이 말하길, “그것이 곧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⁸⁶

— 헤론다, 아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전념하기 위해 용감하고 위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⁸⁷

—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

⁸² 인용 출처: 『아바 이사악 시린의 수행자적 말씀』. 모스크바, 1993. 148쪽

⁸³ 시편 118:9

⁸⁴ 참조: 요한복음 8:39; 요한복음 8:44

⁸⁵ 참조: 아바 이사악 시린의 수행자적 말씀. 모스크바, 1993. 148쪽

⁸⁶ 같은 책 참조

⁸⁷ 인용 출처: 『선행에 대한 사랑』 제1권.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2. 427쪽.

하시는지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 내가 하는 일은 마음에 들지만,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 —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라.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혹한 길을 지켰나이다.”⁸⁸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가치는 외부로부터의 강요 없이 자유롭게 얻어지는 미덕에 있다. 사람은 미덕을 자신의 필요로 느끼고, 그 후에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낯은 사람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믿는 사람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히 지키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 가게 되며, 비록 구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샘에서 직접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다.

모든 미덕은 가꾸어 나가야 한다

—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미덕을 지닐 수 있을까요?

—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예를 들어, 소박하고, 차분하며,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재능이지만, 사람은 이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영적 수련을 통해 그는 영적인 은사, 즉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게론다, 추론 능력은 하느님의 은총인가요, 아니면 영적 수련을 통해 사람이 점차 습득하는 미덕인가요?

— 이렇게 말해 주마. 분별력은 은사다. 하지만, 가령 네게는 그 은사가 없고 다른 어떤 은사가 있다고 치자. 자신의 은사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분별력과 다른 미덕들도 함께 발전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네게 부족한 미덕들을 채워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절제라는 영적 수련에 힘쓸 때, 동시에 침묵, 주의력, 기도, 분별력 등을 가꾸게 된다.

왜냐하면 미덕과 정욕은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발전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미덕을 가꾸면 미덕이 자라나 정욕을 누르겠지만, 정욕을 가꾸면 정욕이 자라나 미덕을 누르게 될 것이다. 만약 양쪽을 모두 가꾼다면 양쪽 모두 자라나 혼란이 생길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꽃과 잡초가 함께 있는 정원을 상상해 보라. 주인이 잡초를 가꾸면 잡초가 자라 꽃을 덮어버릴 것이다. 꽃을 가꾸면 꽃이 무성해져 잡초를 덮어버릴 것이다. 둘 다 가꾸면 시간이 지나면 꽃과 잡초를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⁸⁸ 시편 16:4

사람이 성공하려면, 자신 안에 어떤 정욕이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깨닫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재능을 가꾸면 머지않아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노력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소홀히 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영혼의 흙이 비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꾸지 않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채 방치해 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고 있었음에도 모두 뽑아내고 갈아엎어, 땅이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 두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땅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기에 적합함에도 갈대가 자라고 있다면, 우리가 갈대를 뽑아내고 사탕수수를 심어 기르는 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갈대로는 바구니만 엮을 수 있을 뿐, 설탕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분이 주신 은사를 두 배로 늘렸는지 묻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다섯 가지 은사를 주셨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열 가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홉은 그에게 있어 더 이상 최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겸손과 분별력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네 달란트로,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로 늘렸는지 묻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두 배로 늘렸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최고의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교만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한 재능을 열 개로 늘린다면, 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감동시킬 것입니다.

타인의 미덕은 우리와 타인 모두를 향기로운 향기로 채워줍니다

— 게론다, 미덕을 쌓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 그 미덕을 지닌 사람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지닌 사람과 교제한다면, 점차 당신도 경건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미덕이 그렇습니다. 타인의 미덕은 우리 모두를 향기로운 향기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미덕을 바라보고 그것을 본받으려 노력할 때,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점을 바라보는 것에서도 유익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점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미덕은 내가 그것을 본받으려 노력하게 만들고, 결점은 나에게도 같은 결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게 하여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근면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런 사람을 본받으려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기심을 보고는 그 형제를 비난하지 않고, 나 자

신에게도 호기심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미덕만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결점만 보며, 게다가 내 결점에는 신경도 쓰지 않거나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또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며 정당화한다면 — 나는 완전히 망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결점을 보게 되며, 그들의 지적은 우리에게 묻은 더러운 얼룩을 씻어낸다.

미덕을 실천하는 성인들의 본보기

— 헤론다, 성인들의 두드러진 특성은 무엇입니까?

— 겸손을 동반한 사랑, 소박함, 그리고 분별력 — 이것이 바로 성인들의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성인들의 삶을 본받으려 스스로를 다잡는다면, 그 역시 거룩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미덕을 얻기 위한 실천에서 성인들의 모범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인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정욕을 깨닫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겸손해지고, 열심과 신성한 열정을 다해 그들을 본받으려 노력합니다. 우리가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는 성인들의 본보기와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인은 하느님의 자녀들이며, 그들은 불쌍한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마귀의 꾀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도움을 줍니다.

성인들의 행적을 주의 깊게 읽으면 영혼이 따뜻해지고, 그들의 본보기를 따르며 미덕을 얻기 위한 투쟁을 용감하게 계속하도록 자극받습니다. 각 성인의 행적에는 똑같은 거룩한 광기가 드러나지만, 그 표현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품었던 불타는 사랑(ἔρωτας)이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사람 안에 신성한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고,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뜨거운 소망이 솟아납니다.

— 게론다, 성인의 시나크사리온⁸⁹을 몇 년 동안 읽어야 합니까?

— 평생입니다. 비록 시나크사리온에는 아주 적은 양만 기록되어 있고, 성자전에는 성인의 전 생애가 아니라 가득 찬 잔에서 넘쳐 흐른 몇 방울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성인들이 비밀리에 겪은 모든 것을 드러냈다면 그들은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적은 말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지 그 말들이 우리 마음을 찢어주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⁸⁹ 시나크사리온: 예배용 미네아에 수록된 그날의 성인의 간략한 생애. — 역자 주

— 성인들이 행한 일들을 따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성녀 싱클리티키아⁹⁰⁾는 중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생의 마지막까지 얼마나 힘든 고행을 견뎌냈는지! 아니면 성 바르소노피우스⁹¹⁾는 몇 년 동안이나 완벽한 침묵을 지켰는지!

— 좋아, 만약 존경받는 바르소노피우스를 본받고 싶다면, 적어도 누군가 너에게 지적을 할 때 대답만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 봐. 성녀 싱클리티키아의 고행에 관해서는, 내 생각에도 네가 그것을 재현할 만한 육체적 힘이 부족할 것 같아. — 견디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내 생각에 너는 그녀를 본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네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 성녀께서 네게 자신이 가졌던 것 중 적어도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미덕에서 불순물을 제거합시다

— 게론다, 선생님께서는 가끔 “유해한 미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덕이 언제 “유해”해지는 것입니까?

— “유해한” 미덕이란, 예를 들어, 남의 눈치를 보는 마음이 섞인 친절이나, 사리사욕이 섞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이타심과 순수함이 없고, 미덕에 이기심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왜곡된 미덕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마치 덜 익은 과일과 같아서, 물론 그 안에도 어떤 비타민은 들어 있겠지만,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 쓴맛이 느껴집니다.

— 어쩌면 제게는 미덕이 없는데, 누군가는 저를 경건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네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여긴다면 안 좋은 일입니다.

— 제 실제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제가 미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 그럴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면에 달콤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네 실제 영적 상태가 어떤지 깨닫게 될 것이다. 때로는 사람이 그 미덕의 몇 가지 겉모습만을 익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려고 그에 따르기만 할 뿐인데도, 마치 미덕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며, 진정한 미덕도 아니다. 그렇게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시련이 닥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예를 들어, 말이 타인을 모욕하지 않도록 침묵을 지키며 노력하다가 점차 침묵이라는 미덕을 얻게 되는 것은 한 가지 경우다. 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침묵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하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경우다.

⁹⁰⁾ 그녀의 기념일은 1월 5일이다. — 편집자 주

⁹¹⁾ 그의 기념일은 2월 6일이다. — 편집자 주

그는 입으로는 침묵할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있을 수 있으며, 정욕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정한 성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의 내면이 드러나면 그것이...

— 게론다, 제 처지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보았던 그 좋은 점들이,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확히 무엇입니까?

— 내가 열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기심이었어.

— 아니야, 애야, 그건 아니야! 광석에는 여러 가지 금속이 들어 있어. 모래가 많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구리도 있고, 철도 있고, 금도 조금은 있어... 광석이 도가니에 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금이 녹아 나올 거야. “도가니 속의 금”이라는 말이 있지 않니?⁹²

교만은 미덕을 훔치는 자

— 헤론다, 저는 정욕의 포로입니다. 때로는 자기애에 휩쓸리고, 때로는 겉모습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힙니다.

— 사람이 도둑들이 자신의 재산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정욕에 의해 훔쳐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영원히 가난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쌓아두든 결국 잃게 될 테니까요. 이 탕갈라슈카가 어떻게 너를 훔쳐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나. 너는 스스로 천국을 훔쳐낼 수 있는데!

— 저도 미덕을 쌓는 데 힘쓰고 싶지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 덕을 실천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내가 보기에, 영적 성숙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 잘 들어라. 이제 여름이 오고 포도가 서서히 단맛을 머금기 시작할 때, 까마귀들—탕갈라쉬들—로부터 포도를 제대로 지켜내야 한다. 겸손하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거라.

— 하지만 제가 하는 선한 일들은 모두 잃어버리곤 해요. 순식간에 교만에 빠지기 때문이죠.

—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꿀을 만들어 놓고는 버리니, 사악한 탕갈라슈카가 그걸 훔쳐가고, 너는 빈손으로 남는 거야. 양봉가가 연기로 벌들을 현혹시킨 뒤 꿀을 가져가는 것처럼, 너에게도 탕갈라슈카가 교만의 연기로 네 머리를 현혹시켜 네 모든 영적 꿀을 훔쳐가고, 그 후 기뻐하며 손뼉을 친다. 네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을 훔쳐가면서 정작 자신

⁹² 전도서 3:6

은 기뻐한다. 너는 똑똑한데, 도대체 이걸 모르겠니? 왜 너를 약탈하는 그 교활한 도둑의 손을 붙잡지 않는 거니?

— 하지만 사람이 자신이 가진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느낀다면, 유혹이 어떻게 그 은사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 부주의를 통해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지만, 사람은 그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무관심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마음속으로 교만해진다. 그때 교활한 마귀가 다가와 그 사람의 은사를 훔쳐간다. 그는 도둑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그 은사에 독을 묻혀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영적 아름다움

— 게론다, 어떻게 하면 영적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 신성한 열정으로 미덕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면, 영적인 아름다움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을 모두 지니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산하신 영적인 온유함은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그분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은총의 힘으로 선교의 위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적으로 수고하며 자신의 성품을 갈고닦는다면, 축복받은,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 신성한 은총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느끼나요?

— 은총이 작용하는 일부 순간들을 느낍니다.

—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그를 바라보며 그 안에 은총이 있음을 알아볼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은총이 그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아무리 노력해도 미덕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해를 체로 가릴 수는 없듯이, 그 빛은 어차피 구멍을 통해 비쳐 나올 테니까요.

미덕에서 비롯된 영적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은 은총으로 빛납니다. 왜냐하면 미덕을 쌓아감으로써 사람은 신성함을 얻게 되고, 이는 곧 자신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며, 신성한 은총이 그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스스로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정욕으로부터의 해방과 영혼의 정화는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며, 육체 역시 정화됩니다. 정화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피를 통해 자신의 영성을 육체에 전달하고, 그리하여 온전한 인간이 거룩해집니다.

제1부.

한 가지 미덕이 있으니, 바로 겸손이다

“겸손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에게 내려온다”

제1장.

“하나님께서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⁹³

겸손한 사람에게는 모든 미덕이 있다

— 헤론다, 작별 인사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⁹⁴

— 무엇을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저희가 선생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글썄요, 그렇게까지 묻는다면 말씀드리죠... ‘겸손’이라는 미덕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사랑’도 덧붙이겠습니다. 하지만 겸손을 지닌 사람에게 사랑이 없겠습니까?

— 아바 이사악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미덕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⁹⁵

— 그러니까, 겸손이 없으면 미덕은... 먹을 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군요! 성 이삭은 미덕을 실천하는 데 겸손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헤론다, 다른 곳에서 아바 이삭은 사람이 모든 미덕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겸손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⁹⁶

⁹³ 야고보서 4:6; 베드로전서 5:5; 잠언 3:34 참조.

⁹⁴ 이 대화는 1968년 2월, 이시하스티리아에서 파이시이 장로와 최초의 수녀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다음 날, 장로는 새로 설립된 공동 생활 수도원에서 영적 삶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두 달간 머물렀던 수도원을 떠나 성산으로 향했다. — 편집자 주.

⁹⁵ 인용 출처: 『아바 이사악 시린의 수행자적 말씀』. 모스크바, 1993. 199쪽.

⁹⁶ 같은 책, 235쪽 참조.

— 혹시 뭔가 잘못 이해하신 건 아닐까요? 사람에게 겸손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⁹⁷

— 그렇다면 겸손을 가진 사람은 모든 미덕을 함께 갖추고 있는 건가요?

— 물론이지. 겸손한 사람은 단순함, 온유함, 끝없는 사랑, 친절, 악의를 품지 않음, 희생 정신, 순종 등 영적 향기의 모든 향기를 풍깁니다. 그에게는 영적 가난⁹⁸ 가 있으므로, 그는 모든 영적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경건하고 침묵을 지키므로, 위대한 겸손을 지니신 지극히 복되신 성모 동정 마리아와 같은 부류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느님을 품고 계신 그녀는 “보소서,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대답하셨습니다.⁹⁹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고, 침묵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서른 살이 되어 말씀하시기 전까지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성 안드레아 크리토스는 성모 마리아께서 하나님 다음의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다음으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신다고 말합니다.¹⁰⁰ 하나님의 종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동정이시며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시며 창조주의 어머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신비이며, 오직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어떤 성모 마리아 성화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 저는 성모 마리아의 모든 성화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어딘가에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 번 그 이름을 입맞추며, 기쁨에 가슴이 떨립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어린 소녀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당신의 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이다.”¹⁰¹ 몇 마디 말에 이토록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헤아린다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짧지만 강렬하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겸손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베들레헴의 구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⁹⁷ 자매님이 언급하신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겸손은 일종의 신비로운 힘으로, 온전한 신성한 삶을 살아낸 후에야 비로소 완전한 성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인용 출처: 『아바 이사악 시린의 수행자적 말씀』. 모스크바, 1993. 235쪽). 여기서 아바 이사악은 겸손을 완전한 상태로 말하고 있는 반면, 파이시이 장로는 미덕을 얻기 위한 투쟁에 필요한 겸손을 염두에 두고 있다. — 편집자 주.

⁹⁸ 마태복음 5:3

⁹⁹ 누가복음 1:38

¹⁰⁰ “Χαίροις μετὰ Θεὸν ἢ Θεός, τὰ δευτερεῖα της Τριάδος ἡ ἔχουσα.” 성 안드레아 크리토스, 5음조와 유사. 테오토카리온. 볼로스, 1991. 107쪽.

¹⁰¹ 누가복음 1:46-48

겸손한 자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니

—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려면 사람은 어떤 미덕을 가져야 합니까?

— 겸손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영적으로 산다고 자처하며 수련을 쌓는 등 노력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짧은 시간 안에 은총을 얻는데, 이는 그들이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면, 은총이 순식간에 그를 비추어 천사로 만들 수 있고, 그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해지면, 순식간에 망나니가 되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원하면 양이 되고, 원하면 염소가 됩니다. 불쌍한 염소들은 양이 되고 싶어 해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염소에서 양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단지 그가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만 내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느냐? 오직 온유하고 침묵하는 자를 바라보리라.”¹⁰²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단지 약간의 겸손만을 요구하시며, 그 후 그분의 풍성한 은사들이 하나씩 차례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치 겸손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빚진 것처럼, 그 사람이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복음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¹⁰³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매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는 겸손한 사람이 마치 스펀지처럼 신성한 은혜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타인의 타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정화하며, 영적 아름다움에서 천사와 같아져 천국의 좁은 문을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그 누구도 세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영적인 상승을 통해 하늘로 올라갑니다.

겸손은 천국의 문을 열어젖히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지만, 교만은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티혼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한 손으로 세상을 축복하시

¹⁰² 이사야 66:2

¹⁰³ 야고보서 4:6; 베드로전서 5:5. 잠언 3:34 참조

지만, 겸손한 사람을 보시면 두 손으로 그를 축복하십니다. 겸손함이 더 큰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¹⁰⁴

모든 것은 겸손한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안에 겸손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그에게 있어 땅과 하늘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겸손 속에서 열쇠를 얻었으며, 그 열쇠를 돌리면 사랑의 영적 엘리베이터를 타고 세 번째 하늘¹⁰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겸손을 요구하시는가?”라고 말합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천국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¹⁰⁶

단 한 번의 겸손한 생각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킵니다

— 단 한 번의 겸손한 생각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합니다. 어느 날 제 방으로 새끼 고양이가 들어왔습니다. 불쌍한 녀석,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을 먹은 모양인지 중독되어, 이제 도움을 청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며, 마치 바위에 부딪히는 문어처럼 펄쩍펄쩍 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지만, 어쩌겠는가? 그에게 십자가 성호를 한 번, 두 번 그어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자신을 좀 보라,”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수도자가 된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는데, 불쌍한 새끼 고양이가 하나도 도울 수 없다니!” 내가 스스로를 책망하자, 이미 마지막 숨을 거두려던 새끼 고양이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달려와서 내 발에 몸을 비비며 기쁜 듯이 펄쩍펄쩍 뛰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리라”라고 한 것이다.¹⁰⁷

나는 단 한 번의 겸손한 생각만으로도 사람이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질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집니다. 그에게 자녀가 많은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론다, 저는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 교만 때문에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 말을 하셨지만, 그분의 얼굴은 그 순간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몇몇 자매들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을 심하게 꾸짖어야만 했습니다. 한 자매는 온몸을 움츠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¹⁰⁴ 게론토스 파이시오스 아기로레티토스. 『아기로레타이 파테레스 카이 아기로레티카』. 테살로니키, 2005. 31쪽.

¹⁰⁵ 고린도후서 12:2 참조

¹⁰⁶ 마태복음 11:29

¹⁰⁷ 시편 135:23

다. 겸손해졌고, 그 후 그녀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겸손하고 통회하는 한 가지 생각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순식간에 모든 결점은 사라지고, 사람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얼굴이 빛납니다. 반면 다른 한 명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왔다가 차가운 마음으로 떠났고, 온통 남들의 결점만,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수양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번의 교만하거나 비방하는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단 하나의 겸손한 생각만으로도 사람은 수년간 초인적인 업적을 쌓아도 도달할 수 없는 영적 높이로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

— 계론다, 교만한 사람이 단 하나의 겸손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겠습니까?

— 그에게 단 하나의 겸손한 생각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한 쪽으로, 어떤 때는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 그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생각을 떠올린다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도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더 이상 겸손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떠나고, 그는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겸손이 찾아오고 그의 상태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데, 이는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겸손이 사람에게 지속적인 상태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2장.

겸손을 얻기 위한 수고

겸손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 계론다, 겸손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입니까?

— 겸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러지며, 넘어짐이라는 거름으로 비옥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보고 자신이 그에 합당하지 않음을 깨닫고, 겸손해지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그에게 쏟아지는 신성한 은총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겸손입니다. 반면 끊임없는 실수에서 비롯되는 겸손은 — 강요된 겸손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자발적인 겸손은 강요된 겸손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비료나 거름 없이도 나무가 자라 맛있는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겸손은 척박한 흙과 같아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비료와 거름 모두 필요하며, 게다가 열매도 그리 맛있지 않을 것입니다.

— 게론다, 누군가를 나쁘게 대했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어쩔 수 없이 겸손해져야 할 때 정말 힘들어요.

— 억지로 낮추는 태도로 당신은 자신의 죄로 쌓아온 빛의 일부라도 갚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 저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시달리고, 낙담에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 용기를 내라, 나의 선한 사람아, 결국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라: “내 젊은 시절부터 원수가 나를 유혹하며, 달콤한 유혹으로 나를 태우나,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를 이긴다.”¹⁰⁸ 사실, 가련한 육신이 그리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며, 자만심이 문제다. 사실, 너에게는 물론 하느님께서 주신 많은 미덕이 있지만, 약간의 게으름과 부주의로 인해 원수가 틈을 타 너를 교만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얼굴을 적시는 대신, 너는 슬픔과 비탄의 눈물로 얼굴을 적시고 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강제로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나의 자녀여,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만일 다시 패배하더라도, 다시 승리할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¹⁰⁹ 폭풍은 지나갈 것이며, 그 뒤를 이어 많은 좋은 일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너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것이며, 에 나오는 영적 법칙에 따라, 이전에는 교만이 가로막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네게 임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만약 알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인식은 겸손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더 많이 알수록, 영혼의 눈이 더 넓게 열리고 자신의 큰 무력함을 더 잘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천함과 배은망덕함을 깨닫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고귀함과 자비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는 내적으로 통회하며 땅에 엎드려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¹⁰⁸ 스테펜나, 8음조, 1번째 안티폰.

¹⁰⁹ 대 저녁 기도문 중 한 구절.

마음의 겸손, 그것이 전부입니다

— 헤론다, 사람이 이성적으로는 겸손해질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예전에는 수도원과 많은 집의 문이 매우 낮아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몸을 숙여야 했습니다. 몸을 숙이지 않으면 머리가 문설주에 부딪혔죠. 그래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었고, 원하든 원치 않든 깊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다음 번에는 멍하니 있다가 자신을 다치거나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 예는 이성적인 겸손이 단지 머리를 보호하고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만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저께 한 자매가 와서 나에게 말하길, “헤론다, 수녀 원장님께서 제가 노래할 때 제 목소리를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더 겸손하게 노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녀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했나요?”라고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 “너는 그 약점을 느끼고 깨달아야 하며, 그것을 떨쳐내고 싶어 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 목소리로 자랑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순전히 겉치레에 그쳐, 단지 수녀님이 더 이상 너에게 지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단순히 목소리로 자랑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헤론다, 비록 제가 마음속에 겸손한 생각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 내면에는 어느 정도의 자만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요?

— 너는 단지 겸손한 생각을 떠올릴 뿐이지만, 그 생각들이 마음속 깊이까지 닿지 않고 있다. 만약 그 생각들이 네 마음을 움직였다면, 내면적으로 너를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켰을 것이고, 넌 지금쯤 천사가 되었을 것이다. 마음의 겸손,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바 이삭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겸손해지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강요 없이도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다.”¹¹⁰

말뿐이 아닌 실천적인 겸손

— 헤론다, 만약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고 책망하며 “나는 결점투성이이고, 무가치하며, 망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를 통해 그는 스스로 겸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까?

— 사람은 스스로를 책망하기는 쉽지만, 타인의 책망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나는 한심하고, 가장 죄 많고,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작 타인으로부터는 어떤 지적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걸려 넘어져도 아프기는 하겠지만 크게 상심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중 누군가

¹¹⁰ 인용 출처: 아바 이삭의 시리노스의 수행자적 말씀. 모스크바, 1993. 236쪽.

가 때리더라도, 역시 “좋아, 별일 아니야.”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살짝 굼거나 밀기만 해도, 그때야말로! 그는 비명을 지르며, 마치 아파서 일어설 수 없는 척할 것이다!

제가 시나이에서 살 때, 그곳에 스트라티스라는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스트라티스 씨”라고 소리치면, 그는 “무슨 씨요? 죄인, 죄인 스트라티스라고 부르세요.”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모두가 “ ”라고 말하며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늦잠을 자서 제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깨우러 갔다. “스트라티스, 아직도 자고 있니? 벌써 여섯 번째 시편을 다 읽었어. 예배에 안 갈 거야?” 그러자 그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한테는 너보다 경건함이 더 많은데, 네가 나한테 교회에 가라고 말하다니?”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 심지어 문 열쇠—곡물 창고 자물쇠처럼 큰 열쇠—를 움켜쥐고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향해 휘두르려 했다.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다. 모두 그를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를 본보기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트라티스는 망신을 당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그냥 짐승처럼 날뛰어 버렸다!

에피로스의 또 다른 사람은 교회를 수리했다. 그는 자신이 별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조금 손질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좋아, ‘손질’했다고 치자. 그래도 뭔가 한 건 있잖아”라고 말하자, 그는 화를 냈다! “네가 더 잘했을 것 같다는 말이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 나는 건축이 무슨 뜻인지 알아. 너 같은 목수 따위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직접 도급을 맡으셨단 말이야!”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겸손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게론다, 진정한 겸손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 다른 사람이 너를 모욕할 때, 네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네게 진정한 겸손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이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겸손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성 코스마 에톨리우스는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중 자만심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입니다.” 한 사람이 대답했다. ““자, 여기 오라. 자만심이 없는 너 말이야,”라고 성 코스마가 말했습니다. “수염 한 가닥을 잘라내고 광장으로 나가 보아라.” “어,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에게는 겸손이 없는구나,”라고 성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¹¹¹ 성 코스마는 이를 통해 실천적인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¹¹¹ 참조: 아키마न्द्र리토스 하랄람보스 바실로풀로스. 『아이톨로스의 성 코스마스』. 아테네, 1993. 198-199쪽.

— 나도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대답해 버리곤 한다.

— 겸손함이 없으니, 그래서 반박하는 거야. 아바 모세에게 어떤 겸손함이 있었는지 보라. 그가 사제로 서품되었을 때, 대주교는 그를 시험해 보고 싶어 하여 성직자들에게 말했다. “아바 모세가 제단에 들어오면, 그를 쫓아내고 뒤를 따라가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 아바 모세가 제단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은 그를 쫓아내며 “나가라, 에티오피아인아.”라고 외쳤다. — “네게 한 일은 옳은 일이다, 검은 피부의 에티오피아인아,” 아바 모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너는 사람이 아니니, 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가!”¹¹² 그는 서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 혹시 사람이 겸손하지는 않더라도 온유하여 모욕을 당했을 때 대꾸하지 않을 수는 없는가?

—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이 모두 겸손한 것은 아니다. 온유함 속에는 겸손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사람은 겉으로는 온유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교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그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말하게 내버려 두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신부님들이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군가 그를 괴롭혀도 결코 대꾸하지 않던 그 수도사처럼 말이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모욕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어도 그토록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내가 그들의 결점을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짓어대는 개들일 뿐입니다.”¹¹³ 즉,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했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을 구할 때, 모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 헤론다, 제가 실천적인 겸손을 얻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 어떻게 겸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네게 한 마디를 하면, 너는 열 마디를 되돌려주느냐? 사소한 꾸지람조차 참지 못하느냐? 이봐, 내 사랑, 네게 겸손해질 기회가 주어지면, 겸손해져라.

네 약은 땅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데 있다: 비와 우박, 쓰레기, 침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가 자신의 정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말이다. 타인으로부터 오는 모욕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사람이 낡은 ‘나’로부터 빠르게 해방되도록 돕는다.

— 저에게는, 게론다, 많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¹¹² 다음 서적에서 인용: 『성인과 복된 교부들의 수행에 관한 기념할 만한 이야기들』.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3. 114쪽.

¹¹³ 인용 출처: *아바 도로페이*. 『교훈, 서신, 질문, 답변』. 모스크바, 1991. 96-97쪽.

— 가서 사 오세요.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겸손을 파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공짜로 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게론다?

— 그들은 선한 영적 태도를 갖추지 못한 채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그 행동으로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은 식료품점 주인에게서 식료품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게 겸손을 주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국자를 들고 각자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너에게는 겸손 1킬로그램, 너에게는 0.5킬로그램.” 하나님께서는 무례한 사람이 나타나 우리에게 가혹하게 대하도록 허락하시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그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련이 될 것이며, 우리가 겸손을 얻고 싶다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 형제가 악해지도록 허락하신 것임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제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 겸손을 구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겸손을 얻도록 주신 유리한 기회들을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분개하고 원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인(恩人)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겸손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겸손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스토미온 수도원에 살 때, 코니차에는 제가 평신도였을 때부터 저를 무척 아끼던 신부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코니차로 미사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제단으로 향했고, 들어갈 때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고, 저에게는 원하신다면 그곳에 아주 작은 구석 하나라도 주시옵소서.” 성체 성사 시간이 되자, 평소 제단에서 제게 성체를 나눠주던 신부가 제 쪽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단에서 나가시오. 너는 자격이 없으니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맨 마지막에 성체를 받을 것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단에서 나왔습니다. 성가대석에 올라 성체 성사에 대한 기도를 읽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성체 성사에 다가서며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나님께서 사제를 깨우쳐 주셨고, 그는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 내게 밝혀 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짐승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체를 모자라자마자 내면에서 큰 달콤함을 느꼈다. 성찬식이 끝나자, 신부는 깊은 회개의 마음으로 내게 다가와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코 제 자녀나 신부님 부인, 심지어 저 자신조차 당신보다 앞세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땅에 닿을 듯이 절을 하며 용서를 구했고, 내 손에 입을 맞추려 했다. “신부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신부님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시험하기 위해 신부님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신부님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고, 제 생각에는 결국 신부님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수녀가 화를 내며 거칠게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하느님께 겸손과 사랑 등을 청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잠시 그 수녀에게서 은총을 거두시며, 그 수녀는 여러분을 모욕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는 겸손과 사랑에 대한 시험을 치를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겸손해진다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자매의 경우, 그녀는 두 배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그녀에게서 은총을 거두셨기 때문이고, 둘째, 그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겸손을 기르고, 그녀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자신을 낮추라”¹¹⁴

— 게론다, 제가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 일에서 막아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들에게 불만을 제기하곤 합니다.

— 자기 자신의 개선에 있어서는 오직 자신에게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직 요구만 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군요.

— 제가 언제 성숙해질까요? 제게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될까요?

— 네가... 자신을 낮추게 될 때! 다시 말해, 겸손과 사랑을 키우게 될 때 말이다.

— 아바 이삭은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¹¹⁵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습니까?

— 겸손한 마음가짐으로요. 가정이나 수도원 등에서 영적 완성을 향한 경쟁심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고대 교회에서 고해성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모두가 유익을 얻었던 것처럼, 그로 인해 각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그 후 다른 이들을 돕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은 결코 타인을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 제가 모든 자매들보다 더 낮다고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모든 수녀님들보다 낮다고 느끼려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도 당신이 그것을 두 배로 늘리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¹¹⁴ 인용 출처: 『아바 이삭의 시린의 수행에 관한 말씀』. 모스크바, 1993. 303쪽.

¹¹⁵ 같은 책

말하십시오. “나는 나무 몽둥이¹¹⁶ 치는 법만 배웠을 뿐, 내 재능은 아직 두 배로 늘리지 못했구나.”¹¹⁷

사람이 자신을 누구보다 낮게,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여길 때... 바로 그때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결론을 내린다. “나는 이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 헤론다, 제가 다른 사람의 미덕을 인정할 때, 그 안에 겸손이 있는 것입니까?

— 물론입니다. 덕을 지닌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겸손이 있으며 실제로 덕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성숙의 또 다른 징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좋은 점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타인의 아주 사소한 선함조차 자신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여기는 것, 즉 항상 타인의 선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너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내린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높게 여기는 사람이 더 높은 자인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결점도 있고 미덕도 있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퍼센트, 어떤 사람에게는 30퍼센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60퍼센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90퍼센트 정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고, 유익을 얻으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반면, 바로 여기에 정통 기독교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유익을 얻지만, 그들이 교만해져 스스로를 해치지 않도록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낮음”¹¹⁸

— 수도사에게 가장 고귀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게론다?

— 아바 시소가, 자신의 마음이 항상 하느님과 함께 있다고 말한 그 수도사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모든 피조물보다 더 낮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 헤론다, 어떻게 자신을 ‘모든 피조물보다 낮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¹¹⁶ 나무 방망이(그리스어: τάλαντο)는 그리스 수도원에서 종 대신 자주 사용된다. 규정에서 정한 수도사가 나무 망치로 나무 방망이를 두드려 예배 시작을 알린다. — 역자 주

¹¹⁷ 마태복음 25:14-30 참조.

¹¹⁸ 다음 서적에서 인용: 『성인과 복된 교부들의 고행에 관한 기념할 만한 전설들』.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3. 174쪽.

— 한 번은 내가 어떤 동물에 비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다가, 배설구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그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똥벌레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길에서 똥을 발견하면, 그것을 조각조각 쪼개고, 그 조각들로 알갱이를 만들어 길가로 굴러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을 보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너는 똥벌레보다 더 나쁘다. 왜냐하면 그 작은 곤충은 길에서 똥을 치우는 반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으신 너는 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에 똥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다.”¹¹⁹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 점점 더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게 되고, 자신을 모든 사람 중 가장 나쁘고, 모든 동물 중 가장 나쁘며, 심지어 악마보다도 더 나쁘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한 번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지만, 나는 매일 마음과 감정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니 나는 마귀보다 더 나쁘다.”

— 자신을 마귀보다 더 나쁘다고 여기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 영적인 담대함이 없고 쉽게 절망에 빠지는 사람에게만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악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쁘다 해도, 어쨌든 나는 너보다 낫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나는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말해야 한다. 반면 영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마귀는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있지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3장.

겸손 — 영적 삶의 위대한 힘

겸손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설 자리가 없다

— 헤론다, 『아토스 산의 성부들』이라는 책에서 당신은 악마들이 장로 에블로기오스를 구타했다고 쓰셨습니다.¹²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 누가 죽을 맛보았나요?

— 에블로기오스 장로님.

¹¹⁹ 고린도전서 3:16; 고린도후서 6:16 참조.

¹²⁰ 게론토스 파이시오스 아기오레이토스. 『아기오레티아이 파테레스 카이 아기오레이티카』. 테살로니키, 2005. 41-42 쪽.

— 아니요, 악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허락 하셨을 때, 맞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겸손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상처 입은 채로 남는 것은 때리는 사람입니다. 말해 보세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겸손입니다, 게론다.

— 나는 그가 교만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 이지! “저도 교만하고 나도 교만한데, 누가 더 교만한가?” 물론, 바로 그렇다. 악마 는 겸손을 두려워한다. 겸손은 그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겸손이 있는 곳에는 악마가 머물 수 없다.

겸손을 통해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영적 여정에서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으며, 유혹이 놓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온 땅에 펼쳐진 원수의 그물을 보았던 성 안토니우스를 기억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그물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겸손한 지혜”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¹²¹

시나이에서는 성 에피스티미아의 수도실에서 지냈는데, 그곳에는 작은 교회와 아주 아담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쪽으로는 산이 솟아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4~5미터 높이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통나무 한 토막이 놓여 있었는데, 저는 그 위에서 조각된 성화를 만들기 위한 작은 판자들을 대패질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나무 판자를 깎으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는 다치지 않고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큰 머리를 가진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탕갈라슈카’라고 생각했다. 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그대로 서서 떠나지 않았다! “너는 다치지 않고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다,”라고 말한다. 나는 듣지 않는 척했다. 15분 정도 동안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러자 내가 그에게 말했다. “좋아, 돌을 아래로 던져 볼게.” — “그 정도까지는,” 그가 말했다. “그리스도조차 생각하지 못하셨다!¹²² 네 대답이 그분보다 낫구나!” 그제야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이셨지, 나처럼 여기 앉아서 너를 뵈히 쳐다보는 허수아비가 아니셨어. 자, 어서 여기서 나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즉시 사라졌다.

겸손이 있으면, 마귀는 영혼을 이길 수 없다. 겸손한 사람은 낮게 걷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아바쿰 노인이 비글라 사막에서 수행하던 중 겪은 일이다! 어느 날, 그가 바위 위에 앉아 묵주를 짚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 “빛의 천사” 모습으로 변한 마귀가 그에게

¹²¹ 인용 출처: 『성인과 복된 교부들의 수행에 관한 기념할 만한 이야기들』.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3. 12쪽.

¹²²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마귀가 그분께 솔로몬 성전의 날개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제안했을 때, 주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마태복음 4:7)고 대답하신 것을 가리킨다. — 편자 주.

나타났다.¹²³ “아바쿰아,”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네가 이미 천사가 되었으니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날아가자.” — “네, 하지만 당신에게는 날개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날아가죠?” 그러자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길: “너에게도 날개가 있지만,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때 아바쿰 노인은 십자 성호를 긋고 말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여, 제가 감히 날아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그 ‘천사’는 박쥐처럼 날개를 단 기이한 검은 염소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보시다시피, 겸손을 통해 우리가 마귀의 함정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적 성장은 큰 겸손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 헤론다, 왜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변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수년 동안 수련을 해도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 제 생각에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성공하게 하신다고 봅니다.

— 그렇습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큰 겸손이 있는 곳에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겸손의 길을 찾은 이들은 영적 삶에서 빠르고, 꾸준히, 그리고 수월하게 번창합니다. 우리는 아직 겸손이 무엇인지, 이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성취는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더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얻으며, 그만큼 더 큰 성취를 이룹니다. 겸손 속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럼 겸손한 사람에게는 영적 수련이 더 쉬운가요?

—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살짝만 밀어주어도 앞으로 쏠살같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당구공을 예로 들어 보죠. 한쪽에서 치면 굴러가고, 다른 쪽에서 치면 또 굴러갑니다. 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법이죠.

— 게론다, 사람이 겸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다 보면 결국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아니요. 진정한 겸손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이기심을 낳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통회 속에서 영적인 사람은 점차 성장합니다. 사람의 온 삶은 위대하고

¹²³ 고린도후서 11:14.

고귀한 업적이 되지만, 그는 항상 하느님에 대한 큰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좋은 의미에서, 즉 자신의 ‘나’에 대해 실망한 채로 말입니다.

— 그런데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수 있습니까?

—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좋은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좋은 영적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좋은 영적 상태에 있다 해도, 그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조차도 오직 자신의 죄성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넘어짐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이들은 자신의 영적 부를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간직합니다

— 게론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인지 제 내면에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 그래, 넌 ‘유로디바’가 될 수 없을 거야!.. 유로디바가 되려면 큰 겸손함이 필요하거든. 있잖아, 만약 네가 무명함을 사랑하고 싶다면, 성녀 이시도라의 행적을 읽어보렴.¹²⁴ 그녀가 어떤 보물과 미덕을 지녔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도 가짜인 구리 같은 미덕이라는 장신구들은 버리고, 앞으로는 황금 같은 미덕을 모아 네 마음속에 간직하고, 탄갈라슈카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잠가 두어라.

그리스도를 위해 미친 척하는 이들에게는 내면에 어떤 공허함도 없으며, 그들 안에는 넘쳐흐르는 신성한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성인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헛소리는 사실 매우 심오한 진정한 가르침이다. 그들에게는 지극한 겸손이 있어, 스스로를 전혀 무엇으로도 여기지 않기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스러운 신비의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위대한 은사를 베푸신다.

— 게론다, 왜 파라스 주민들 중 일부는 성 아르세니우스가 행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당황해 했습니까?

— 성자들은 영적 풍요로움을 얻는 데 쓰는 것보다 그것을 숨기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성 아르세니오 역시 자신의 미덕을 여러 가지 겉모습으로 감추었는데, 이는 충분히

¹²⁴ 성녀 이시도라는 4세기 초 성 파코미우스가 설립한 타베니시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낮추고 비하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미친 척했습니다. 항상 맨발로 다녔습니다. 다른 수녀들이 머리에 쿠를을 쓰고 있을 때, 이시도라는 단순한 헝겊으로 머리를 가렸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모욕하고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의 거룩한 삶은 위대한 수행자 피티리모스에게 환상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도원을 방문하여 수녀들에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던 이시도라가 사실은 모두의 영적 어머니임을 보여주었다. — 편집자 주.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의 “인위적인” 기이함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성 아르세니우스는 숭배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덕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성인이 자신 안에 어떤 풍요로움을 간직하고 있는지 여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리스도의 전사들은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영적 부를 하느님의 보물창고에 간직하는 데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띄지 않게 산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세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뵈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그분의 현존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2부.

영적인 사랑

“영적인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고, 그다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바치며, 남은 사랑은 동물과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에게 바친다”

제1장.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강렬한 불꽃”

— 게론다, 가끔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강렬하게 느끼다가 제 자신의 배은망덕함을 볼 때 괴로워집니다.

— 네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주여, 주의 자비가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¹²⁵ ”¹²⁶ — 다윗이 말했듯이. 너도 그렇게 말하라. 너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네가 이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에게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촘촘한 불”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촘촘한 불”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석회질 침전물을 제거하거나 마음을 둘러싼 화강암 벽을 무너뜨리려면, 가장

¹²⁵ 포제넷: ‘동행하다’(슬라브어) – 역자 주.

¹²⁶ 화요일 저녁의 프로키멘. 참조: 시편 22:6.

강력한 폭발물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포탄이 필요합니다. 이 단단한 껍질이 무너질 때, 마음은 받아들이기 쉬워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은혜에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갇을 수 없는 빛을 진 자로 자각하며, 끊임없이 감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신의 빛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더 큰 축복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의 사랑에 굶주린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게 됩니다.

— 게론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깊이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만약 어떤 사람이 수련을 하며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실망시키게 되는 것입니까?

— 하물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며, 그분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은 어떤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 중 한 명은 조금 어리석어서 자꾸만 소매로 콧물을 닦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처럼 품에 안고, 입맞추며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예쁜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약한 아이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보다 오히려 그들을 더 걱정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커서, 사람이 그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느낀다면, 흠으로 지어진 인간의 심장은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그분의 창조물에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쏟아부으시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따뜻해지고, 우리는 신성한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큰지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만하세요, 나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좀 줄여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 쪽에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우리 ‘배터리’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류가 우리 배터리의 용량에 맞춰 흘러오기 때문에, 더 많은 신성한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그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 배터리 용량은 어떻게 늘릴 수 있나요?

—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그 용량은 더 커지고, 우리는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고갈되지 않는 신성한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올바른 분배

— 게론다, 제가 어떤 성인을 향한 사랑을 품는 것이 하느님을 향한 제 사랑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까요?

— 아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성인을 깊이 공경하고 그에게 큰 사랑을 품을 때, 그 이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더 큰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을 공경하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모님을 더욱 공경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더욱 공경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성인과 깊은 유대감을 맺고 그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때로는 그 성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면, 그것이 곧 하느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성인을 향한 사랑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응답을 받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견고한 사랑입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성인들이 그러하듯 모든 사람과도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 바칠 때, 그는 모든 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새와 나무, 심지어 뱀까지도요. 그러면 그는 하느님과 성인들에게 경건하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도 경건하게 경배합니다. 크든 작든, 귀하든 평범하든, 자갈이나 나무 조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경건하게 집어 들고 입맞춤하며, 마치 창조주께서 주신 축복인 양,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축복으로 받은 크든 작든 물건을 입맞춤하듯이 대합니다.

천국으로의 승천

— 게론다, 사람은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 사람이 하나님께로 높이 올라가 그분을 “경배”하여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진심 어린 회개인데, 이는 큰 죄인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큰 타락을 깨닫고 깊이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큰 겸손을 보시고 그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며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하늘에서는 한 명

의 회개하는 사람 때문에 큰 기쁨이 있다,”¹²⁷ —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물론 죄인들도 하느님께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큰 빛을 쬌 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치명적인 죄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졌을 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켜 주셔서 영혼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너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새끼 새처럼 그분의 날개 아래서 지켜 주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위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려라.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큰 힘을 지닌다. 그때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 천사들처럼 끊임없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비록 땅에서 살지만,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합니다. 그의 삶은 온통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며, 그는 찬양하며 죽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그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안에서 가장 위대한 찬양이 솟아납니다. “우리에게 빛을 보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께 바칩시다

— 헤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 희생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희생할 때, 모든 것이 제대로 흘러갑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¹²⁸

— 게론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자라나요?

—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하느님을 생각하십시오. 기도를 드리고, 하느님과 대화하십시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때, 처음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미약하게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을 점점 더 강하게 느낍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항상 하느님 안에 머물며, 세속적이고 헛된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 마음을 가득 채우니, 그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학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¹²⁷ 참조: 루카 15:7

¹²⁸ 참조: 시편 77:36

— 우리가 그와 같은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는 데에는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 성숙함도 있습니다.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나’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성실하지 못한 세입자인 우리의 낡은 사람이 우리의 거처를 떠난다면, 마음속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사람, 곧 새 언약의 사람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온 존재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은 종으로 변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할 것이며, 그 울림은 너무나 커서 벽—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흙으로 발라진 집의 벽과 같이 된 흉곽과 갈비뼈—이 떨릴 정도일 것입니다. 만약 성당이 없는 사막에 있게 된다면, 네 몸이 성당이 되고, 네 마음이 종소리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때 비로소 그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가슴은 기쁨으로 떨게 된다. 머릿속은 가벼워지고, 몸은 깃털처럼 가볍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커지면, 그 때 마음의 울림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리게 되는데, 이는 그 상태에서 몸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작은 심장이, 어떻게 그렇게 강렬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얼마나 클까! 나는 양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질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사랑이 영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자신의 사랑을 바치기를 원치 않고, 그 사랑을 세속적이고 헛되며 헛된 것들에 낭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르는가! 설령 우리가 천 년을 살고 천 개의 마음을 가졌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갚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며, 당신의 신성한 피로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정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

— 게론다, 왜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 그것은 투쟁의 결과로 서서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불타오르듯 하느님의 사랑에 휩싸여 버릴 테니까요. 주위는 차가운데도 자신들은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산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전쟁 중 한 병사가 부대를 떠나 산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 타올라 참을 수 없었고, 떠나서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

다. 모든 것을 잊어버렸죠. 동굴 하나를 찾아 들어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가 그를 발견하고는 “탈영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후 부대 지휘관이 그를 불러 심문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나?”라고 물었다. “저는 불타고 있습니다, 지휘관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 “나도 네 생각처럼 불타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지휘관이 물었다. “저도 타고르고 있습니다, 지휘관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그가 되풀이하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타오르고 있다면, 도망쳐라!”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는 군사 재판을 면했습니다. 평시에도 병사가 부대에서 도망치면 군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전쟁 중에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¹²⁹

— 게론다,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온몸에서 온기를 느끼나요?

— 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부위에서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영적인 사랑이 타오르면 가슴 전체가 불길로 활활 타오릅니다. 흉곽 전체가 불꽃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하고 달콤한 불길로 타오르며, 맴돌고, 참되고 모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으로 지피시는 이 내면의 불은 물질적인 불보다 더 강하게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 불은 탄갈라슈카가 던져 넣는 온갖 쓰레기와 악한 생각은 물론, 온갖 정욕과 부적절한 광경까지 태워버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 영혼은 그 어떤 다른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성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 불이 아직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 이 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활활 불타오른다면, 어떤 헛된 것들도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불태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성한 에로스

— 신성한 에로스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요?

— 신성한 에로스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그것은 광기입니다. 사랑-에로스-광기는 질투-증오-살인과 같습니다. 희생과 결합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은 달콤하게 마음을 달아오르게 하고, 마치 증기처럼 억제할 수 없는 신성한 에로스가 뿜어져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¹²⁹ 스스로 모든 일에 항상 율법을 준수했던 파이시이 장로는, 규율을 지키지 않는 병사의 이 예를 들어, 만약 신성한 사랑의 불꽃이 사람 안에서 타오르면 “사람의 마음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도록 돕고 있다. — 편집자 주.

신성한 에로스는 단단한 뼈를 부드럽게 만들어, 사람이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져 쓰러지고 맙니다! 그는 따뜻한 곳에 놓인 촛불처럼,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어 이쪽저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다시 바로 세워도 촛불은 다시 기울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주변이 따뜻하고, 너무나 따뜻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어딘가로 가거나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는 그럴 수 없게 되고, 몸부림치며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 신성한 에로스에 사로잡힌 사람은 고통을 느끼나요?

— 고통이 매우 심하면 가라앉아 견딜 수 있게 되고, 약하면 사라집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그토록 황홀해져서 잠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어떤 수도사가 제게 이렇게 말했죠. “헤론다, 제 형이 집시 여인에게 반해서 잠조차 자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파라스케바야, 내 파라스케바야”라는 말만 들릴 뿐이에요. 마법에 걸린 건가? 모르겠네요! 저는 수녀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왔지만, 제 형제가 그 집시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모님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마음속에서 아무런 기쁨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성한 에로스”라는 말에 당황해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에로스”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이 자신들을 당황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미네이와 옥토이카에서 이 단어를 삭제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니! 반대로, 인간적인 에로스가 무엇인지 아는 평신도들에게는 신성한 에로스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즉시 “그건 분명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일 거야.”라고 대답합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에로스를 경험해 본 많은 젊은이들과는, 신성한 에로스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금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사랑 때문에 기진맥진해 땅에 쓰러진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즉시 이것이 더 높은 차원의 무엇임을 눈치채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저 평범한 세속적인 사랑조차도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 천상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겠네요!”

거룩한 광기

— 헤론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미쳐버릴 수 있나요?

— ...미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당신에게 영적인 광기를 전염시키게 하세요! 당신이... 하느님을 향한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신성한 에로스에서 비롯된 영적 광기에 대한 약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신성한 빛을 잃은 상태에 빠져, 신과 거룩하고 영적이며 천상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신성한 사랑의 상태에 머물며, 그는 내면에서 달콤하게 타오르

며, 신성한 경건함의 경계 안에서 천사처럼 광기 어린 모습으로 자신을 쏟아내며, 밤낮으로 자신의 하나님이자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 이것을 황홀경이라고 하나요?

— 네, 그때 사람은 좋은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라, 하늘을 두려워하라...”¹³⁰

신성한 광기는 사람을 세상의 중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로 끌어올리며, 사람은 마치 주인의 발치에 있는 강아지처럼, 기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발을 핥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한다.

신성한 황홀경

— 헤론다, 제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위로 올라갈 테니까요. 수녀원장님께 말씀만 드려주세요, 길을 떠날 때 큰 플라스틱 병 두 개를 주시라고. 보세요, 유리병이 아니라 플라스틱 병이어야 해요. 가는 길에 깨지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가 그 병에 물을 채워 놓고, 하늘로 가는 길에 지칠 때마다 마시자! 병에 물을 세 손가락 너비만큼만 남겨 두고, 그리스도께 그 물을 축복해 주시고 포도주로 변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스도 곁에서 영적으로 취해 보자.

— 게론다, 그 물은 도대체 어떤 물인가요?

— 그것은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 그럼 취함은 무엇입니까?

— 성령으로 인한 취함입니다. 성령에 취한 이들은 항상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의 부드러운 사랑을 기뻐합니다.

사람이 하늘의 포도주로 영적으로 취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순교와 같은 것이 되지만, 좋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에 어울리지 않게 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으며,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깁니다.¹³¹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되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파나시이 할아버지, 당신 오두막이 불타고 있어요!” — 오두막에 불이 난 한 할아버지에게 사람들이 소리쳤다. — “뭐, 그냥 타게 놔둬,” — 그가 대답했다. 술에 취해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¹³⁰ 성대한 토요일 캐논 제8곡의 이르모스 가사. 교회 슬라브어로 “우자스니시”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리스어 “εκοστηθι”는 문자 그대로 “황홀경에 빠지다”를 의미한다. — *번역자 주*

¹³¹ 빌 3:8 참조

또 다른, 천상의 취기는 좋은 것이지만, 사람은 항상 그곳, 끝없는 천상의 포도주 통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던 낙원의 신성한 수도꼭지를 찾아, 천상의 포도주를 마시며 끊임없이 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2장.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랑과 겸손은 자매 같은 두 미덕이다

— 게론다, 제게 이토록 많은 정욕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 사랑과 겸손으로요. 사랑과 겸손이 자라나기만 하면, 교만과 악의는 고갈되고 정욕의 최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모든 정욕은 사라지고 나머지 모든 미덕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힘을 사랑과 겸손을 얻는 데 쏟으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쌍둥이 형제처럼 겸손과 떨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겸손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 속에서 겸손을 찾고, 겸손 속에서 사랑을 찾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 영적 삶의 기초는 사랑과 겸손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 곧 사랑이 거하시며, 겸손이 있는 곳에서는 마치 그 힘이 사람의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아 두는 듯하다. 그러면 온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땅은 낙원으로 변한다. 반면 사랑과 겸손이 없는 곳에는 탕갈라슈카, 즉 원수가 거하며,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이미 이곳에서 마치 지옥에 사는 것처럼 지내며, 날이 갈수록 내세에서의 운명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가장 쉬운 길은 바로 사랑과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미덕은 하나님을 자비로 이끌고, 그분의 피조물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냅니다. 이 두 가지 특징, 즉 겸손과 사랑을 통해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에 안아 두려움 없이 공중의 시련을 헤쳐 나가게 하며,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소중한 참된 사랑

— 제 생각에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 세균으로 가득 찬 육체적 사랑; 겉으로만 보이는, 외면적이고 위선적이며 얇은 세속적 사랑; 그리고 참되고 순수하며 소중한 영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불멸하며,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 헤론다, 제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지 말입니다.

— 헤론다, 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 네게 남아 있는 그 작은 사랑의 씨앗을 뿌려라. 그 사랑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라. 그 열매를 네가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더 많은 사랑을 뿌리고,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며, 그렇게 점차 네 곡창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사랑을 담을 곳이 없어질 것이다. 사랑을 더 많이 뿌릴수록, 사랑은 더 크게 자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부가 작은 씨앗 봉지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뿌린다고 치자. 그러면 그는 열매를 거두어 큰 봉지를 가득 채운다. 만약 그가 그 봉지에 든 열매를 다시 뿌린다면, 수확할 때 씨앗으로 자루 하나를 가득 채울 것이다. 그리고 씨앗이 많아지면 그것을 뿌리면, 결국 곡창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씨앗을 봉지에 담아두고 심지 않으면, 씨앗에 벌레가 생길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뿌려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자라나려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그 적은 사랑조차 베풀지 않는 사람은 마치 한 줌의 씨앗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뿌리려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재능을 숨겨둔 간사한 종입니다.¹³²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느냐에 따라 그만큼의 사랑을 받게 된다.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보라,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동시에 자녀들에게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은 끊임없이 커져 간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타인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타인에게서 받기만 원하며, 어떤 선행을 할 때에도 보답만을 생각한다면, 그때 우리의 사랑은 귀한 사랑이 아니라 값싼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다른 사람들도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다투며, 누가 더 많은 사랑을 차지할지를 거룹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귀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다투며, 누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지를 거룹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것과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것과 자신을 내어주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에게 사랑받지만, 무엇보다도 그들과 한 혈통이신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습니다.

¹³² 마태복음 25:25 참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혜택을 얻기 위해 선행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연약함으로 가득 찬 값싼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귀하고 귀한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 계론다, 제 사랑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 바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 너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기에 어려운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사랑이 인정받는지 여부에 신경 쓰지 않는다. 순수한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

— 제가 베푼 선행을 잇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저절로 잊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게 가해진 악도 마찬가지로 잊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네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풍요로움을 쌓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랑에서 ‘나’를 지워내기

— 계론다,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¹³³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항상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 희생 속에 이기심이 깃들 수도 있나요?

—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데, (그때 저는 아직 평신도였죠) 코니차 주민 중 한 명이 부활절 예배가 끝난 후 마주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산 위에 있는 수도원으로 가서 성모님께 램프를 켜고 올게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태도를 보니, 그 사람 안에 교만과 사리사욕이 깃들어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밤에 램프를 켜러 수도원으로 갔는데, 가는 데 두 시간, 돌아오는 데 두 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길은 끔찍할 정도였다! 교회는 버려진 상태였고, 온통 쓰레기가 널려 있어서 램프 심지와 부유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결국 그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마도 예배가 끝난 후 누군가 그에게 “집에 돌아가면 램프를 켜라”라고 말했더라면, 어쩌면 그는 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고 싶었다면, 소란 없이 조용히 수도원에 가서 램프를 켜어야 했다.

— 그렇다면 사람은 자만심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¹³³ 요한복음 13:34

—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는 있지만, 사랑은 없을 수도 있다.¹³⁴

— 그런 희생에 가치가 있나요?

—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나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¹³⁵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되려면, 이기심이나 교만 등 인간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자신을 희생할 때, 그것은 그에게 사랑이 있다는 뜻이며, 그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자기 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저는 고귀함이 담긴 참되고 진정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모든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사랑 속에 ‘나’가 깃들어 있다면, 즉 그 사랑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정화하여 우리 사랑에서 ‘나’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랑에서 ‘나’를 제거할 때, 비로소 각자는 상대방 안에서, 그리고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사랑으로 연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문제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 게론다, 사람이 어떻게 온 세상을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팔이 짧은 사람이 어떻게 온 세상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으려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니까, 헤론다?

—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사람이 그런 사랑을 갖게 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타인을 위해 양해할 만한 사정을 찾아내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에게 도둑질을 당하더라도, 그 도둑이 잡혀 감옥에 갇히면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다. “내 탓에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라고 그는 말할 것이다. “내가 그가 필요로 했던 돈을 줄 방법을 찾았더라면,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달래줍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망가뜨리거나 부수거나 나쁜 짓을 해도, 어머니는 그가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즉시 용서합니다. 마

¹³⁴ 고린도전서 13:3 참조

¹³⁵ 고린도전서 13:2

찬가지로, 네 이웃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모든 약점을 용서하고 그의 죄를 보지 않게 되며, 설령 보게 되더라도 즉시 용서하게 된다. 그러면 네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모두를 참아 주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 헤론다, 저는 모든 일에 좀 편협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게 마음이 없는 건가요?

— 네게 마음이 없다고? 네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니? 하지만 네가 그 마음을 네 편협함으로 짓누르게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괴로워하는 거야. 마음이 넓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마음이 좁고 소심한 사람은 한 마디 지적이나 불쾌한 사건 하나만으로도 낙담에 빠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 왜요?

— 그 사람의 ‘배터리’ 용량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이지.

— 제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른 사람들의 미숙함과 결점을 용서해 주세요. 모든 일에 영적인 태도로 임하고,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당신이 하느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만약 무언가가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 그러면 제 마음도 넓어지나요?

— 네 마음이 더 넓어지려면, 그 안에서 무언가를 치워야 한다: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너를 숨 막히게 하는 이기심과 좁은 생각의 덩굴이 시들면, 네 영적인 나무는 자유롭게 자라날 것이다. 네 마음이 조만간 완전히 해방되어 무성하게 자라고 넓어지기를 바란다. 아멘.

지금 제가 무슨 기분을 느끼는지 아세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모성애와 부드러움, 다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¹³⁶ 제 안에는 온 세상이 들어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에 안고 싶고, 그들을 돕고 싶어요. 사랑은 마음속에 숨겨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젖이 흘러나오듯이, 사랑도 빠져나갈 길을 찾게 마련이죠.

¹³⁶ 1981년에 파이시이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 안에 신성한 사랑의 불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 천상의 달콤함을 느꼈습니다. 제 온몸이 불타올랐고, 제 뼈는 마치 타오르는 촛불처럼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거나 어딘가로 가야 할 때면, 저는 스스로를 다그쳐 그 상태에서 벗어나곤 했습니다. 이 천상의 달콤함 때문에 여러 번 땅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세상을 위한 아픔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위해 아파하며, 날이 갈수록 이 아픔은 커져만 갑니다. 저는 말 그대로 기진맥진해 가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마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 게론다, 아바 팜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¹³⁷ “마음이 있다면”이라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이 있다면”은 “감수성이 있고 무감각하지 않다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이 있다면”은 “선하다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음이 있다면”은 “인내심이 있다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음이 있다면”은 “용기가 있다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살덩어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할 마음가짐과 고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힘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마음은 마치 끊임없이 재충전되는 축전지와 같습니다. 지치지도 늙지도 않으며, 그 힘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꾸어야 합니다. 나에게도 마음이 있고, 당신에게도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꾸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가꾸지 않는다면, 거인일지라도 전혀 담대함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작고 허약한 사람은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하므로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도 한 명의 연약한 자매가 있지만, 그녀는 모든 일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일을 어떻게 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까를 생각합니다. 그녀는 어떤 일이라도 사랑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 일에 진심으로 애정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자만심도, 남의 눈치를 보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기에, 그 덕분에 신성한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래 체력이 약하거나 이미 나이가 들어 몸이 큰 부담을 견디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몸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마치 타이어 공기가 빠지고 차축이 부러졌지만 엔진은 튼튼한 낡은 자동차와 같아서, 그런 차를 밀기만 하면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젊고 힘센 사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지 않는다면, 마치 엔진이 약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새 차와 같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에게는 해낼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 가끔 어떤 노인이 내 방에 우산이나 가방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나는 젊은이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자, 독수리야, 빨리 달려가서 그 노인을 따라잡아 봐.” 제가 그 말만 해도 “독수리”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신부님, 그분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 “무슨 소리야, 어서 가서 선행을 베풀어 봐,”

¹³⁷ Τὸ Γερωντικόν. 아테네, 1981. 102쪽.

—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는 또 한숨을 쉬죠. ‘달려가’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이미 지쳐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동물보다도 못하여 조각상이나 기념비처럼 되어 버린다. 그의 마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성과 마음의 협력

— 게론다, 가끔은 이성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 서서히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겨가면,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함께 움직여야 하며, 머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당신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참아내야 한다”거나 “그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는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형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걱정하거나 마음이 설레지 않는 것입니다.

— 이성과 마음 사이에 거리가 있다면,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마음이 이성을 따르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 마음과 이성 사이에는 어떤 거리가 있나요? 왜 거리가 있어야 하나요?

— 머릿속으로는 올바르게 생각하지만, 마음은 정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머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진단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료에 신경 써야 합니다. 모든 영적 작업은 이성과 마음이 함께 합니다. 이성은 송신기이고, 마음은 수신기입니다. 사람이 송신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수신기도 그 주파수로 작동합니다. 이성이 세속적으로 작동하면, 마음에게 세속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영적으로 작동한다면, 마음은 감동받고 영적으로 아파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거나 베두인족이 낙타 배설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¹³⁸

— 헤론다, 저는 제가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 모르시나요? 요즘 의사들은 심장이 뛰게 하려고 흉곽을 열고 그 안에... 건전지를 넣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심장을 찢어서 시동을 걸고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¹³⁸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20세기 60년대이다. - 편집자 주

— 그게 무슨 말인가요?

— 제 생각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껴, 감격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실감하고 고통스럽게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에게 연민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 게론다, 저는 제가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행동합니다. 이게 옳은 건가요?

— 보세요, 마음에 하느님을 향한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그때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모든 움직임은 순수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순수한 사랑이 없을 때는 그 솔직함을 제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움직임은 세속적인 독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 제 솔직함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를 운전해 본 적 없나요? 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자, 이제 말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마음에 브레이크를 달아야 해요.

— 그래, 이성이 마음을 제동해야 해. 왜냐하면 마음이 이성보다 앞서 나가면 헛돌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게 많은 이성과 큰 마음을 주셨지만, 네가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음은 헛돌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단순하고 사랑으로 다스려라.

“결핍에서...”¹³⁹

— 게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¹⁴⁰ 저는 무언가를 주거나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이시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집으로 맞아들였던 그 과부를 기억하십니까?¹⁴¹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얼마나 큰 사랑을 지녔는지요! 선지자가 와서 그녀에게 빵을 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과 밀가루가 조금 있는데, 이걸로 아이들과 함께 먹고 죽을 거예요.”라고 말했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그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위해 빵을 굽고, 그다음에 자신과 아

¹³⁹ 누가복음 21:4

¹⁴⁰ 고린도후서 9:7

¹⁴¹ 선지자 엘리야는 가뭄 때문에 호라프 시내로 갔다. 그 시내마저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돈의 사렙타로 보내어 한 과부가 그를 먹여 살리게 하셨다(참조: 열왕기상 17:1-24). — 편집자 주

이들을 위해 굶도록 요청했을 때, 그 가난한 여인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온갖 나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내가 기름과 밀가루가 조금밖에 없다고 말했는데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냐, 이제 와서 먼저 나를 위해 빵을 굶기를 원하다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호의가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시나이 산에서,¹⁴²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베두인족 아이들이, 제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면, 비록 아주 조금만 주었더라도 서로 나누어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에게 조금씩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에게 부족하면, 각자 자신의 몫에서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수련한다면, 성인과 수행자들의 본보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서도 유익을 얻으며, “나에게 이런 좋은 품성이 있을까? 심판의 날에 나는 어떻게 서게 될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도움이든 물질적인 도움이든, 우리가 가진 부족한 것 중에서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령, 내게 베개가 세 개 있다고 합시다. 내가 쓰지 않는 베개를 타인에게 준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자고 있는 그 베개를 그에게 준다면, 그때야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희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과부에 대해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¹⁴³

사랑의 불길 속에 낡은 계산법을 던져버리십시오

—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론다.

—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 원합니다, 헤론다. 어떻게 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그렇다면, 왜 너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그리스도를 크게 슬프게 하고 있다. 그분은 네게 만 탈란트의 빚을 용서해 주셨는데, 너는 다른 사람의 백 디나리온을 용서해 주려 하지 않는다.¹⁴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나를 참아 주시고, 게다가 수십억 명의 다른 사람들도 참

¹⁴² 파이디스 장로는 시나이에서 지냈던 시절(1962-1964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편집자 주.

¹⁴³ 누가복음 21:3

¹⁴⁴ 마태복음 18:23-35 참조. 만 탈란트의 가치는 백 디나리의 가치보다 7,000배 더 높았다. — 편집자 주.

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단 한 명의 자매조차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 번은 어떤 청년이 내 방을 찾아왔는데, 그는 어떤 사람과 다투었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음에도 용서하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하길, “헤론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도하겠소,” 내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으시도록.” 그가 다시 나에게 청했다. “헤론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 “자네가, 내 사랑,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네를 용서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신성한 정의입니다. 어느 날 티혼 신부님의 방에 한 평신도가 들어와 그를 털려고 했습니다. 그가 장로를 밧줄로 목을 조르는 등 충분히 괴롭힌 뒤, 그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떠나려 했다. 그가 떠날 때 티혼 신부는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내 아들이.” 그 후 이 강도는 다른 장로의 거처를 털러 갔지만, 그곳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티혼 신부님의 거처도 털러 갔다고 스스로 자백했다. 경찰관은 티혼 신부님을 심문하러 데려오라고 헌병을 보냈지만, 신부님은 가기를 거부했다. “나, 내 아들이,” 장로가 헌병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도둑을 진심으로 용서했다.” 그러나 헌병은 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신부님, 빨리 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용서해 달라’는 말이나 ‘축복해 달라’는 말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결국 장로가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하자, 경찰서장은 그를 불쌍히 여겨 풀어주었다. 장로가 이 일을 회상할 때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아들이,” 그가 말하곤 했다. “이 세속 사람들은 그들만의 규칙이 있어. 그들에게는 ‘축복해 주십시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도 없구나!”

— 게론다, 원한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에게 가해진 악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 만약 네가 악을 기억하고, 그 악을 저지른 사람의 일이 잘 풀릴 때 속상해하거나, 일이 안 풀릴 때 기뻐한다면, 그것은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너에게 저지른 악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남들이 나에게 저지른 어떤 악행도 잊어버립니다. 옛 원한을 사랑의 불길에 던져버리면, 그것들은 저절로 타버리죠. 1944년 내전 당시, 반군들이 우리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먹을 것이 없을 거야. 사람들이 굶주릴 텐데. 그들에게 빵을 조금 가져다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내가 빵을 가져다주자, 그들은 나를 수상하게 여겨 붙잡아 두었다. 나는 산속에 숨어 있던 내 형제들을 이 반란

군들이 쫓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¹⁴⁵

사랑과 연민

— 게론다, 수도실에서 지내시기가 얼마나 힘드신지요! 정신 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여부가 드러납니다. 우리 형제의 얼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내 작은 형제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¹⁴⁶

어느 날 한 신부님이 귀신 들린 청년 아들을 데리고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과 거의 동시에 제 지인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아버지를 따로 불러내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소년이 귀신 들린 이유가 바로 그 아버지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청년! 건강해 보였는데 코에서 콧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를 본 내 지인이 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소년의 코를 닦아준 뒤, 손수건을 다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목에 걸고 있던 금 십자가를 풀어 소년의 목에 걸어주었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사랑 어린 마음으로 소년의 코를 닦아 주었는지였습니다 — 그리고 그 소년이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도 보셨더라면! 그 사람은 그를 형제처럼 동정했다. 만약 그가 그 소년에게서 형제를 보지 못했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했을까? 다른 사람을 형제처럼 사랑한다면, 자신의 손수건으로 그의 코를 닦아주고 나서 다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없다면, 다른 사람은 당신에게 이물질 과 같은 존재가 되므로, 그 사람의 어떤 접촉에도 몸이 움찔하게 되고, 우연히 침이 튀기만 해도 당신은 당장 허둥지둥 달려가 세수를 하려 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을 동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만약 내가 장애인이라 걸을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연민입니다. 하지만 사람 자신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조차, 그 안에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연민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

¹⁴⁵ 마태복음 5:44; 누가복음 6:27 참조.

¹⁴⁶ 마태복음 25:40

의 고통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파합니다. 저는 누군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면, 설령 못 위에 앉아 있거나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맨발로 걷고 있다 해도 제 자신의 고통은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됩니다.

— 성 마르코 수도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한 가지 정욕이 있으니, 바로 게으름입니다. 이 정욕은 기도와 자선으로 치유됩니다.”¹⁴⁷ 왜 이 경우 자선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까요?

— 자선과 친절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선은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마음에 작용합니다.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바라볼 때 잔인한 마음이 누그러지고, 더 수용적이며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를 스스로 길러내지 못하고, 이웃을 동정하지 않으며, 소홀함으로 인해 점차 냉혹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심지어 뱀의 입장에도 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햇볕을 쬐러 기어나왔는데,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달려와 내 머리를 때린다면? 아니, 좋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뱀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곤충의 입장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연민 속에는 평범한 사랑보다 더 큰 힘을 지닌 사랑이 숨겨져 있다. 네가 타인을 연민한다면, 그를 더 강하게 사랑하게 된다. 사랑에 연민이 깃들여 있을 때, 너는 악마에 사로잡힌 형제를 품에 껴안으면, 악마가 그에게서 빠져나온다. 왜냐하면 연민이 담긴 굳건한 사랑,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거룩한 위로로 위로하고, 악마의 군대를 무너뜨리며, 영혼을 해방시키고, 그 위에 쏟아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유로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람은 온통 커다란 연민 그 자체입니다. 타인을 연민하며 지쳐 가면서도 기도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비록 남의 고통을 떠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서 고통을 가져가시고 영적으로 위로해 주시므로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이 알려줍니다

— 게론다, 제가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나요?

¹⁴⁷ 우리의 거룩하고 신성한 아버지 마르쿠스 수도사의 『영적 법에 관한 200장』. 테살로니키, 1974. 21쪽.

— 사랑을 나타내라고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위선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드러낸다는 말입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치레 같은 표현 없이도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사랑이란 타인의 아픔을 연민 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란 힘든 순간에 상대방에게 보내는 연민 어린 시선과 한 마디 말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란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 속에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에게서 나오는 거친 말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많은 말과 겉치레보다 더 유익합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 마음가짐과 사랑을 알려 주시며,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악의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면에 존재한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낍니다. 결국 마귀도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¹⁴⁸ 혼란을 가져오지만, 진정한 천사는 형언할 수 없는 가벼운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 헤론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향한 사랑을 전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아마도 네 안에 사랑을 키우지 못한 게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게 된다.

사람은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지 알아챱니다. 사랑은 전보처럼 그에게 곧장 전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동 보호 시설에 가면 아이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즉시 알아챱니다. 어느 날, 아동 보호소를 설립하려는 몇몇 사람들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이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때 한 의사, 매우 경건한 분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게론다. 우리가 처음 아동 보호 시설에 갔을 때, 아이들은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 신사분은 그냥 놀러 오신 거고, 이분은 우리랑 놀러 오신 거고, 이 신사분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라고 말하더군요.” 보시다시피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거리를 없애줍니다

— 헤론다,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나요?

— 무전기로, 혹은 모스 부호를 통해 서로 메시지를 전하죠!..

¹⁴⁸ 고린도후서 11:14

— 그게 무슨 말입니까?

— 사람들이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려면 같은 주파수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산 수도사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를 기억하십니까?¹⁴⁹ 어느 날 한 수도사가 카프살레에 사는 다른 수도사를 방문하려고 마음먹고, 무엇을 선물로 가져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고기 두 마리를 잡아 선물할 준비를 하며 손질하기 시작했다. 한편 다른 수도사는 형제의 방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생각에 잠겼다. “형제가 오면 무엇을 대접해 줄까?” 첫 번째 형제가 물고기를 손질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채더니, 5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를 날아가 카프살레에 있는 두 번째 수도사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까마귀가 그들 사이의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 즉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설령 말을 못하더라도 수십억 명의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연령대의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각 연령대마다 고유한 의사소통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을 나란히 앉혀 놓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앉혀 놓고 그들에게도 조용히 있으라고 하세요. 두 그룹 모두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첫 번째 그룹도 침묵하고, 두 번째 그룹도 침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들 사이에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첫 번째 그룹은 서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 게론다, 스승님께서 다시 우리를 떠나 멀리 가셔야 하는 날이 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 영적인 삶에는 “멀다”와 “가깝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리에 의해 갈라지지 않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거리를 없애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형제적 유대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는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러한 영적이고 천사 같은 사랑이 있어 거리가 사라지니, 저는 이 생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과 교제할 것이며, 다른 생으로 넘어갈 때에도 — 비록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지겠지만 — 그 거리조차 전혀 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 곧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¹⁴⁹ 참조: 게론트 파이시오스 아기오레티스. 『아기오레티아의 성부들과 아기오레티카』. 테살로니키, 2005. 9-10쪽.

제3장.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

타락 전후 인간의 동물과의 관계

— 게론다, 크리스마스에 저에게 소원을 하나 빌어 주세요.

— 네가 구유 곁에 서 있는 그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와 성모님 곁에 있기를 바란다. 구유에 누워 계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온기로 따뜻하게 해 드리는 송아지와 나귀처럼, 그 어린 양도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¹⁵⁰ —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는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구유에 누워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자신의 숨결로 그분을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창조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귀는, 그리스도를 이집트로 모시고 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통치자들은 금으로 장식된 전차를 탔지만, 그리스도는 무엇을 타고 가셨을까요! 제가 그 나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낙원에서는 동물들이 은혜의 향기를 느끼며 아담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¹⁵¹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음에도 낙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아담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이 그를 찢어발기려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다시 신성한 은총을 입어 타락 전의 상태로 돌아오면, 동물들은 그를 다시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는 더 이상 야생 동물이 아닌 야생 동물들 사이를 두려움 없이 거닐 수 있는데, 이는 주인이 그들을 길들였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사람의 사랑을 느낍니다

— 아바 이사악은 말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¹⁵²

— 네, 맞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동물은 물론, 심지어 악마에게까지 미칩니다. 영적인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그다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바치고, 남은 사랑은 동물과 모든 피조물에게 베푹니다. 이 신성한 사랑은 동물들에게 전해집니다. 동물들은 자신을

¹⁵⁰ 이사야 1:3

¹⁵¹ 참조: 창세기 1:28

¹⁵² 인용 출처: 아바 이사악 시린의 수행자적 말씀. 모스크바, 1993. 205-206쪽

사랑하고 동정해 주는 사람을 알아보고, 두려움 없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야생 동물조차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사냥하는 사냥꾼을 구분할 수 있다. 사냥꾼에게는 숨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가온다. 예전에는 뱀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뱀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사랑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나는 뱀도 사람의 사랑을 느끼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이 뱀의 입장에 서서 그 뱀을 동정하면, 뱀은 즉시 이를 알아차리고 친구처럼 사람에게 다가온다. 마치 “다행이다, 드디어 나도 친구를 찾았구나!”라고 말하는 듯하다.

— 어쩌면 이것이 본능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들에게 직감을 주셨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잃었지만, 지성과 추리 능력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플라타너스 나무를 보고 이곳 어딘가에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땅을 파서 물을 찾습니다. 반면 동물들은 이를 다른 방식으로 알아차리는데, 마치 어떤 레이더라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막의 낙타는 목이 마르면 스스로 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낙타 물이는 그 저 뒤를 따를 뿐입니다. 낙타는 마치 어떤 신호를 포착하는 듯합니다.

동물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 동물들에게 인간은 신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께 도움을 청하듯이, 그들도 인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폰 산에서 나는 성 바실리오 스키타의 테오피락토스 장로에 대해 들었는데, 그는 야생 동물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동물들은 그의 사랑을 느끼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의 거처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다리를 다친 노루 한 마리가 그의 거처 창문 아래로 다가와 애처롭게 신음하기 시작했다. 장로는 거처 밖으로 나와, 마치 어디가 아픈지 보여주는 듯 다친 다리를 자신에게 내밀고 있는 노루를 보았다. 그는 노루에게 기운을 차리라고 마른 빵 조각을 조금 건네주고, 나무 조각 두 개를 가져와 다친 부위를 단단히 묶어 주었다. 그리고는 노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일주일 후에 다시 오면 내가 살펴보겠다.” 이 복된 장로는 마치 의사가 아픈 사람과 대화하듯 동물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저는 게라심 성자가 자신의 발톱에서 가시를 빼달라고 찾아온 사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점이 놀랍습니다.¹⁵³

¹⁵³ 성 게라시모스 요르단 성인의 행적에는, 요르단 강변에 그에게 다가온 사자가 있었는데, 발에 큰 가시가 박혀 고통스러워 울부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성자는 그 동물을 불쌍히 여겨 발톱에서 가시를 빼주었다. 그 이후로 사자는 “충실한 제자”처럼 성자를 따랐다. — 편집자 주.

— 그분은 성인이셨으니까요. 게다가 동물들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결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노동자들이 제 수도실 옆을 지나며 노새에 장작을 싣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마리의 노새가 쓰러지자, 그 위에 장작이 실린 짐 안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 탈장도, 걷기조차 힘들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달려가서 노새에게서 장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장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노새를 가볍게 때리고 고삐를 잡아당겨 동물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한 신부님이 소리쳤습니다. “이봐, 너 허리 탈장이 있잖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그제야 나는 내가 탈장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좋아,” 내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탈장이 있는데, 넌 왜 도와주러 달려오지 않았어?” “노새가 날 걷어차지 않을까 봐 무서웠어요,” 그가 대답했다. — “있잖아, 친구, 동물은 설령 늑대라 해도 곤경에 처하면 도움을 청할 뿐, 사람을 해칠 수는 없어.”

동물들이 굶주림이나 갈증으로 고통받을 때도 역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곤 하는데, 사람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어느 여름날, ‘성스러운 십자가’ 수도원¹⁵⁴의 방에서 독사가 지붕에서 땅으로 기어 내려와 내 앞에서 고리 모양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일이 기억난다. 고개를 높이 치켜들고 혀를 내밀며 쉼쉼 소리를 냈다. 그 뱀은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날씨가 무척 더웠기 때문이다—그리고 나를 위협했다. 마치 내가 그 뱀에게 물을 공급해 줘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물을 요구했다. “그래,” 내가 그 뱀에게 말했다. “그런 태도로는 다른 사람들을 별로 호감 있게 만들지 못하겠구나!” 그러고 나서 나는 그 뱀에게 물을 따라주었고, 뱀은 배불리 마셨다. 그리고 자칼들은 나를 정말 감동시키곤 하는데, 배고플 때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울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내 방에 있는 새끼 고양이들¹⁵⁵은 정말 골칫거리다. 그들은 방울이 울릴 때마다 제가 마당으로 나가서 가끔 먹을 것을 가져다준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면 밧줄을 잡아당겨 방울을 울리죠. 제가 나가서 그들이 밧줄을 잡아당기는 걸 보고는 먹이를 줘요. 하느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잘 마련해 주셨네요!

— 게론다, 스승님의 방에 동물들이 찾아오나요?

— 안 올 리가 있겠습니까, 오쵸! 자칼도 오고, 멧돼지도 오고... 가끔은 작은 여우도 달려옵니다. 고양이들이 떠나면 여우가 달려오죠. 여름에는 멧돼지가 보이지 않는데, 사냥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뱀만 보일 뿐인데, 사람들이 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옵니다. 큰 새도 있고 작은 새도 있죠. 저는 물에 불린 빵 부스러기를 주면, 새들이 먹습니다. 루쿠무에서 나온 견과류는 봄을 가져다주는 새들을 위해 따로

¹⁵⁴ 1968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 — 편집자 주.

¹⁵⁵ 여기서 말하는 것은 파나구다의 수도실이다. — 편집자 주.

챙겨 둡니다. 이 불쌍한 새들은 아직 눈이 쌓여 있는 겨울부터 봄처럼 노래를 부릅니다. 한마디로, 위로가 됩니다. 새들이 견과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 게론다, 시나이 산에는 동물들이 있었나요?

— 시나이 산은 사막이라 야생 동물들이 더 많았고, 새들도 많았지요. 메추라기, 꿩 같은 것들, 유대인들이 사막에서 먹던 바로 그 새들이었죠.¹⁵⁶ 또 거북이를 닮은 아름다운 쥐들도 있었는데, 꼬리가 없고 등에는 칫솔처럼 뾰뾰한 털이 나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동물들—메추라기, 꿩, 쥐들—에게 먹이를 주었어요! 서로 다투지 않도록 돌판 위에 먹이를 따로따로 놓아두곤 했죠! 안 그러면 새가 쪼기 시작하자마자 쥐가 달려들면, 새는 날아가 버리거든요.

새들은 내가 어디로 가든 나를 따라다녔다. 내가 바위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새들이 모여들었고 나는 그들에게 쌀을 조금 던져주곤 했다.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기만 하면 새들이 금세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한 번은 허리가 쭈서서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마리의 새가 제 방 안으로 날아들어와 가슴 위에 앉았습니다. 그 새는 앉아서 제 얼굴을 바라보며 몇 시간 동안 줄곧 아주 아름답게 지저귀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동물들에게서 본보기를 따르자

— 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뭐죠, 게론다?

— 벌 떼가 제 창문 뒤에 둥지를 틀었거든요,¹⁵⁷ 이제 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저녁마다 이런 소음을 참아야만 해요! 가보시죠, 제 양봉장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벌들은 건축가도, 시공업체도 없는데도 모든 것이 건축학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올바르게 영적으로 수고하여, 영적인 꿀을 주는 영적인 벌집을 만들어, 평신도들이 와서 먹고 영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게론다, 시편 기자가 “주님, 사람과 가축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¹⁵⁸

— 이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도 도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동물을 수호하는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동물들 스스로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니, 불쌍한 것들! 우리라면 일주일도 그들이 인간을 섬기며 감당하는 그 순종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먹이를 주면

¹⁵⁶ 출애굽기 16:13; 민수기 11:31-32 참조.

¹⁵⁷ 벌 떼가 닫힌 덧문 틈새로 들어왔다. 벌들은 닫힌 덧문과 창문 유리 사이의 공간에 벌집을 지었다. 파이시이 장로님의 경우, 이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커튼도 내려져 있었다. (이 사건은 1993년 6월 이시하스티리아에서 일어났다). — 편집자 주.

¹⁵⁸ 시편 35:7

다행이지만, 주지 않으면 굶주린 채로 남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매를 맞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우리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한 마디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물들은 탐욕 없음과 인내, 그리고 순종 면에서도 우리를 능가한 것입니다.

동물과 곤충의 삶을 관찰해 보세요. 유익한 일입니다. 저는 지도자 없이도 개미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지 지켜봅니다. 어떤 사람도 개미들만큼의 세심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 개미들은 아직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나뭇가지나 그 밖의 쓸모없는 것들을 개미집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어른 개미들은 이를 막지 않지만, 나중에 직접 개미집 밖으로 모두 꺼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 개미들은 어른 개미들이 개미집으로 무엇을 가져오는지 지켜보며 배워 나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봐, 너, 이리 와 봐. 그게 대체 뭐야? 어서 빨리 버려!”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사람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들로부터 본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올레트 — 부지런한 새

— 지난 편지와 함께 낙원에서 동물들과 함께 있는 아담이 그려진 성화를 보내주셨더군요. 그래서 저도 제 쪽에서 한 마리의 새, 제 가장 친한 친구의 그림을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뱀 그림을 보내드렸다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테니까요. 저는 그 새의 이름을 ‘올레트’라고 지었는데, 아랍어로 ‘아이’라는 뜻입니다. 올레트는 제 수도실에서 500미터 떨어진 언덕에 삽니다.¹⁵⁹ 매일 정오가 되면 저는 그에게 선물과 간식을 가져다줍니다. 제가 먹이를 주면, 그는 아주 조금만 먹고는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돌아오라고 소리치면, 그는 잠시 날아갔다가 곧 다시 돌아와 조용히 뒤에서 날아와 제 조끼 밑에 숨습니다. 제가 떠날 때면, 그는 약 100미터 정도까지 저를 배웅해 줍니다. 저는 그가 더 이상 저를 따라오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기 위해 부스러기를 던져주고, 그가 저를 시야에서 잃을 때까지 재빨리 앞서 나갑니다.

요즘 올레트는 엄격한 생활을 접고 즐거움을 찾고 있어요! 으깬 쌀도, 물에 불린 빵 부스러기도 먹지 않고 오직 벌레만 먹는데, 게다가 제가 그걸... 접시—손바닥—위에 올려주길 원해요. 그 위에 앉아서 먹거든요. 발전이네요!

요즘 나는 올레트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왜 올레트에게만 예외를 두는 거야? 다른 새들에게는 왜 올레트에게 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는

¹⁵⁹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스러운 십자가’의 수도실이다. — 편집자 주.

거야?”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제가 올레트를 부르면, 그는 다른 새들, 즉 친구들과 함께 날아옵니다. 다른 새들은 곧바로 먹이에 달려들지만, 올레트는 순종과 사랑 때문에 날아옵니다. 배가 고플 때조차도 오랫동안 저와 함께 앉아 있다가, 제가 직접 먹이를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은 날씨가 좋아졌고 올레트에게는 먹이와 벌레, 지네가 많지만, 배가 부르데도 내가 부르면 여전히 날아옵니다. 순종심 때문에 날아오는 것이죠. 이 성실하고 애정 어린 새를 다른 새들보다 더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깊은 사랑 때문에 올레타를 손바닥에 꼭 쥐고 싶지만, 마치 새끼들을 꼭 껴안다가 결국 질식사시켜 버리는 그 원숭이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워요. 그래서 올레타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고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¹⁶⁰

어느 날 나는 발걸음을 늦췄고, 언덕에 도착했을 때 올레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날은 바람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처럼 먹이를 두고 떠났다. 다음 날 나는 올레타가 매에게 잡아먹히지는 않았을까 봐 걱정되어 아주 일찍 그를 찾아갔다. 올레타는 전날 저녁에 남겨둔 먹이를 보자마자 “유혹에 빠진 듯” 내 방 쪽으로 날아와 길 중간에서 나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나를 보자 기쁨에 겨워 마치 미쳐버린 듯했다. 나는 그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지만, 그는 음식보다 내 곁에 있는 것을 더 원했다. 나는 그의 절제심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내가 그의 미덕을 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올레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겠지만, 그가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레트와 제가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 거처에는 새들뿐만 아니라 그곳을 찾아오는 모든 동물들—자칼, 토끼, 족제비, 거북이, 도마뱀, 뱀—이 — 제 넘치는 사랑으로 배불리 먹습니다. 그들도 배불리 먹을 때 저도 배부르게 되며, 모두 함께, “짐승과 모든 가축, 기어다니는 것과 날개 있는 새들”¹⁶¹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경배합니다.”¹⁶²

¹⁶⁰ 파이시이 장로의 동물에 대한 사랑은 병적인 집착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쏟아지는 “자비로운 마음”의 표현이었다. — 편집자 주.

¹⁶¹ 시편 148:10

¹⁶² 성경의 찬송 중; 제8편.

제3부.

고귀함과 사랑

“고귀함이 있는 곳에는 고요함과 눈에 띄지 않음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안식하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살아 있다”

제1장.

고귀함 — 하나님의 위대하심

고귀함이란 무엇인가

— 게론다, 대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고귀함, 영적인 고귀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 대사순절은 주로 회개의 시간이 아닌가요?

— 고귀함, 고귀함,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고귀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고귀함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여러분은 밤낮으로 그것을 쫓아다니며 잠자는 것조차 잊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 고귀함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고귀함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 영적 고귀함은 영적 우월성과 희생 정신입니다. 고귀한 영혼은 오직 자신에게만 요구할 뿐,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베푼 것은 잊어버리지만, 받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기억합니다. 사랑, 겸손, 소박함, 이타심, 정직함...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기쁨과 영적인 환희, 환호도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 고귀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으며, 이는 마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신성한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귀함이 있는 곳에는 고요함과 눈에 띄지 않음이 있기에,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안식을 취하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영적 고귀함은 곧 영적 정의입니다.

— 게론다, 영적 고귀함이 영적 정의보다 더 높은 것입니까?

— 영적 고귀함 속에는 영적 정의가 있고, 영적 정의 속에는 영적 고귀함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귀함 그 자체가 바로 영적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고귀함을 지

닌 사람에게는 법이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¹⁶³ 그런 사람은 차라리 죽음을 당하는 것을, 스스로 죽이는 것보다 더 선호합니다.

— 게론다, 누군가 저에게 무언가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 저는 곧바로 다른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하곤 합니다.

— 사람이 고귀함을 얻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건조한 논리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귀함은 논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인간의 논리와 세속적인 정의에 따라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더 높은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가진 권리가 적고, 영적인 사람은 오직 베풀기만 할 뿐 결코 스스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 그렇다면 왜 복음서에는 “구하는 자는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¹⁶⁴

—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타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면, 역시 그 사람은 오직 자신의 편익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가 병에서 회복되거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¹⁶⁵도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귀신에 들린 자신의 딸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리스도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청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 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노라.”¹⁶⁶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계속 소리치며 도움을 청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돌아서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¹⁶⁷ 그러자 그녀가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네 딸이 나왔다.” 그녀의 믿음과 겸손, 고귀함, 영적 우월성을 보라! 만약 그녀가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주님께서 저를 개에 비유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셨군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그분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양심은 매우 올바르고 공정하게

¹⁶³ 디모데전서 1:9.

¹⁶⁴ 마태복음 7:8; 누가복음 11:10.

¹⁶⁵ 마태복음 15:21-28; 마가복음 7:24-30 참조.

¹⁶⁶ 마태복음 15:24

¹⁶⁷ 마태복음 15:26

행동했다고 생각하며 평온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 게론다, 그녀의 믿음이 도움이 되었나요?

— 그녀의 고귀한 품성이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자만심도 없었고,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한 생각을 품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백성에 속해 있습니다.”

고귀함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 제게는 어떻게 고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게론다?

— 겸손하게 행동하고, 순수한 열정과 성실함으로, 정직하게 행동하십시오. 영적 수용력을 키워라. 타인에게서 오는 괴로움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네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괴로움을 당한다는 사실에 기뻐하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만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것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남을 괴롭히고 싶지 않지만, 남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라 거친 말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남에게 거친 말을 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감수성이란 말인가? 순수한 감수성에는 고귀함이 있다.

— 사람에게 결점이 있지만 고귀함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 고귀함은 결점을 몰아낼 것입니다.

— 영적 자유란 정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까?

— 영적 자유란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얻으라고 말씀드리는 고귀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귀함을 지니려면, 그 안에는 저급한 정욕이나 소심함, 비열함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심함과 비열함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고통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고귀함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 아, 여러분은 아직도 고귀함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군요! 고귀함에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고귀함이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고귀함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취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고, 지금도 계속 바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자녀들이 때로는 심지어 부모를 때리기도 함에도 불

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앞으로 닥칠 일을 알면서도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동물과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는 새끼들을 돌보지만, 새끼들도 자라면 자신의 새끼들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이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너그러운 고귀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 게론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족이 되는 것입니까?

—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영적인 고귀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 혹시 수녀가 자신의 방에서 영적 수행에 몰두하다가, 그 후 공동 작업에 참여할 힘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 어떤 영적 수행을 말합니까?¹⁶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요? 즉, 다른 사람은 일하게 두고, 나만 영적 수행에 몰두하겠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이는 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젊은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은 선배를 어떻게 도울지 생각해야 합니다. 참으로, 젊은이는 소위 영적 수행에 몰두하고, 나이 든 사람은 억지로 모든 일을 혼자 다 해야 한다니! 여기에 어디 희생 정신이 있습니까? 어디에 너그러운 고귀함이 있습니까? 나는 책을 읽고 기도를 드릴 테니,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헛된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영적 삶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귀하고 너그러운 변화를 아직 맛보지 못했기에, 오직 자신만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야 비로소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 내가 수도원에 살던 시절,¹⁶⁹ 지속적인 출혈이 있어 방에서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러던 중 창밖을 보니, 한 문지기 노스승이 도끼로 난로용 장작을 만들기 위해 그루터기를 쪼개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그 노스승께서는 장에 문제가 있어 끊임없이 출혈이 있었고, 완전히 쇠약해져 계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신발을 벗을 힘조차 없어 신은 채로 주무셨다고요. 나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가 도끼를 집어 들고, 그루터기를 두어 번 내리쳐 쪼개자, 그 순간 내 입에서 피가 솟아났다. 알겠나? 나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내 몸을 아껴주지도 않았다.

영적인 고귀한 관대함! 그 무엇도 이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단순한데, 우리는 왜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요! 모든 일에 영적 고귀함이 요구된다. 만약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지

¹⁶⁸ 영적 수행 — 수도사가 자신의 방에서 행하는 수행(묵주 기도, 절, 영적 유익을 주는 책 읽기 등). — 편집자 주.

¹⁶⁹ 파이지이 장로는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에스피그멘 수도원에서 수행했다. — 편집자 주.

못한다면, 일주일에 세 번 밤 예배에 참석하고, 한 달에 세 번씩 사흘씩 엄격한 금식을 지키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육체적 순결을 지킨다 해도 — 이 모든 것은 소용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즉 영적 고귀함, 곧 영혼의 순결함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안에 사리사욕, 제멋대로인 태도, 이기심, 남의 눈치 보기 등이 없어야 하며,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없을 때, 사람 안에는 영혼의 순결함이 있으니, 설령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친밀하며 그분과 하나되어 있는 것이다.

오직 너그러운 고귀함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같은 주파수로 작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수신기는 다른 방송국에 맞춰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안테나를 새 것으로 바꾸도록 노력해 봅시다... 안테나에는 수직형과 수평형이 있습니다. 수직형 안테나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어 신호를 잘 잡지 못하고, 쉽게 신호를 잃어버립니다! 반면 수평형 안테나는 넓게 펼쳐져 있어 작용 반경이 더 넓고, 약한 전파도 포착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을 향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나’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너그러운 고귀함이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도 없고, 그는 신성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고귀함을 얻거나, 비참함에 빠져버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 게론다, 저는 남을 시기하고, 사람들과 다투며,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 너에게는 영적 고귀함이 부족하고, 그 결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영적 고귀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 그와 함께 분별력도 얻도록 하라. 자, 말해 보거라. 다른 자매들처럼 나로부터 작은 성화상을 선물로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는지, 그리고 다른 때에 큰 성화상을 받았을 때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자, 나에게 영적 보고서를 제출해 보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나무로 작은 아픈 산을 조각해 아픈 산에서 보내주기로 한 결정이 옳았는지 살펴보겠다. 이미 수도원과 바위, 오솔길과 산책로가 있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었지... 크기는 대략 20센티미터 정도였어. 반쯤 완성된 상태였는데, 내 아이들이 그것을 달라고 조르더군. 축복을 구하며 끈질기게 조르길래 어쩔 수 없이 내주었지.

— 아마 아주 착한 아이들이었나 보네요...

— 정말 착한 아이들이었다면, 좀 더 고상한 마음을 가졌을 테고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말했죠. “제가 먼저 완성하게 해 주세요. 반쯤 된 작품을 여러분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도저히 듣지 않고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더군요. “아니,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줘! 굳이 힘들게 다 만들 필요는 없잖아!” 알겠어요? 제 삶

을 편하게 해 주겠다고 생각한 거죠!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예요! 상상해 보세요, 제게 한 사람은 심지어 축복의 의미로 눈알을 달라고까지 했답니다.

— 정말이에요, 게론다?

— 네, 진짜예요! 축복으로 눈을 달라고 했어요! 서른 살쯤 된 젊은이가 시력을 잃고 수술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를 제 방으로 데려왔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말했어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수술이 실패하더라도 제가 제 눈을 드릴게요. “제게는 한쪽 눈만 있어도 살기에 충분하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다시 찾아왔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양쪽 눈 모두 잘 보인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와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선생님께 눈 하나를 받으러 왔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잘 보고 있잖아요!”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을 축복으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를 다시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번에는 관대함이나 고귀함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 게론다, 저는 사람들이 제 노력을 인정해 줄 거라는 걸 알면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일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 있잖아, 지금 네가 나한테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지 알아? 스피리둘라라는 불쌍한 소녀 말이야. 대장장이가 그녀를 불러서 풍선을 불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지. “불어, 스피리둘라, 불어. 그러면 새 드레스를 사줄게.” 그래서 그 불쌍한 아이는 새 드레스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기에, 두 손을 들어 온 힘을 다해 풍선을 흔들었지! 알겠니? 고귀함을 얻지 못하면 너도 스피리둘라처럼 될 거야. 사람은 고귀함을 얻거나, 아니면 비참함에 빠져버리거나 둘 중 하나야.

— 저는 선생님께서 저를 다른 자매들보다 덜 신경 써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비록 내가 여기에서도, 아픈에 있을 때도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보아하니 넌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 같구나.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리고, 이제는 모은 것을 모두 잃어버린 절망에 빠진 거지처럼 보인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네가 속히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녹슨 그릇이 있는 오두막을 떠나 그리스도의 공주가 되기를 기도하겠다.

나는 고귀함을 지닌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고귀함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그가 내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나도 그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는다—그리고 그곳에 머무르며,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나와 함께, 곁에 있다.

제2장.

사랑 — 큰 감사의 사랑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고귀한 영혼들입니다

— 게론다, ‘사랑의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 사전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사랑의 고귀함”이라는 개념은 그 어떤 다른 언어에도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인들에게도 몇 가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고귀함과 용기, 그들은 모든 것을 유쾌하게 바라봅니다.

자, 제 사전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들어보세요. 사랑의 경건함은 선함의 정수이며, 큰 감사의 사랑이자, 모든 선함과 겸손입니다. 이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전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의 마음은 영적인 세련미와 수용력,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내면이 녹아내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온갖 방법으로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찬양 영역에 거하기 때문에 시련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고귀한 영혼을 지닌 이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 주는 사소한 선행 하나에도 깊이 감동하며, 그에 보답하려고 애쓰지만, 무엇을 하든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선행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 진정으로 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를 통해 자신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 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그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란 드뭅니다. 예전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깊었는지! 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다나에 살던 한 오스트리아 사업가가 제 아버지를 터키인들로부터 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파산하여 더 이상 아다나에 머무는 것을 모욕으로 여겼지만,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는 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파라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그를 맞아들여 노년에 편안히 지내게 해 주셨습니다.

— 자비심에도, 게론다, 한계가 있습니까?

— 아니요, 한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위대한 무모함입니다... 영적인 무모함입니다!

— 헤론다, 자비심에는 분별력이 필요한가요?

— 자비심에는 이성도 있고, 수용력도 있으며, 고귀함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비심 깊은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모욕을 당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수련을 기뻐하십니다

— 게론다, 제가 어떻게 수련해야 할지에 대해 몇 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 용기, 담대함, 그리고 사랑!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십시오. 선한 마음가짐과 승리하려는 의지, 그리고 사랑을 지닌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일하십니다.

— 게론다, 제가 모든 수도자적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려고 신경 쓰고 있는데도 왜 기도가 저를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까?

— 어떻게 기도가 너를 채워줄 수 있겠느냐? 레버를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한다. 영적 삶에서 네가 이성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되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되는지, 유렵식 시간 엄수 정신에 얼마나 이끌리고, 정교회의 열정에 얼마나 이끌리는지 살펴보아라.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부르는 것 뒤에는 때로 우리의 이기심이 숨어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흠쳐 간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일관된 척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나의 영적 삶은 온통 큰 혼란으로 변해 버린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이 바로 그 주파수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사랑 없이는 신성한 은총이 임하지 않는다.

— 게론다, 끊임없는 절제는 지치게 합니다...

— 이기심이 섞이면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부자연스럽게 자신을 억지로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깃들어 있을 때, 그 위업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나는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수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신도 모르게 규율이 이기주의의 문을 열어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한다.” 수련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해야 합니다. 만약 네가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수고한다면, 네 수고는 가벼워질 것이며 네 안에서 신성한 위로를 느낄 것이다. 지금 네 수고는 가혹하고, 그 안에는 위로가 없다. 그리스도는 상냥한 아버지이시지, 폭군이 아니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이 담긴 수고를 기뻐하신다.

사람이 사랑으로 영적으로 수련할 때, 내면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결코 안락함과 쾌락을 위해 수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열어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는 서운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낙원에 들어가서 잘 살고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 수련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고, 자신의 은인이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낙원에서도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해도,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여전히 그곳에 있고 싶어 할 것이다.

자애의 적은 이기심이다

— 계론다, 이타심을 지닌 사람은 항상 자기 부정을 특징으로 합니까?

— 그에게 순수한 타인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자기 희생도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 속에 자신의 ‘나’가 적을수록, 그는 더 큰 타인을 향한 사랑을 얻게 됩니다.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타인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향한 사랑의 적은 바로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 계론다, 제가 하루에 12~13시간씩 일해야 할 때도 열심히, 사랑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 그것을 ‘이타심’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타심이 있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으며, 자신이 몇 시간이나 일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았던 수도원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어떤 형제는 올리브 두 자루를 따고도 한 바구니만 따았다고 말하며, 다른 형제가 몇 자루를 따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올리브를 따았나요?”라고 묻자, 수녀가 바로 “저요”라고 대답합니다. 차라리 그녀가 따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만약 여러분이 칭찬을 받으려고 수도원에 왔다면, 저는 여러분이 안타깝습니다.

— 우리에게 할 일이 많다는 걸 보면, 이리저리 허둥대기 시작하고 부담감을 느낍니다.

— 내가 네 입장이라면, 다른 자매의 몫까지 감당하도록 스스로를 다그쳤을 거야. 내가 목수 수습생이었을 때, 주인님은 나 말고도 또 다른 청년을 조수로 데려오셨어.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체격도 좋았지만 게으르더군. 주인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 녀석은 팔짱만 끼고 앉아 있었지. “뭐? 내가 주인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 그는 불평하며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이봐, — 내가 그에게 말했다. — 배우고 싶다면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소용없었고, 나는 나 몫과 그 녀석 몫까지 모두 해야 했다. “적어도,” 내가 말했지, “그냥 빈둥거릴 거라면 작업대 앞에 앉아서 판자를 고정해 줘. 그럼 내가 톱질할 테니, 판자를 바이스에

끼우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는 말자.”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난 내 일은 다 했으니, 나머지는 내 알 바 아니야.” 주인이 와서 내 동료에게 꾸짖었을 것이다. “네 일은 어디 있니? 저 친구 좀 봐, 너보다 약한데 저렇게 많이 해냈잖아!” 다른 사람이 꾸중받는 소리를 듣는 게 내게 기분 좋을 리가 있겠는가? 나만 칭찬받고 다른 사람은 꾸중 듣는 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내 동료는 스스로를 더 나쁘게 만들었을 뿐이다. 목수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패가 아니라 곡괭이로 일해야 했으니 말이다. 성실함을 지닌 사람은 어디에 있든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실함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제자리걸음을 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동물들, 소나 말을 보곤 했습니다. 한 쌍 중 한 마리는 부지런하고 성실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 마리는 게을렀고, 부지런한 쪽이 게으른 쪽을 끌고 다녔습니다. 결국 게으른 쪽은 정육점 주인의 도끼 아래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마리의 물소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물소 세 마리를 함께 멍에에 매었는데, 그중 한 마리는 그리 강하지도 않았는데도 정말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일했어요! 다른 두 마리까지 끌고 갔죠. 그 가엾은 녀석은 긴장으로 온몸에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만약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동물을 가리키시며 “보라, 저 녀석은 다른 두 마리를 끌고 갔는데,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아, 바다여,¹⁷⁰ 자신의 구원에 관한 이 질문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토록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세련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 헤론다, 자비심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 네가 가지고 있니? 그게 느껴져, 자기야!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대략 알고 있으며,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느끼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지녔다고 해도 사람은 자랑하지 않으며, “나에게 자비심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에게는 더 큰 자비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진실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소박하고, 겸손함을 지녔다. 이 모든 것이 그 자신에게 평화를 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내면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를 속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한다면: “전 다 괜찮아요,”라고 말한다면, 그는 당신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을 괴롭히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비록 당신이 지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당신이 자신에게 관심을

¹⁷⁰ 원문: 갓난아기, 미성숙한 사람(그리스어); 구어체에서는 감탄사로 사용된다. — *번역자 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헤론다, 오늘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 보이시네요. 보아하니 완전히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비록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도 말이지. 반면 겸손한 사람은, 설령 정말로 도움이 절실하더라도, 단지 “헤론다,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저에게 축복만 내려주세요.”라고 말할 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오랫동안 곁에 두곤 하는데, 그 모습에 감동하여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가볼게요, 헤론다, 피곤해 보이시네요.”라고 그가 말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타인을 향한 사랑에 이끌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일인지(좋은 의미에서) 즉시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보다는 타인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비록 저를 모르지만,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감지하고, 바로 그 순간 제게 꼭 필요한 것이 들어 있는 소포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런 소포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모든 물건에서 묻어납니다.

— 게론다, 가끔은 약간 무모하고 건방진 사람들이 당신의 거처에 찾아오기도 하나요?

— 네, 하지만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겸손함 때문에 저를 귀찮게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그분과 따로 만났고, 그분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는 아테네에서 일부러 날아와 저와 그녀를 괴롭히던 한 가지 문제를 상의하려는 한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과 5분만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시겠어요?”라고 그가 부탁했고, 그 젊은 여성은 그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 후 그녀는 5분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던 그분이 나오기를 한 시간 반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그녀는 이미 공항으로 서둘러 가야 했기에 저에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게론다. 아테네에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고 왔는데, 이제 시간이 없네요. 직장에서 휴가를 냈는데, 비행기를 타려면 이제 공항으로 가야 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가질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됩니다.

— 게론다, 자비로운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 때, 그도 고통받지 않겠습니까?

— 중요한 것은 까다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때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¹⁷¹

사랑이 넘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양보하거나 타인의 교활함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내하지만, 이 헛된 삶 속에서 정의를 찾으려 애쓰지는 않

¹⁷¹ 누가복음 6:32

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들은 모든 빛을 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내세에서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4부.

사랑과 겸손의 자녀들

“오직 그리스도 곁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참되고 진정한 기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쁨과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1장.

단순함과 순결

단순함 — 겸손의 첫 번째 열매

— 겸손의 첫 번째 열매는 단순함이다. 사람에게 단순함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과 희생, 자비, 경건함이 함께한다. 단순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순결함과 시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신뢰가 있다. 단순함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였으며, 그 당시 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이를 순수하고 악의 없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 게론다, “아름다움은 단순함에 있다¹⁷²”는 말이 신성한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당연히 그렇습니다. 단순하고 교활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을 지니고 있어, 본성상 단순하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 사람이 소박하게 행동하면서도 동시에 교만을 가질 수 있을까요?

—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정한 단순함을 지닌 사람에게는 교만이 없습니다.

— 누군가가 겉으로는 소박한 사람인 척 하면서, 실제로는 진정한 소박함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게다가 소박한 척하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 드는 것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소박한 척하는 사람의 겉모습 속에는 가장 천박한 교활함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늙은이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린아이인 양 모든 변덕을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 아기 양말을 신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소박한 사람은 솔직함과 분별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

¹⁷² “χαῖρις”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은총”과 “아름다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므로, 이 문구는 “단순함 속의 은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번역자 주.

단순함과 건방짐은 다른 것입니다

— 가끔은 제가 소박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뻔뻔하게 굴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론다, 소박함과 뻔뻔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 소박함과 뻔뻔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뻔뻔함은 사람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람은 뻔뻔하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이기심을 키웁니다. “자, 내가 그 사람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라고 말하죠. 이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만족감을 주지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소박함은 영적으로 기쁨을 주며, 마음에 일종의 가벼움을 남깁니다.

— 게론다, 사람들이 제가 경솔하게 행동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소박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단순함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다. 생각 없이 말하고, 자신이 단순하게 행동한다고 상상하고 있다. 너에게는 약간의 타고난 단순함이 있지만, 분별력이 부족하다. 비록 머리로는 어른이지만, 행동은 아이처럼 한다. 다행히 수녀님들은 너를 잘 알고 있어서 당황하지 않는다.

— 사람이 실제로는 소박하지만,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나요?

— 사람이 진정으로 소박하다면, 비록 그가 말이나 행동이 그다지 품위 있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소박한 사람 안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어, 그의 행동이 타인을 모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박함이 없는 사람은 비록 세속적인 예의를 차려 말하더라도, 그 예의는 당신에게 쓴 무보다 더 나쁠 뿐이다.

아이들처럼 되십시오¹⁷³

— 게론다, 자연스러운 소박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 본연의 단순함은 어린 아이가 지닌 단순함입니다. 아이가 말썽을 부리면 꾸짖으면 아이는 울죠. 그런데 나중에 장난감 자동차를 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왜 처음에는 꾸짖었다가 나중에 장난감 자동차를 줬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른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본성상 순수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런 순수함도 미덕인가요?

— 네, 하지만 타고난 단순함은 다른 모든 타고난 미덕과 마찬가지로 정화가 필요합니다. 타고난 순수함을 지닌 사람은 악의가 없고 선량하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교활함

¹⁷³ 마태복음 18:3 참조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쁜 것과 좋은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좋은 것은 자신이 가져가고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소량의 여러 불순물이 섞인 금과 같다. 금이 순수해 지려면 도가니에서 다시 녹여야 한다. 즉, 그의 마음은 온갖 교활함과 탐욕 등에서 정화되어야 하며, 그래야 비로소 그는 완전한 순수함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순수함과 단순함의 상태인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이 자라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예의가 많아질수록 그들 안에 남아 있는 단순함은 줄어들고, 진정한 기쁨과 자연스러운 미소를 찾아보기 어려워집니다.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이베르스키 스키투에 파호미이라는 한 노승이 계셨습니다. 어떤 슬픔이 당신을 짓누르더라도,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슬픔이 저절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당신은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즉시 잊어버렸고,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노인이었지만 겉모습은 갓난아기 같았다. 그는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아이처럼 웃곤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웃었다. 영원한 환희! 그는 글도 몰랐고, 부활절에 부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도다” 외에는 노래도 할 줄 몰랐다. 명절에 스키투의 키리아쿠운⁽¹⁷⁴⁾에 올 때면, 그는 결코 스타시디아에 앉지 않고 항상 서 있었고, 심지어 전야 기도 시간에도 서서 예수 기도를 드렸다. 그는 큰 경건함을 지닌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파코미오스 신부님,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으면, 그는 “시편, 신부님들이 시편을 읽고 계십니다.”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매우 소박하고 은총이 넘치는 장로였습니다. 그는 정욕에서 해방되어, 악의 없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만약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의 이기심과 자만,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유아적인 상태에 머문다면, 늙어서도 어린아이처럼 불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선한 뜻만 어린아이처럼 가지라”고 말합니다.¹⁷⁵

소박한 사람은 언제나 선한 생각을 품는다

— 소박한 사람은 악의가 없고 속임수가 없습니다. 나쁘고 추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꿉니다. 그는 항상 타인에 대해 선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순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생각한다고 확신할 뿐입니다.

— 게론다, 우리에게 어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¹⁷⁴ 스키투의 주 예배당으로, 일요일과 주요 명절에 스키투 거주자들을 위한 예배가 거행된다. — 편집자 주

¹⁷⁵ 고린도전서 14:20

— 제가 한때 쿠틀루무시 수도원에 살았던 할라람피오스 신부님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없나요?¹⁷⁶ 그분은 사서였지만, 도서관 문을 절대 잠그지 않아서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모든 자물쇠와 열쇠가 왜 필요하겠습니까?”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게 되야지.” 그는 너무나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녔기에, 책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순박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 선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본다. 디오니시아트 수도원의 테오크티스트 신부님이라는 또 다른 노스승이 떠오르는데, 그분의 순박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느 날 그분은 카레에 있는 수도원 숙소에서 다른 수도사 한 분과 함께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테오크티스트 신부님은 문을 열어 달려갔습니다. “그만뒤요,”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문을 열지 마세요. 벌써 늦었으니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에요.” — “신부님, 그게 누구인지 어떻게 아세요? 어쩌면 그리스도일지도 모르잖아요! 문을 열어야 해요.” 그리고는 문을 열어 가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박한 사람은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며, 오직 선한 일만을 기대합니다.

순수함이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 헤론다, 제 생각에 소박함이란 사람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하게 행동하려면 사람은 그에 맞는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원이나 가정에서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단순함과 신뢰가 없으면 정말 지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면 서론, 에필로그, 설명이 필요하죠 ... 그렇게 삶은 고통으로 변해 버립니다. 하지만 소박함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앉아”라고 말하면 그는 앉을 것이고, “지금은 네가 필요 없으니 가라”라고 하면 그는 떠날 것이며,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오해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박함이 있을 때는 마음이 가볍게 느껴지지만, 없을 때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 게론다, “삶에서 자유를 얻어 폭풍으로부터 해방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¹⁷⁷

—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단순함을 갖추어, 온갖 생각이 마음을 휘저어대지 않게 하고 머릿속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사람이 단순히 자신이 느끼는 바를 표현할 때, 그 자신도 자유로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편안해진다.

¹⁷⁶ 참조: 게론토스 파이시오스 아기오레티토스. 『아기오레티아이 파테레스 카이 아기오레티카』. 테살로니키, 2005. 10-11쪽.

¹⁷⁷ 다음 서적에서 인용: 아바 이사악 시리노스의 수행자적 말씀. 모스크바, 1993. 279쪽.

어느 날 저는 지인의 차를 타고 아테네로 가던 중이었는데, 우리와 함께 또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여행을 잘 견디지 못하는 편이라 운전자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했습니다. “추우시지 않나요?”라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동승자가 추위에 몸을 떨며 재킷 단추를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 아픈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 추울 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말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중 누구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내가 몸이 안 좋은데도 침묵했거나, 다른 누군가가 추위를 타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군가는 분명 아픈 채로 아테네에 도착했을 것이다. 여러분도 서로 솔직하게 소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초조함을 느끼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 게론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가장 단순한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수줍음인가요, 아니면 자존심인가요?

— 때로는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지나친 수줍음을 ‘제동 장치’로 주셔서, 그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사람에게 이런 수줍음이 없었다면, 그가 올바른 길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버렸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일에서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너무 위축되거나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이런 인간의 위축된 태도 속에는 어느 정도 이기심도 깃들어 있기 때문이야. 나를 봐, 나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잖아. 때로는 할아버지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처럼, 또 때로는 아이처럼 행동하지. 그렇지?

— 저는 제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항상 걱정하고, 혹시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요.

— 네가 내성적으로 변하는 건 네 안에 단순함이 없기 때문이야.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마음의 단순함을 기르도록 노력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지적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고치려고 노력해. 예를 들어, 네가 분별력 없이 행동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는 내가 분별력 없이 행동했다고 했으니, 이제는 분별 있게 행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점차 경험을 쌓고, 잘못을 고치며, 성장하여 영적으로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교훈을 얻고, 너 자신도 영혼 속에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순수함이 자비의 실천과 하느님에 대한 희망과 결합될 때, 내면의 평화와 기쁨이 솟아나며, 영혼은 희망과 위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룩한 단순함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 게론다,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까?

— 자, 내가 네게 말해 주마: 사람이 영적으로 수고하여 선한 영적 상태에 이르면, 책에서 얻은 지식 없이도 신성한 계시를 통해 어떤 것들을 매우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수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내면의 순결함으로 인해 그는 더 선명하고, 더 멀리, 더 깊이 보게 되는데, 이는 세속의 궤도를 떠나 신비의 영역인 영적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단순함과 순결함을 얻은 이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조차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매우 단순하게 바라보는데, 이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분 자신도 단순하시며, 이 땅에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단순함 속에서 우리에게 이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기 위해 더 이상의 힘이 필요하지 않으시며,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모두를 위해 그분께는 단 하나의 힘만이 있습니다.

— 헤론다,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습니까?

— 그 안에 거룩한 단순함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신비를 단순히 깨닫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신비의 동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할 자격을 얻은, 매우 소박한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수도사가 되기 전, 그는 목동이었고, 그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을 지나가던 한 은자가 그에게 “구원을 받고 싶다면 곧은 길을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길을 따라 나섰고, 사흘 동안 줄곧 곧은 길만 건다가 마침내 수도원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수도원의 원장님은 목동의 구원에 대한 열정을 보고 즉시 그를 수도사로 서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임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전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원장님이 지나가시며 일에 관해 몇 가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수도사는 가르침을 다 듣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상을 가리키며 원장님께 물었다. “아버지, 저 위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이곳에 온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내려오셔서 음식을 드시거나 물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원장님은 그의 순진함에 놀라며 말했다. “그분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벌을 준 것이다.” 수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식당에서 자신의 몫을 챙겨 성당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십자가 앞에 다가가 연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려오세요, 형제여. 함께 밥을 먹읍시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그 소박한 수도사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 주님께서서는 그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어 그곳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며칠 뒤, 이 평범한 수도사는 평온하게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완전히 문맹이었지만, 그 위대한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인해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머물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진실함과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단순함을 거룩하게 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람 안에 단순함과 순결함이 따뜻한 믿음과 경건함과 결합되어 있을 때, 그는 어떤 학문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 안에 성삼위가 거하시기 때문이다. 신성한 계시를 통해 그는 신성한 의미의 열쇠를 쉽게 찾아내고, 이성적 혼란 없이 매우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한다.

모든 악이 솟아나는 우리의 간사한 마음을 정화할 때,¹⁷⁸ 우리는 신성한 은총의 깨끗하고 겸손한 그릇이 될 것이며, 그때 우리 안에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가 거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서 우리 마음의 정화를 도우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뵈게 하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뵈겠음이라.”¹⁷⁹ 아멘.

제2장.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오늘날 모든 악은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 게론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강한 욕망과 여행, 오락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습니다.

— 사람이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보고 이 생에서 이것저것을 즐기려고 애쓰게 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는 끊임없이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 알려지게 될 것이며,¹⁸⁰ 그에게 충만함이 생길 것입니다.

— 사람들이 이 생이 덧없는 것임을 생각했다면, 과연 변하지 않았을까요?

—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평소보다 훨씬 더 거만해져서 악과 죄에 빠질 것입니다. 반면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절제할 것입니다. “왜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겠는가?”라고 말하겠죠. — 차라리 영혼을 돌보고, 영적으로 살며, 자선을 베풀도록 노력하겠다.”

¹⁷⁸ 참조: 마태복음 15:18-19; 마가복음 7:21-23.

¹⁷⁹ 마태복음 5:8

¹⁸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은, 항상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다.” — 성 안토니우스 대성인이 말씀하셨다. — 편자 주 인용 출처: 『자비』. 제1권.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2. 92쪽.

오늘날 모든 악은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고, 가장 무관심한 사람조차 마음속에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소박해서 교회에서 듣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서가 총 네 권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열두 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경건함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간호사들의 용기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원하여 전쟁터로 나갔는지! 그들에게는 믿음과 희생 정신이 있었고, 얼마나 사람들을 도왔는지! 그런데 오늘날은? 누군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환자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그 소리를 듣고는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환자가 자신을 저주하려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고백문조차 모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와 버린 것입니까!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믿습니까?”라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라고 대답합니다. “네 부모님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시나요?” — “모르겠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심지어 부모님이 무엇을 믿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무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 게론다, 하지만 전체주의 정권이 존재했던 나라들의 상황은 훨씬 더 나쁩니다.

—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주의 정권 하에서도 신앙을 지킨 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한 러시아인이 외국에서 살다가 마침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이 코트를 입고 아픈 산에 가시나요?’ — ‘네, 이걸 입고요.’라고 제가 대답했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그 코트를 집어 들고 불쌍하게도 축복을 받으려고 입맞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믿음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믿음은 마치 스프링과 같아서, 더 세게 눌러줄수록 풀릴 때 더 세게 튀어 오릅니다. 억누르던 이가 스프링을 누르는 것이 버거워지면, 그는 손을 떼고, 스프링은 튀어 오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 게론다, 왜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까?

— 사람이 신앙과 예식에 대해 소홀히 대한다면, 점차 그것을 잊게 되고 완전히 무감각해질 수 있으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될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어떤 이들은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 설령 하느님께서 모든 선한 사람들을 불태우신다 해도, 사람은 결코 ‘좌파적인’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며,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

다. 하느님께서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잘 아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악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은 그 악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오늘날에는 믿는 아이들조차도 흔들립니다. 학교에 불신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왜 그들이 흔들려야 합니까? 성녀 카타리나는 열아홉 살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로 이백 명의 철학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개신교도들조차 그녀를 과학의 수호성인으로 여깁니다.

믿음과 조국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단호하고 확고해야 합니다.

— 게론다, 예전에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느님께서 제가 청한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당신의 세속적인 논리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논리는 믿음을 흔들게 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기도하여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¹⁸¹ —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우리는 기적의 영역에 있습니다.

1 더하기 2가 항상 3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쩌면 5천이 될 수도 있고, 1백만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의지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선한 의지가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도 선지자들이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옷이 어떻게 될지,¹⁸² 배반 대가로 받은 돈이 어디로 갈지, 그 돈으로 나그네들을 매장하기 위해 도공의 발을 살 것까지,¹⁸³ —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법자 유다는 깨닫고자 하지 않았느니라.”¹⁸⁴

불신과 믿음이 부족함

— 게론다, 모세가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박탈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¹⁸⁵

¹⁸¹ 마태복음 21:21-22

¹⁸² 참조: 시편 21:19

¹⁸³ 마태복음 27:7-9; 예레미야서 18:2; 39:9 참조.

¹⁸⁴ 성 금요일에 거행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구원을 주는 수난 예식 중 제3 안티폰의 말씀.

¹⁸⁵ 민수기 20:1-13; 신명기 32:48-52 참조.

— 그것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¹⁸⁶ 시나이 산의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으며,¹⁸⁷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¹⁸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다시 물이 부족해지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불신을 드러냈다.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라고 그가 말했다.¹⁸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벌을 내리셨다. “벌로써,”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멀리서만 약속의 땅을 보게 될 것이다.”¹⁹⁰ 만약 다른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모세에게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의 불신을 정당화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 게론다, 저는 제 자신의 노력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 네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힘에만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쏟아지는 것을 방해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네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네 삶은 거의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겸손이 있었다면,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네가 믿음과 겸손에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네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손발이 묶인 채로 네게 도움을 주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께 믿음을 구하라—“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¹⁹¹ —그리고 겸손을 갈고 닦아라. 사람이 믿음을 가졌더라도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을 떠올려 보라. 그에게는 교만한 생각이 없었고,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는가!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그가 그리스도께 말했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 가까이 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서도 이 정도의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⁹²

¹⁸⁶ 출애굽기 14:1-31 참조.

¹⁸⁷ 출애굽기 15:22-25; 17:1-7 참조.

¹⁸⁸ 출애굽기 16:1-36을 참조하십시오.

¹⁸⁹ 민수기 20:1-13을 참조하십시오.

¹⁹⁰ 민수기 20:1-13을 참조하십시오.

¹⁹¹ 누가복음 17:5

¹⁹² 마태복음 8:10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게론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갖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들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먹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의 식품의 품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 성호를 긋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며, 세례를 받고, 성유로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성찬을 받고, 복음을 읽으며,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외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치명적인 것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¹⁹³ —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¹⁹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살아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 성호를 긋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시다. 『라브사이카』에 나오는 일화를 기억하십니까? 한 수도사가 우물에서 물을 길으러 갔다가 거기서 독사를 보고¹⁹⁵ 두려움에 질려 물을 한 방울도 길어오지 못한 채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는 망했소, 아바,” 그가 자신의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우물에 뱀이 있소!” — “좋아,” 스승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모든 우물에 뱀이 있다면, 넌 어떻게 할 건가? 목마름으로 죽을 건가?” 스승은 가서 우물에 십자가를 그은 뒤, 물을 길어 마셨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악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¹⁹⁶

—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 네 두려움은 하느님의 축복이자, 네가 언제나 기도로 그분께 의지하도록 하신 하느님의 섭리다. 이것이 네가 하느님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라, 어린 아이를 겁주지 않으면 그를 진정시킬 수 없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신뢰하며 힘내라.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대저녁 기도 때 “우리는 너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으리니,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라고 노래하지 않는가?¹⁹⁷

¹⁹³ 마가복음 16:18 참조

¹⁹⁴ 참조: 누가복음 10:19

¹⁹⁵ 아스피드 – 독사. – 편집자 주.

¹⁹⁶ 인용 출처: 팔라디우스, 헬레노폴리스 주교. 『라브사이카』. 콜로MHa, 발행 연도 미상. 6쪽.

¹⁹⁷ 『시간기도서』. 모스크바, 2004. 182쪽. 이사야 8:12 참조.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노라”¹⁹⁸

— 헤론다, 선지자 다니엘이 천사를 보았을 때 느꼈던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¹⁹⁹

— 그것은 일종의 당혹감,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으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느니라.”²⁰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위대한 존경과 경건함,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영적인 당혹감입니다. 사람이 존경하는 분 앞에서 어떤 당혹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어디에 있든 같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서 있는 케루빔들”²⁰¹ 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외심과 두려움은 그 안에 평화와 기쁨을 담고 있으며,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일하고, 떨림으로 그분을 기뻐하라”²⁰²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 게론다, 양심의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양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은 쉽게 자신의 양심을 짓밟을 수 있고,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 게론다, 제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낄 때면,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런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 네 마음속에 하느님께 대한 감사는 있지만, 살아있는 움직임이 없다. 네가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실감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네가 하느님의 현존을 실감하게 된다면, 하느님께 대한 더 큰 감사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 너는 ‘주님의 기도’를 외우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만약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네 아버지이시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무감각하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 성인들의 임재를 느낄 때, 그것은 그로 하여금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훌륭한 자제력

¹⁹⁸ 시편 15:8

¹⁹⁹ 단 10:8-12 참조

²⁰⁰ 같은 책.

²⁰¹ 제6음조의 삼위일체 찬송에서. 이르모로지. 제1권. 모스크바, 1997. 130쪽.

²⁰² 시편 2:11

이 됩니다. “주께서 내 앞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²⁰³ —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게론다, 이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까요?

— 우리는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의 선행 조건은 정결한 노력과 정결한 태도이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 게론다, 저는 여전히 모든 일을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고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그 이후에는 신성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너 자신을 맡기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더욱 굳건해진 믿음이며, 이는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을 동맹자로 두는 것이 사람에게 하찮은 일일까요? 기억합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 저는 성 바르바라에게 기도하며 그녀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 바르바라 성당에 기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이 성인을 숭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위험에 처하더라도, 제발 사람을 죽이지는 않게 해 주세요.”라고 저는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주셨는지! 저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전선에 일반 병사로 보내졌지만, 초등학교 졸업 수준의 저를 통신병으로 뽑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곤 했다. “너한테는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구나.” — “뭐, 후원자라니요,” 내가 대답했다. “여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 “자, 농담은 그만하고. 대답해 봐, 네게 총참모부에 누가 있니?” 사람들이 계속 캐물으니,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저에게 총참모부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단 한 번도 무기를 손에 쥐지 않게 되었다.

— 게론다, 영혼의 인내력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입니까?

—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통해서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큰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시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기뻐합니다. 병들었든, 굶주렸든, 부당하게 모욕을

²⁰³ 시편 15:8

당했든, 혹은... 혹은... 그는 항상 이것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으며,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에 대한 희망이라는 안식처에 머물며 언제나 안전함을 누립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지니고 있다

— 게론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그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결정됩니다. 비록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보다 먼저 온다고 말하지만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어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구한 다음, 그 후에야 그분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천박한 생각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볼수록, 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 커집니다. 저는 모든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며, 모든 동물과 새,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사랑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 헤론다, 사람이 올바른 믿음이 없어도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까?

— 사람은 자신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통 교리 안에서 사람은 참된 사랑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두 명의 가톨릭 신자가 제 수도실에 찾아왔는데, 한 명은 기자였고 다른 한 명은 바티칸의 비서였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를 읽읍시다,”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 “‘주님의 기도’를 읽으려면,” 제가 말했습니다, “교리에서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데,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직 정교회 신자들만 구원받을까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 “맞습니다,” — 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 “그럼,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 “사랑을 실천합시다,” — 그들이 그 후 말했습니다. — “그래서 죄가 유행이 되어버렸군요,” — 제가 말했습니다. — “그것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 그들이 말한다. — “모두가 사랑과 평화, 화합에 대해 말하지만,” — 나는 대화가 끝날 무렵 그들에게 말했다. — “모두가 자신과 타인과의 불화 속에서 살고 있으니, 그래서 점점 더 큰 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와 일치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일치 속에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는 참된 사랑은 하나님 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우리와 육신의 형제가 된 모든 사람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러²⁰⁴, 영의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3장. 구원을 주는 인내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²⁰⁵

— 게론다, 유혹이나 큰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무겁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오직 인내를 통해서만 사라집니다. 위대한 인내는 가장 얽히고설킨 문제도 풀어주며 신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당신이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시련을 겪으면서도 불평 없이 인내하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성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셔서, 우리가 불평 없이 찬양하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투쟁이며,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영적 투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겪으셔야 했던 시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유대인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으셔야 했는지, 그런데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인내를 보여주었는지!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로마에 있어야 한다는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²⁰⁶ 총독이 재판관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두 해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²⁰⁷ 성 요한 신학자는 또 어떤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 사소한 불

²⁰⁴ 디모데전서 2:4

²⁰⁵ 야고보서 1:12

²⁰⁶ 사도행전 23:11 참조

²⁰⁷ 사도행전 24:27 참조.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 펠릭스가 뇌물을 받을 희망을 품고 재판을 미루는 바람에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갇혀 지냈다. 그 후 펠릭스의 후임자인 페스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보내 재판을 받게 했다. — 편집자 주.

평 하나 때문에 그는 난파를 겪어야 했습니다...²⁰⁸ 보시다시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시련을 인내심 있게, 기도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인들이 사소한 일로 인해 시련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참아내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 인내심은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게론다?

— 인내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²⁰⁹ — 사도가 말했습니다. 타인을 참아내려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처지에 공감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 게론다, 제가 겪고 있는 한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나을까요?

— 사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평화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신이 힘들어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저는 쿠틀루무시 수도원에서 열린 십자가 행렬을 마치고 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허리 통증이 있었거든요. 방문 앞에서는 85세 된 노스승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제 방에서 하룻밤 묵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행 가방을 혼자서 끌고 올라올 수 없어서 아래에 두고 오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게는 묵을 곳이 없다고 설명하고, 그의 여행 가방을 어깨에 메고 30분 정도 오르막 길을 걸어가야 하는 여관까지 데려다주었으며, 경비로 500드라크마도 주었습니다. 조금은 참아야 했지만, 그 대신 다른 사람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 우리가 함께 봉사 활동을 하는 수녀님이 냉담하게 굴 때, 저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참아 줍니다. 이 경우 제가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 그런데 그 자매가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너 자신 때문이 아닐지 어떻게 알 수 있니? 어쩌면 그녀가 너를 참아주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영적 상태가 그녀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네가 그녀를 참아준다면, 그때는 네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과 인내가 있을 때, 그는 타인을 변호하고 오직 자신만을 책망한다. “오, 주님,” 그가

²⁰⁸ 성 요한 신학자에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할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곳 주민들이 이교적 미신의 어둠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고 불평했다. 그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유혹에 빠지게 내버려 두셨다. 소아시아로 가는 길에 사도가 타고 있던 배가 난파되었으나, 요한 자신은 40일 동안 파도와 사투를 벌인 끝에 살아남았다. — 편집자 주

²⁰⁹ 고린도전서 13:4-7

말합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저를 돌보지 마시고, 저를 버리시고 다른 이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큰 겸손을 담고 있는 올바른 태도이며, 이럴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가 영적인 스킴노가 되도록 기도하겠노라,²¹⁰ 마치 교회에서 어깨에 쏫대를 지고 있는 청동 사자들처럼, 그들은 분개하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뿐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인내 위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보여주는 작은 인내로도 신성한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내 외에는 구원으로 가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인내 위에 세우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²¹¹ “여름까지 견디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름까지는 견디기 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라면?.. 마지막으로 영혼을 잃지 않도록 인내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²¹² —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성이 보여준 인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천상의 보상 외에도, 이 생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내에 대한 백 배의 보상을 받았습니다.²¹³ 그녀의 남편은 의사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사로서 매우 훌륭했지만, 사람으로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간호사로 일한다는 명목으로 젊은 여성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런 간호사 중 한 명이 마치 뺨기처럼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고, 결국 정실 부인과 세 자녀를 거리로 내쫓은 뒤, 자신이 의사와 함께 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세 자녀를 둔 어머니는 친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자신과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했다. 그녀는 많이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인내로 견뎌냈다. 첩은 의사에게 또 세 명의 아이를 낳아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셋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의사는 에서 자신이 고용했던 16세 소녀에게 빠져들었고, 이전의 사실혼 아내와 세 자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영적 법칙의 작용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자신 때문에 합법적인 아내가 겪어야 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는 병에 걸려 집에서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었다. 젊은 여자는 그에게 돈이 있는 동안만 곁에 머물렀지만, 생활은 무질서했다. 집안에 친구들을 불러모으며, 환자를 돌봐야 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는 핑계를

²¹⁰ 레오(슬라브어). – 역자 주.

²¹¹ 마태복음 10:22. 마가복음 13:13

²¹² 누가복음 21:19

²¹³ 마태복음 19:29, 마가복음 10:30 참조

대곤 했다. 의사는 그녀를 심하게 질투했고, 그녀의 방탕한 삶을 보며 괴로워했다. 결국 돈이 바닥나자, 그녀는 그를 차버렸다. 정실 부인은 남편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그를 돕기 위해 찾아왔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밥을 챙겨주며, 자신의 돈과 그 무렵 이미 성장해 스스로 일하고 있던 자녀들의 돈으로 그를 부양했다. 의사가 한때 쫓아냈던 전 애인은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심지어 그의 소식을 듣는 것조차 원치 않았다. 오직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만이 곤경에 처한 그를 지지해 주었다. 결국 의사는 고해성사를 하고자 했으며, 남은 생을 회개하며 보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이 선한 여인이자 아내의 노력을 보시고 — 그녀가 수년 동안 얼마나 인내하며, 청결하게 살며 부지런히 일하고, 자신에게 그토록 잔인하고 비열하게 대했던 남편을 부양해 왔는지 — 그녀에게 보답해 주셨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에서 남편의 부유한 친척이 세상을 떠나자, 그들은 그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착한 아내이자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자녀들의 앞날을 잘 마련해 주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며, 남은 여생을 풍요롭게 보냈다. 비록 가난한 처지였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지녔기 때문이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겨울을 견뎌냅니다

— 게론다,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 사람은 이미 열매를 기다리며 포도주를 짜서 마시고 기뻐하려 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고 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 하네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포도를 심고 내일 바로 와인을 마실 수는 없는 법이다. 1년 뒤면 어쩌면 두세 송이의 포도를 맛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2년 뒤에는 바구니 한 가득 포도를 수확하게 될 것이고, 5년 뒤에는 와인도 마시게 될 것이다. 영적인 열매를 누리고 싶다면, 노력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 저는 기다리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참을성을 아주 쉽게 잃어버려요.

— 인내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음식이 준비될 때까지 한두 시간을 기다리지만, 식을 때까지 두 분만 기다리지 못하고 먹기 시작하다가 입안을 데기도 하죠... 제가 아폰으로 돌아가면, 당신에게 ‘인내의 성인’ 성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세 개의 성화가 도착했는데, 두 개는 성인들의 초상이고 하나는 인내의 성인의 성화였습니다. 성인들의 성화는 축복으로 나눠주었고, 인내의 성인의 성화는 제가 간직했습니다...

— 게론다, 아폰에서 저에게 어떤 “약초”²¹⁴ 라도 가져다주지 않으셨나요?

— 이맘때는 성모님의 영역에 “약초”가 없네... 봄이 와야 해. 그리고 봄이 오려면,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조금만 참아야 해.

따라서 지금 너에게 가장 좋고 가장 효과적인 ‘약초’는 바로 인내다.

— 헤론다, 제 마음이 영적인 거울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 날씨가 바뀌어 맑고 화창해지기를, 당신이 꽃을 피우고 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서리와 맑은 날 모두를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영적 거울을 견뎌내며, 그 인내심은 영적 봄에 대한 희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이 되면, 우리는 연못을 물로 채우고 서리로 모든 세균을 없애 준 겨울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지극히 지혜롭게 마련해 두셨으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약간의 인내뿐입니다.

제4장. 영적 기쁨

성모님께서 세상에 기쁨을 가져오셨습니다

— 헤론다, 성모님을 기리기 위해 지으신 찬송가를 우리에게 불러 주실 수 있겠습니까?²¹⁵

— 함께 불러 봅시다. “주님의 어머니시여, 주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얻으셨나이다. 은총이 풍성하신 분, 참으로 은총이 충만하신 분이시니, 가브리엘이 선포한 대로 천사들의 여왕이시여, 당신의 종들을 지켜 주소서.” 자, 이제 교리문을 살펴보십시오. “성모 마리아께서는 딸이시며 어머니이시며, 종이시며 여왕이시며, 온 세상의 여왕이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모 영보 대축일은 초자연적인 것이며, 이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성모 영보 대축일의 기쁨을 주시기를, 그리고 천사가 여러분을 축복하여 영적으로 번영하기를 빕니다. 아멘.

²¹⁴ 수녀는 “약초”라는 말로 영적 권면의 말씀을 의미하며, 1971년 1월 13일에 수도원에 보내온 파이시오스 장로의 편지 「영적 약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참조: Γέροντος Παϊσίου Ἀγιορείτου, Ἐπιστολές, Σουρωτή Θεσσαλονίκη, 2005. 151-162 쪽). — 편집자 주.

²¹⁵ 파이시오스 장로는 파나기아라는 이름을 가진 수녀의 이름의 날을 맞아, 그녀가 자신의 독실에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찬송을 지어 수도원에 보냈다. — 편집자 주.

— 게론다, 어떤 트로파리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이브의 기쁨이여, 그 슬픔이 당신의 탄생으로 그쳤으니, 순결하신 분이시여.”²¹⁶

— 사람이 성모님에 대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분의 위대함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분의 순종으로, 하와의 불순종으로 닫혀 있던 낙원을 우리를 위해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하와는 우리를 하느님과 연결해 주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세상에 슬픔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²¹⁷ 성모님께서는 그 연결 고리를 다시 이어주시고 세상에 천국의 기쁨을 가져다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과 다시 이어주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 덕분에 “하느님의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전능하신 성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수치의 붉은 빛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광야는 그리스도께 구유를 바치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바칩니다.”²¹⁸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 게론다, 가끔은 기뻐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어쩌면 기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기쁨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요? 탄갈라쉬를 위한 것이요? 무슨 소리요? 기쁨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하느님께서는 슬픔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만을 가져오셨소.

— 하지만 왜, 헤론다, 제가 마음속에서 항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 네 마음이 하느님께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느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겠느냐? 너는 그리스도를 잊고, 네 마음은 끊임없이 일과 세속적인 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래서 네 영적 엔진이 멈추는 것이다. 기도와 조용한 찬송을 시작하면, 앞으로 날아갈 것이며, 마치 별처럼 그리스도 주위를 맴돌게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은 참되고 진정한 기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쁨과 영적인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야말로 참된 기쁨과 천상의 환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

²¹⁶ 인용 출처: 사순절 트리어드. 제1권. 모스크바, 2002. 196쪽.

²¹⁷ 창세기 3:16 참조

²¹⁸ 그리스도 탄생 전야의 네 번째 자음송 참조. 『미네아』. 12월. 모스크바, 1997. 493쪽.

다. 그들은 “이것저것 해보고, 저곳에 가보고, 이곳에 가보자”는 환상에 빠져 있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으며, 오락에 탐닉하며 그로 인해 기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기쁨은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쁨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기쁨은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므로 사람은 마음속에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정원을 가꾸고, 금을 모으며,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으나, 결국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²¹⁹

세속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을 주며, 오직 그 순간에만 기분 좋을 뿐, 영적인 기쁨이 주는 것을 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기쁨은 바로 천국 같은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영적으로 부활한 이들은 부활절의 기쁨 속에서 삽니다. “부활절, 주님의 부활절!”²²⁰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순절에 이르러 그에게 불의 혀, 곧 성령이 임하면, 그때 모든 것이 끝납니다...²²¹

영적인 기쁨은 영적인 행위의 결과로 찾아옵니다

— 게론다, 천상의 기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이 생에서도 천상의 기쁨과 천상의 즐거움이 존재하며, 사람은 다른 세상에서 자신이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오직 직접 체험해야만 합니다.

— 그런 경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 너를 가득 채우는 기쁨을 감당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려면, 두 가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박하게 행동하고, 남을 쳐다보지 않으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너는 너무나 큰 기쁨을 느껴 내게 이렇게 말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헤론다, 제가 미쳤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건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느낌인가요?” 너에게는 그토록 미친 듯한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 게론다, 사람이 영적인 기쁨을 느끼려면 마음가짐이 선행해야 하나요?

— 네 생각에, 사람은 언제 영적인 기쁨을 느끼는가? 내면이 어수선할 때인가? 내면의 기쁨은 내면이 정리된 후에 찾아온다. 그것은 영혼에 날개를 달아준다. 영혼이 내면의 수련으로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마치 예열되지 않은 엔진을 가진 자동차와 같아서, 움직이게 하려

²¹⁹ 전도서 2:4-11 참조

²²⁰ 부활 카는 제1곡의 이르모스에서 발췌. — 편집자 주.

²²¹ 파이지스 장로의 이 말씀은 모든 신자의 영적 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은 성령을 얻는 데 있다. 사람이 성령의 신성화 은총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그는 “무한한 완전함”인 신성화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편집자 주.

면 밀어줘야 한다. 내면의 수련 — 절제, 주의, 교훈, 그리고 기도 — 이 영혼을 따뜻하게 데우면, 엔진이 시동 걸리고, 차는 앞으로 달려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외적인 것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영적 삶에서 거대한 걸음으로 전진합니다.

— 그렇다면 불리한 주변 환경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 아니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환경 밖의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이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마치 그 사람이 모르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듯하여, 그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무언가, 비록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의 주의가 그 말들에 뺏겨버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아는 언어에 완전히 몰입해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고양이가 시작됩니다. 내면의 고양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천사 계급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케루빔입니까, 세라핌입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섯 날개”²²² 라고 말한 천사들은 어떤 계급에 속합니까?

— 세라핌입니다, 게론다.

— 세라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박자에 맞춰 날개를 퍼덕입니다... 내면의 열정이 있을 때 심장도 정확히 그렇게 뛰죠. 그때 삶은 환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자기 자신에게 얽매어 있고, 자신의 ‘나’로부터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이 자유롭지 못하고 기쁨에 떨게 되는 상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기쁨을 맛보시고, 그 후에 오셔서 이야기합시다!

신성한 기쁨은 네가 자신을 내어줄 때 찾아온다

— 게론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기쁨을 느끼나요?

— 당연하죠! 사람이 참된 기쁨, 즉 영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려면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을 희생하지도 않으며 기쁨도 없습니다. 만약 믿는다면 사랑하게 되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되며, 그때 비로소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희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나옵니다.

— 사람은 사랑할 때 기뻐합니까?

— 물론이죠! 사랑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랑이 커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위한 기쁨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 그러니까 기쁨은 무언가에서 비롯되는 반면, 사랑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뜻인가요?

²²² 이사야 6:2

—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반면, 기쁨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을 베풀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기쁨을 얻으며, 사랑을 베풀 대가로 자신이 느끼는 기쁨을 보상받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주면, 그는 그 물건을 받고 그 물건 하나만으로 기뻐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을 베풀고,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합니다. 사람이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다. 그러나 베풀 때 느끼는 기쁨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다. 신성한 기쁨은 네가 자신을 바칠 때 찾아온다!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 헤론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소식을 받게 됩니까?

— 사람이 느끼는 내면의 기쁨, 신성한 위로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소식입니다.

—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느끼면서도 기쁨이나 신성한 위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는 어쨌든 무언가를 느낄 것입니다. 아마도 한때는 강한 위로를 경험했지만, 그 후 위로가 약해져서 신성한 위로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 헤론다, 왜 때로는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어 기쁨을 느끼다가도, 갑자기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시니, 당신은 기뻐합니다. 그러다 그 기쁨을 거두어 가시면, 당신은 그 기쁨을 찾기 시작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영적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 게론다, 왜 제가 이런 기쁨을 느끼는 건가요? 혹시 제게는 제 죄성을 깨닫는 의식이 없는 건가요?

—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탕으로 당신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탕이고, 나중에는 낙원에서 마시는 것과 같은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마시는 포도주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사랑스러운 마음, 조금이라도 선한 의지를 보시면, 아낌없이 그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미 이 생에서 그분의 포도주로 당신을 취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변화와, 신성한 은총이 찾아올 때 느끼는 마음의 기쁨은 그 어떤... 심장 전문의도, 아무리 위대한 의사라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느낄 때,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기쁨을 간직하도록 노력하세요.

—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기쁨을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까?

— 영적인 기쁨을 구하는 것은 소심한 일입니다. 그 기쁨은 조건이 갖춰지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만약 끊임없이 기뻐하고 싶다면, 그런 소망 속에는 자기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상의 보상을 위해서도, 이 생에서의 영적 기쁨을 위해서도 수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수고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으시니, 그들에게 이미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생과 내세에서 베푸시는 신성한 은사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고통은 곧 영적인 기쁨이다

— 헤론다, 사람은 어떻게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것을 영적으로 대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병과 시련조차도 그에게서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 사람이 시련을 영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욕을 떨쳐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사람이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시련이나 슬픔이 닥쳤을 때 여전히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러한 슬픔을 정욕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병자가 병을 낫게 해 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쓴 약을 기쁘게 받아들이듯이, 그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 하지만 기쁨과 고통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 영적 삶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무언가를, 심지어 고난까지도 참아낼 때, 그의 마음은 신성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의 수난에 동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생각에 깊이 공감하고 고통을 겪을수록, 신성한 환희로 더 풍성하게 보상받습니다. 고통은 기쁨, 고통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더 깊이 느낄수록 더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시며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기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슬퍼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나에게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수난에 더 깊이 동참하고 경건한 슬픔을 가질수록, 그리스도께서

는 그녀에게 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의미에서 그녀의 이성을 빼앗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부활에 앞서며 승리를 가져옵니다. 십자가는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달래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신인(神人)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와 함께 그 모든 괴로움도 스스로 짊어지셨으며, 우리에게 낡은 사람을 벗어던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는 자가 느끼는 기쁨과 환희를 남겨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대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의 일부를 맛봅니다.²²³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비록 제가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제가 더 이상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에서 항상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다음 생, 영원한 생에서는 그리스도 곁에서 끊임없이 기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5장.

사유 — 미덕의 화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와 같은 분별력이 나타납니다

— 헤론다, 왜 성부들은 분별력의 미덕이 “모든 미덕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²²⁴

— 분별력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미덕들의 왕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미덕의 질이 어떠한지냐에 따라 우리의 분별력도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의 미덕이 종이처럼 허술하다면, 미덕의 왕관, 즉 분별력도 종이처럼 허술해질 것입니다. 미덕이 청동이라면, 그 화관도 청동이 될 것입니다. 미덕이 금이라면, 그 화관도 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미덕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미덕의 화관인 분별력에도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입니다.

²²³ 누가복음 17:21

²²⁴ 성 요한 다마스쿠스의 『영혼에 유익하고 경이로운 말씀』. 성스러운 영성 수련자들의 『필로칼리아』. 제2권. 아테네, 1975. 237쪽.

— 게론다, ‘이성’이란 무엇입니까?

— 분별력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이는 마음이 정화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영의 명료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 요한 사다리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눈으로 우리는 육체적인 것을 보고, 분별력으로 영적인 것을 봅니다.”²²⁵

—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눈이 건강하면 잘 보이지만, 병에 걸리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의 선명함은 눈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에 따라 우리의 영적 통찰력, 즉 분별력도 결정됩니다.

— 헤론다, 영적인 눈은 어떻게 열리는 것입니까?

— 그리스도께서 눈먼 자의 눈을 먼지를 털어내어 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²²⁶ 그러나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먼지와 더러움, 죄의 오점을 떨쳐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눈에서 진흙을 털어내지 않았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²²⁷ 우리가 자신의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낡은 사람을 벗어던지지 않으며, 우리 안에 자기애와 이기심, 남의 눈치를 보는 마음이 계속 남아 있다면, 우리에게서 맑은 영적 시야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룰수록, 그의 영혼의 눈은 더 넓게 열립니다. 마음이 정화되고,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더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보게 되고, 겸손해지며 내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성한 깨달음이 임하며, 그는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되며, 영적 여정에서 걸림돌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은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조타 장치와 같아서, 바른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 헤론다, 사람이 선한 의지로 좋은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지나치게 되어 결국 악이 되어버린다면, 이는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까?

— 시작은 선할 수 있지만, 사람이 부주의하면 그 일에 이기심이 섞여 들어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나’, 즉 자아가 섞이게 되면 편견이 생기고, 마귀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신성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면적으로 주의 깊고

²²⁵ 시나이파 요한. 『클리맥스』. 아테네, 1970. 145쪽.

²²⁶ 참조: 요한복음 9:6

²²⁷ 오순절 이암비카논 제1곡의 이르모스에서. — 편집자 주.

겸손하게 살며, 눈에 띄지 않게 수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내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겸손하게 인간의 사소함과 광신 등을 극복하며, 좋은 의미에서 ‘열성가’가 됩니다.

— 게론다, 저는 각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 영적 지각의 명료함이 생기려면 정화가 필요합니다. 『라브사이크』, 『리모나리』, 『기억할 만한 이야기들』, 아부 바르소노피우스의 저서를 읽고, 이를 자신에게 적용하여 영적 직관을 키워라. 그러면 어디가 금이고 어디가 구리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영적 일에서 진정한 보석 세공인이 될 것이다.

모든 미덕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 게론다, 아바 이사악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분별력에 따라 덕을 인정하십니다²²⁸.”

—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든 하느님께 기쁨이 되려면, 그리고 어떤 미덕이든 진정으로 미덕이 되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미덕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모든 제물은 소금으로 간을 해야 한다.”²²⁹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적 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분별력이 필요한가! 사람은 자신의 힘과 영적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무리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그의 전체 영적 삶에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부들은 “과도한 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²³⁰ 예를 들어, 2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던 파이시우스 대성인의 경우, 끊임없이 3일간의 금식을 지키는 것은 극단적인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력이 쇠약해 다리가 떨리고, 일 년에 한 번 3일간의 금식을 간신히 견뎌내는 사람²³¹에게 끊임없이 그런 금식을 강요하는 것은 극단적인 행동이 될 것이며, 우리가 말했듯이 극단은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 게론다, 저는 영적 수행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다른 미덕들에서는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예를 들어 주실 수 없으신가요?

— 예를 들어, 너를 보자. 너는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말할 필요가 있겠니?

— 말씀해 주세요, 게론다.

²²⁸ 인용 출처: 아바 이사악 시리노스의 수행자적 말씀. 모스크바, 1993. 423쪽. 러시아어 번역본에서는 “미덕”이라는 단어 대신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 *번역자 주*.

²²⁹ 마가복음 9:49

²³⁰ 참조: 『성인과 복된 교부들의 수행에 관한 기념할 만한 이야기들』.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3. 152쪽.

²³¹ 3일간의 금식: 성 사순절의 첫 3일 동안, 이 기간 동안 정교회 신자들은 음식과 물을 삼간다. — *편집자 주*.

— 그런데 매너는... 사악한 계모 같구나. 너에게는 희생 정신도, 자기 부인도, 친절함도 넘치지만 분별력이 없어. 너는 어떤 사람이 나와 이야기하는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기만 해. 하지만 네 마음을 보지 못하고 오직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당황하게 되지.

—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게론다?

—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십시오. 인내와 기도로 무장하면 점차 분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 속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 아바 피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고 그를 위로하라.”²³² 그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 그는 형제나 이웃의 필요를 알아내고, 그에 맞게 좋은 의미에서 그를 위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 속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식탐이 많다면, 그에게 항상 맛있는 음식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준비해 줘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그에게 단 것을 준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 게론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면서도 분별 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 그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두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은 가까이서 사랑합니다. 누구에게나 유익한 방식대로 말이죠. 어떤 사람과는 아예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몇 마디 말을 건네야 하며, 또 다른 사람과는 좀 더 오래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 사랑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나요?

—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질이 있고, 그에게 큰 사랑을 베풀면, 그는 좋은 의미로 변하며 온갖 방법으로 당신에게 보답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건방진 사람은, 네가 그에게 큰 사랑을 베풀면 더 건방져진다. 왜냐하면 큰 사랑은 사랑이 많은 사람을 더 사랑이 많게 만들고, 건방진 사람은 더 건방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네 사랑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분별을 가지고 사랑을 줄여야 하지만, 그것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 게론다, 순수한 동기로 희생했다가 결국 분개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²³² Τό Γερωντικόν. 아테네, 1981. 93쪽.

—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분별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육체적 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섰을 때, 누군가 당신에게 “아침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라고 말하면, 당신은 “이 불평불만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일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다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 버린다.

— 만약 내가 마음속으로 잠시 분노했다가, 곧바로 ‘이건 내가 순수한 동기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경우에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가요?

— 이 경우 탄갈라슈카가 너를 밀치면, 너는 그에게 뺨을 때리는 것으로 응수하는 것이다. 그러면 탄갈라슈카는 뺨을 맞고 도망간다.

이론에는 한계도 규칙도 없다

— 게론다, 추론에는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 아니요, 분별력에는 정해진 기준도, 한계도, 규칙도 없습니다. ‘예’도 있고 ‘아니오’도 있으며, ‘많다’도 있고 ‘적다’도 있습니다. 분별력을 갖춘 자매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항상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그녀는 신성한 깨달음으로 빛을 받고 영적인 직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 게론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제가 편협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셨나요?

— 너는 사물을 좁은 시각으로 바라본다. 너는 질서만 신경 쓰고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예를 들어 예배 때, 너는 “누구누구 자매는 저기에 서서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말한다. 너는 그 자매에게 서 있을 힘이 있는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먼저 그 ‘~해야 한다’는 말을 어디에, 어떻게 실천에 적용할지 살펴본 다음, 그 후에야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너에게는 사려 깊은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건조하고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것이다.

사람이 교회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면, 영적이어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문자에만 얽매이게 되는데, 법의 문자는 “죽인다.”²³³ 누군가 네게 “『코르므차야』²³⁴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말하며, 책에 적힌 대로 문

²³³ 고린도후서 3:6

²³⁴ 코르마차(그리스어: Πηδάλιον — 역자 주) — 정교회의 규범 모음집으로, 여기에는 세계 공의회와 성스러운 규범, 성 사도들의 규범, 그리고 교회의 성부들의 규범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제시되어 있다. 이 모음집은 1793년에 성 니코딤 스비아토고르츠와 수도사 아가피오스에 의해 편찬되었다. — 편자 주.

자 그대로 적용하지만, 사실은 각 사례를 따로따로 분석해야 한다. 제가 실제로 목격했듯이, 한 가지 사례 속에 수천 가지의 다른 사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회는 그 사람 자신과 그의 상태, 그가 저지른 잘못, 그가 보인 회개에 부합해야 하며, 그 외에도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삶의 상황에 적용되는 단 하나의 처방이나 통일된 규칙이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 즉 신성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여,”라고 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집과 그곳으로 이끄는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과 우리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신성한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선한 불안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선한 불안이 깃들 것입니다. 이 불안은 조만간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영역으로 이끌 것이며, 그곳에서 영혼은 풍부한 산소를 얻고, 생기를 되찾아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선한 불안 — “선한 업적”에 대한 선한 염려²³⁵

— 게론다, 선한 불안이란 무엇입니까?

— 선한 불안이란 ‘선한 수련’에 대한 선한 염려입니다. 사람은 수련하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발견하며, 깊이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며, 영적 수련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즉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겸손으로. 그렇다면 겸손이 필요하겠구나.” 짹짹, 도끼로 교만을 베어 버립니다. 요컨대, 사람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며 영적 수련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보라,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진학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식이다. 만약 학업 성적이 좋지 않다면,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면 도움을 청하거나 보충 수업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학위를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그 후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고, 더 공부하고 싶다면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도 있으며, 해외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학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물며 영적 삶, 즉 영적 학문인 영적 삶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 성취를 위해 더욱 애써야 합니다!

²³⁵ 참조: 디모데전서 6:12

선한 염려란 활기와 열망입니다. 그것은 영혼에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으며,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라 위로를 가져다줍니다. 그것은 긴장이 아니며 불안도 아닌, 위업을 향한 열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때때로 어느 정도의 정체 현상이 관찰됩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성인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열정, 그런 열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내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할 ‘선한 불안’이라는 내면의 레버가 아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문제를 가슴 깊이 새겨 봅시다

— 하지 게오르기 장로의 행적에서 당신은 이렇게 썼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 육신을 겸손하게 하고 정욕을 죽입니다.”²³⁶ 저에게는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이 그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음과 정신은 천국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아파할 때, 정신도 마음이 아파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모든 것은 그 아픔에 달려 있습니다. 아플 때는 먹기도, 자기도 싫어지잖아. 선한 염려를 품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 네가 아직 천국을 목표로 삼지 않은 것 같아. 네 목표는 이 땅이야. 아직 네 영혼의 구원 문제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하지만 이 문제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구원받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것에 얽매어 끊임없이 정체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선한 불안감이 깃들 것입니다. 이 불안감은 조만간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영역으로 옮겨 줄 것이며, 그곳에서 영혼은 풍부한 산소를 얻고, 생기를 되찾아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성을 주신 것은, 한 빛의 지점에서 다른 빛의 지점으로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즉 최종 목표인 하나님께 나아가고, 참된 나라, 천국에 도달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²³⁶ Γέροντος Παΐσιου Αγιορείτου. Ὁ Γέρων Χατζη-Γεώργης ὁ Ἀθωνίτης. Σουρωτή Θεσσαλονίκης, 1986. Σ. 34.

“지혜로운 자에게 죄를 주면, 그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²³⁷

— 무관심한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도록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그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많은 것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면, 마치 더 빨리 가라고 채찍으로 때려도 움직이지 않는 소처럼 상처만 입게 될 뿐입니다. 채찍에 상처만 입을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헤론다, 사람에게 선한 의지가 있고 당신이 그에게 자극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무언가를 성취하도록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 네,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밀어주는 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어주는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사람이 고치려 하지 않아서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를 도우려는 사람에게는 매우 지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적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한 불안감이 싹트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영적 성취가 없을 것이며, 그는 자꾸만 밀어줘야 하는 사각 바퀴와 같을 것입니다. 밀면 툭 하고 멈춰 서고, 다시 밀면, 툭 하고 멈춰 선다. 도대체 그렇게 갈 수 있겠는가? 앞길이 멀다면, 밀고 당기며 어떻게 그 길을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영적인 길은 길다. 백 미터도, 이백 미터도 아니다.

— 게론다, 선한 불안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 예를 들어, 제가 영혼에 유익한 책을 읽다가 제게 깊은 인상을 주는 대목에서 멈춘다고 합시다. 마치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이것이 어떤 보석인지 알아보고자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을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문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다음 제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그렇게 서서히 저는 영적 삶에서 올바른 길을 걷는 법을 배워 나갑니다. 아바 이사악에 대해서는 아무도 저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지만, 어느 날 식료품점 주인이 저에게 청어를 ‘스비아토 고르스카야 도서관’ 잡지 한 장에 싸주었습니다. 그것을 펼치던 중, 제 시선이 종이에 인쇄된 글에 쏠렸습니다. 그것은 성 이삭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 햇볕에 말린 뒤 읽어 보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글을 읽는 데만 일 년을 보냈습니다.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며 성 이삭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책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찾아보았지만, 그 책을 발견하고 손에 쥐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것을 읽는데, 과연 읽는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을 적어 두십시오. 적어 두고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쉽게 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²³⁷ 잠언 9:9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작 두세 마디만 말해도, 그들의 눈이 금세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들은 내용을 종이 조각에 적어두고, 실천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 그리하면 지극히 지혜로워지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²³⁸ 반면 다른 이들은, 비록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선한 불안이 깃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와서 단순히 자신의 상태를 저에게 설명할 뿐, 위업에 대한 선한 불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피상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영적 삶이 모두 명확한 것일까요? 의문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선한 불안이 생기면, 그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기 시작하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묻지 않고서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나는 한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그들과 함께 어린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가는 내내 아버지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이것저것 물어댔다. “아빠, 이건 뭐예요? 아빠, 이건 왜 그래?” — “좀 내버려 둬, 네 때문에 아빠 머리가 아파,” —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 “물어보게 댜, —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 묻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니?”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근심’을 가진 사람의 영적 행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곳의 한 자매가 어떤 질문들에 사로잡혀 있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기뻐합니다. 그녀가 헛된 호기심이 아니라 선한 근심에서 저에게 던지는 질문 중 단 하나에 답하기 위해서만 해도, 공책 한 권을 통째로 채워야 할 정도입니다. 그녀에게는 위대하고 선한 근심이 있으며, 많은 것을 포착하고 열정적으로 수련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고치려 애쓰며,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선한 불안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 게론다, 제가 제대로 수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걱정됩니다.

— 두려움을 느끼나요?

— 아니요, 그런데 왜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걸까요?

— 자애로운 이여, 평온한 불안과 불안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선한 불안이 있어야 하며,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결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으며, 그 안에는 항상 자신의 성실하고 정직한 노력에서 비롯된 어느 정도의 불안이 존재합니다.

²³⁸ 잠언 9:9

— 계론다, 수련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선한 불안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언젠가 찾아 오나요?

— 아니요, 이 생에서 선한 불안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려라, 그리하여 얻으라”²³⁹ (즉, “달려가서 얻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달리고,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달리는 동안 피로가 아니라 기쁨을 느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훌륭한 사냥개는 토끼 냄새를 맡으면 사냥꾼 곁에 서 있지 않고, 제자리에서 뛰쳐나와 달리고 토끼를 찾습니다. 달리고, 잠시 멈춰 냄새를 맡고, 다시 달립니다. 그 개는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개의 마음은 토끼를 찾는 데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그 개에게 있어 제자리에 서 있는 것보다 달리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그 개에게 삶이란 달리고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흔적을 따라가고, 길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면서도, 종종 제자리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몰랐다면,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기로는, 코니체에 계신 아버지께 잘 훈련된 그레이하운드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 아르세니오 프로드로모스 코르치노글루 성당의 성가대장이 양 떼를 지키기 위해 같은 품종의 강아지 한 마리를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강아지 한 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프로드로모스는 늑대가 다가올 때 개가 짖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코르치노글루의 이웃은 열렬한 사냥꾼이었지만, 그의 개가 병에 걸려 사냥을 못 하게 되자 매우 안타까워했다. 프로드로모스는 이 사실을 알고 그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 개를 드릴게요. 에즈네피디스의 개와 같은 품종이에요.”²⁴⁰ 이웃은 기뻐하며 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 그는 숲에 도착해 사냥꾼들이 늘 그러하듯 손을 휘저어 개에게 찾아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개는 달아나기는커녕 사냥꾼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다리를 핥고 손바닥을 톡톡 치며 빵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개는 품종이 좋은 좋은 개였지만, 토끼 사냥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냥꾼 주위를 계속 맴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 생각에, 그 흔적을 찾아냈으니,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그분으로 가득 차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오 하나님, 이제 그만, 더는 못 하겠어요.”라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²³⁹ 고린도전서 9:24

²⁴⁰ 파이시스 장로의 아버지의 성. - 편집자 주.